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쥘 베른 (Jules Verne)

1873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쥘 베른 (Jules Verne),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Pierre-Jules Hetzel 1873 (영역본 G.M. Towle))

저자

쥘 베른 (Jules Verne) · 1828–1905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03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6-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I장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투, 주인과 하인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다

1872년, 필리어스 포그 씨는 버링턴 가든의 사빌 로 7번지에 살았다. 그곳은 1814년 셰리던이 사망했던 집이기도 했다. 포그는 리폼 클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원 중 한 명이었으나, 정작 본인은 늘 남의 이목을 피하는 듯 보였다. 그는 세련된 신사라는 점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바이런을 닮았다고, 적어도 그 외모만큼은 바이런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그는 수염을 기른 채 평온한 모습의 바이런이었으며, 천 년을 살아도 늙지 않을 것만 같은 기색을 풍겼다.

필리어스 포그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은 확실했으나, 그가 런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았다. 그는 증권거래소나 은행, 혹은 시티의 회계 사무실에서 모습이 포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소유한 배가 런던 부두로 들어온 적도 없었으며, 공직을 맡은 적도 없었다.

템플 법률학교나 링컨 법률학교, 그레이스 법률학교 중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었고, 형평법원이나 재무법원, 왕좌법원, 혹은 교회 법원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적도 없었다. 그는 분명 제조업자도 아니었고, 상인이나 지주도 아니었다. 과학계나 학술계에서도 그의 이름은 생소했다. 왕립 협회나 런던 협회, 직공 협회, 혹은 예술과학 협회의 현명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는 음악 협회부터 해로운 곤충을 박멸하기 위해 설립된 곤충학회에 이르기까지, 영국 수도에 수없이 넘쳐나는 수많은 단체 중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리폼 클럽의 회원이었고, 그게 전부였다.

그가 이 독점적인 클럽에 입회하게 된 과정은 아주 간단했다.

그는 베어링스 은행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곳과는 신용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가 발행한 수표는 언제나 잔액이 넉넉한 당좌 예금 계좌에서 즉시 결제되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포그에게 그 내력을 물어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사치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니었다. 고결하거나 유익하거나 혹은 자선적인 목적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그는 조용히, 때로는 익명으로 그 비용을 대곤 했다. 한마디로 그는 남에게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수도 매우 적었으며, 그 과묵한 태

도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인물처럼 보였다. 그의 일상적인 습관은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이전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에, 호기심 많은 이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할 뿐이었다.

그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세상을 그만큼 훤히 아는 사람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딴곳이라 해도 그는 마치 그곳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리폼 클럽 회원들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소식이 끊긴 여행가들에 대해 수만 가지 추측을 내놓을 때면, 그는 명료한 몇 마디 말로 그 추측들을 바로잡아 주곤 했다. 그는 늘 실제 일어날 법한 사실을 짚어냈는데, 그의 예측이 적중하는 일이 워낙 잦다 보니 마치 예지력이라도 지닌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적어도 마음만은 세상 모든 곳을 다 누비고 다닌 것이 분명했다.

적어도 필리어스 포그가 수년 동안 런던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와 남다른 친분을 쌓은 이들은, 그를 다른 곳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사실일 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신문을 읽거나 휘스트 게임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는 이 게임에서 자주 이기곤 했는데,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게임의 특성이 그의 성격과도 잘 맞았다. 하지만 게임으로 딴 돈은 결코 그의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돈은 모두 자선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따로 떼어 두었기 때문이다. 포그는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경기에 임했다. 그에게 게임이란 일종의 대결이자 난관과의 싸움이

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임 없는 싸움이었으며,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취향에 딱 맞는 싸움이었다.

필리어스 포그에게 아내나 자식이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는 있는 법이지만,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조차 없다는 것은 확실히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사빌 로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홀로 지냈으며, 그 누구도 그 집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하인 한 명이면 그를 모시기에 충분했다. 그는 리폼 클럽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시간은 수학적으로 정해진 듯 정확했으며, 항상 같은 방, 같은 탁자에서 식사했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손님을 데려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는 정확히 자정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리폼 클럽이 우수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안락한 객실은 그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을 사빌 로에서 잠을 자거나 몸단장을 하며 보냈다. 산책을 하고 싶을 때면 모자이크 바닥이 깔린 현관 홀이나, 20개의 붉은 반암 이오니아식 기둥이 돔을 받치고 푸른색 채색 창문이 빛을 비추는 원형 회랑을 일정한 보폭으로 걸었다. 그가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클럽의 모든 시설, 즉 주방과 식료품 저장실, 버터 저장실과 유제품 저장실이 동원되어 가장 맛있는 음식들로 그의 식탁을 가득 채웠다. 연미복을 입고 백조 가죽 밑창을 댄 구두를 신은 엄숙한 웨이터들이 특별한 자기 그릇과 최고급 리넨 위에 음식을 차려 내왔다. 지금은 사라진 양식으로 만들어진 클럽의 디캔터에는 셰리주와 포트와인, 그리고 계피 향이 가미된 클라레가 담겨 있었다. 그가 마시는

음료는 미국 호수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져온 얼음으로 시원하게 식혀져 나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괴짜 같은 일이라면, 괴짜 같다는 것에도 분명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빌 로에 있는 저택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안락했다. 집주인의 생활 방식은 하인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필리어스 포그는 그 하인이 거의 초인적일 만큼 신속하고 규칙적이기를 요구했다. 바로 이번 10월 2일에도 그는 제임스 포스터를 해고했다. 운 나쁜 그 청년이 면도할 물을 화씨 86도가 아닌 84도로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이제 포그는 새로 올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전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저택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안락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마치 사열 중인 척탄병처럼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몸을 곧게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는 시, 분, 초, 일, 월, 년을 모두 나타내는 복잡한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에 따라, 포그는 정확히 11시 반이 되면 사빌 로를 떠나 리폼 클럽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그 순간, 필리어스 포그가 앉아 있는 안락한 거실의 문에서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해고당한 하인 제임스 포스터가 나타났다.

“새 하인입니다.” 그가 말했다.

서른쯤 된 젊은 남자가 들어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프랑스 사람인 것 같군요." 필리어스 포그가 물었다. "이름이 존 맞습니까?"

"장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주인님." 새로 온 남자가 대답했다. "장 파스파르투입니다. 이 성은 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겁니다. 이 일 저 일을 옮겨 다니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요. 주인님,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업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떠돌이 가수도 했고, 레오타드처럼 공중제비를 넘고 블롱댕처럼 줄 위에서 춤을 추던 서커스 기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재능을 더 잘 써먹으려고 체조 교사가 되기도 했지요. 그 후에는 파리의 소방 상사로 일하며 큰 화재 현장마다 달려가 불을 끄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가정생활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서 이곳 영국으로 건너와 하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어스 포그 씨가 영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규칙적인 신사라는 말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인님을 모시고 평온한 삶을 살면서,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조차 잊고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군요." 포그 씨가 대답했다. "추천이 아주 좋더군요.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주인님."

"좋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22분입니다." 파스파르투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은제 시계를 꺼내며 대답했다.

"너무 느리군요." 포그 씨가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4분이나 느리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번 주 수요일인 10월 2일 오전 11시 29분을 기해, 당신은 나의 하인입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모자를 쥐었다. 그는 마치 기계적인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게 모자를 머리에 썼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파스파르투는 거리로 통하는 문이 한 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새 주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였다. 이어 문이 다시 한 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전임 하인인 제임스 포스터가 차례로 떠나는 소리였다. 이제 사빌 로의 저택에는 파스파르투만이 홀로 남았다.

제II장

파스파르투가 마침내 자신의 이상향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장

“세상에나,” 파스파르투가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중얼거렸다. “새 주인님만큼이나 생기 넘치는 사람들을 마담 투소의 밀랍 인형 박물관에서나 본 것 같군!”

마담 투소의 '사람들'은 밀랍으로 만들어졌으며, 런던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다.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는 오직 말 한마디뿐이다.

파스파르투는 포그 씨와 짧은 면접을 나누는 동안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포그 씨는 마흔 살 정도로 보였으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데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 머리카락과 구레나룻은 밝은 색이었고, 이마는 매끈하고 주름 하나 없었다. 얼굴은 다소 창백했으나 치아는 아주 훌륭했다. 그의 표정에는 관상학자들이 말하는 '행동 중의 평온함'이 극치에 달해 있었다. 이는 말하기보다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질이다. 차분하고 침착하며 눈빛이 맑은 포그 씨는, 마

치 안젤리카 카우프만이 캔버스 위에 능숙하게 그려낸 영국 신사의 침착함을 그대로 구현한 듯한 완벽한 전형이었다. 일상의 여러 모습을 통해 본 그는 마치 르로이 크로노미터처럼 정교하게 조절된, 완벽한 균형을 갖춘 인물이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참으로 정확함 그 자체였으며, 이러한 성격은 그의 손과 발의 움직임에서조차 드러났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사지의 움직임에 감정이 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는 워낙 정확한 사람이라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걸음과 동작 하나하나에도 낭비가 없었다. 그는 결코 불필요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고, 항상 가장 빠른 길을 택해 목적지까지 이동했다. 불필요한 몸짓도 하지 않았으며,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곤 했다.

그는 혼자 살았으며, 말하자면 그 어떤 사회적 관계와도 단절된 채 지냈다. 세상일에는 마찰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마찰이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누구와도 부딪히는 법이 없었다.

파스파르투는 그야말로 파리의 진정한 파리 사람이었다. 고국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와 하인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주인을 찾아 헤맸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파스파르투는 몰리에르의 희극에 등장하는, 눈을 부릅뜨고 코를 높이 치켜든 건방진 바보 같은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정직한 사내였다. 쾌활한 얼굴에 입술은 약간 도톰했고, 태도는 부드러우며 일솜씨도 야무졌다. 또한 친

구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흐뭇해지는, 둥글둥글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눈은 푸른빛을 띠었고 혈색은 좋아 보였으며, 체격은 거의 풍채가 좋을 정도로 건장했다. 몸에는 근육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젊은 시절 꾸준히 단련한 덕분에 신체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결과였다. 갈색 머리카락은 다소 헝클어진 상태였다. 고대 조각가들이 미네르바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법을 열여덟 가지나 알고 있었다고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자기 머리를 만지는 법을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커다란 빗으로 세 번 슥슥 빗어 넘기는 것으로 몸단장을 끝냈다.

파스파르투의 활기찬 성격이 포그 씨와 얼마나 잘 맞을지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새로 들어온 하인이 주인이 요구하는 만큼 철저하게 규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오직 경험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파스파르투는 젊은 시절 떠돌이 생활을 했기에 이제는 안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미 열 곳의 영국 저택에서 일해 보았지만, 아직 안식을 찾지는 못했다.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주인들이 하나같이 변덕스럽고 불규칙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나라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거나 모험을 찾아 나서기 바빴다. 파스파르투는 이런 상황에 늘 낙담하곤 했다. 직전 주인인 국회의원 롱퍼리 경은 밤마다 헤이마켓의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이면 경찰의 어깨에 들려 집으로 실려 오는 일이 허다했다. 파스파르투는 모시는 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충고를 건넸다. 하지만 주인에게 환영받지 못하자 그는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던 중 필리어스 포그 씨가 하인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삶

은 한결같이 규칙적이며, 여행을 떠나거나 집을 비우고 밤을 지새우는 일도 없다는 말에 파스파르투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곳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보았듯이, 그는 포그 씨를 찾아갔고 하인으로 채용되었다.

열한 시 반이 되자, 파스파르투는 새빌 로에 있는 저택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지체 없이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훑었다.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이 엄숙한 저택은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가스등이 밝히는 빛과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마치 달팽이 껍데기처럼 아늑한 집처럼 느껴졌다. 파스파르투가 2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이 머물 방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무척 만족했다. 아래층과 소통할 수 있는 전기 벨과 통신관이 갖춰져 있었고, 벽난로 선반 위에는 전기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 시계는 포그 씨의 침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으며, 두 시계는 같은 순간에 똑같은 초를 새기고 있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파스파르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문득 시계 위에 걸린 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저택의 일과를 적어 놓은 시간표였다. 시간표에는 필리어스 포그가 일어나는 오전 8시부터, 그가 리폼 클럽으로 떠나는 11시 반까지 하인이 해야 할 모든 일이 적혀 있었다. 8시 23분에는 차와 토스트를 준비하고, 9시 37분에는 면도용 물을 가져오며, 9시 40분에는 몸단장을 마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담겨 있었다. 오전 11시 반부터

규칙적인 신사가 잠자리에 드는 자정까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빈틈없이 계획되어 있었다.

포그 씨의 옷장은 아주 풍성하면서도 세련된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바지와 코트, 조끼에는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이는 계절과 시기에 맞춰 언제 꺼내 입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인인 포그 씨의 구두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다. 요컨대, 명성 높지만 방탕했던 전 주인 셰리던이 살 때는 무질서와 불안이 가득한 집이었을 새빌 로의 저택이, 이제는 아늑함과 편안함, 그리고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포그 씨에게는 서재나 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리폼 클럽에 가면 일반 문학 서적과 법률 및 정치 서적을 갖춘 두 개의 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침실에는 도둑은 물론 화재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적당한 크기의 금고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집 안 어디에서도 무기나 사냥 도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저택의 모든 물건은 그곳에 사는 이가 얼마나 평온하고 평화로운 습관을 지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본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을 담아 말했다.

"바로 내가 바라던 곳이야! 아, 포그 씨와 나는 아주 잘 맞을 거야! 이 얼마나 가정적이고 규칙적인 신사인가! 정말이지 한 대의 기계 같군. 뭐, 기계를 모시는 일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환영이야."

제III장

필리어스 포그에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할 듯한 대화가 오가는 장

필리어스 포그는 11시 반에 집 문을 닫고 길을 나섰다. 오른발을 왼발 앞에 575번, 왼발을 오른발 앞에 576번 내디딘 끝에 그는 팰 말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인 리폼 클럽에 도착했다. 그 건물의 건축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파운드는 들었을 것이다. 그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아홉 개의 창문이 나 있었고, 그 너머로는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늘어선 품격 있는 정원이 보였다. 그는 이미 자리가 마련된 늘 앉던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아침 식사로는 곁들임 요리와 리딩 소스를 곁들인 생선구이, 버섯을 올린 선홍빛 로스트비프 한 조각, 루바브와 구스베리 타르트, 그리고 체셔 치즈 한 점이 나왔다. 식사 후에는 리폼 클럽의 명물인 차를 여러 잔 마셨다. 그는 12시 47분에 자리에서 일어나 대강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액자에 담긴 그림들로 장식된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하인이 아직 페이지가 재단되지 않은 《타임스》지를 가져다주자, 포그는 이 섬세한 작업에 익숙한 능숙한 솜씨로 신문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잘라 나갔다. 그는 3시 45분까지

이 신문을 읽는 데 몰두했고, 그다음 과제인 《스탠더드》지를 읽느라 저녁 식사 시간까지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역시 아침과 다를 바 없이 지나갔다. 포그 씨는 5시 40분에 다시 독서실에 나타나 《팰 말》지를 읽기 시작했다. 30분 뒤, 리폼 클럽의 회원 몇 명이 들어와 석탄 불이 일정하게 타오르는 벽난로 근처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포그 씨와 늘 휘스트 게임을 함께하는 파트너들이었다. 엔지니어인 앤드루 스튜어트, 은행가인 존 설리번과 사무엘 팔렌틴, 양조업자인 토머스 플래너건, 그리고 영란은행 이사 중 한 명인 고티에 랄프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영국의 무역과 금융계를 주도하는 이들이 모인 클럽 내에서도 모두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

"자, 랄프," 토머스 플래너건이 말했다. "그 강도 사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오," 스튜어트가 대답했다. "은행은 그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되겠지."

"반대야." 랄프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나는 우리가 그 강도를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네. 실력 있는 탐정들이 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주요 항구로 모두 파견되었으니, 만약 그가 탐정들의 손아귀를 빠져나간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놈이겠지."

"하지만 강도의 인상착의는 파악했나?" 스튜어트가 물었다.

"애초에 그는 강도가 아니야." 랄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뭐라고! 5만 5천 파운드를 훔쳐 달아난 자가 강도가 아니라고?"

"아니."

"그렇다면 아마 제조업자일지도 모르겠군."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범인은 신사라고 하더군."

신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이 말을 던진 사람은 바로 필리어스 포그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대화에 참여했다. 화제가 된 사건은 런던 시내의 온갖 입에 오르내리던 일로, 사흘 전 영국 은행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당시 수석 출납원은 3실링 6펜스를 받은 내역을 기록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그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5만 5천 파운드 상당의 지폐 꾸러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물론 사람이 눈을 모든 곳에 두어 일일이 살필 수는 없는 법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영국 은행이 대중의 정직함을 아주 감동적일 정도로 신뢰한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경비원도, 창살도 없다. 금과 은, 지폐들은 누구라도 손만 뻗으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영국의 관습을 예리하게 관찰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은행의 한 방에 머물다가 호기심이 생겨 7, 8파운드 정도 나가는 금괴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는 금괴를 들어 자세히 살핀 뒤 옆 사람에게 건넸고, 그 옆 사람도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금괴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 어두운 통로 끝까지 흘러갔고, 30분이 지나도록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출납원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황이 그리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았다. 사무실의 육중한 시계가 다섯 시를 알렸음에도 지폐 꾸러미를 찾지 못하자, 결국 그 금액은 손실로 처리되었다. 도난 사실이 밝

혀지자마자, 2천 파운드의 현상금과 회수 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공고에 자극받은 유능한 탐정들이 리버풀, 글래스고, 하브르, 수에즈, 브린디시, 뉴욕 등 여러 항구로 급히 파견되었다. 또한 탐정들은 철도로 런던에 도착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을 면밀히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았고, 즉각적인 사법 조사도 시작되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보도처럼, 범인이 전문적인 도둑 집단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날,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부유한 기색이 완연한, 옷차림이 깔끔한 신사 한 명이 범행이 일어난 지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인상착의는 쉽게 파악되어 탐정들에게 전달되었다. 랄프를 포함한 몇몇 낙관적인 이들은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신문과 사교 클럽은 온통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추격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특히 리폼 클럽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다. 회원 중 몇몇이 은행 관계자였기 때문이다.

랄프는 탐정들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시된 현상금이 탐정들의 열의와 활동력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결코 그와 같은 확신을 갖지 않았다. 두 사람은 휘스트 게임을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멈추지 않았다. 스튜어트와 플래너건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렀고, 필리어스 포그는 팔렌틴을 파트너로 맞이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화가 멎었으나, 판이 바뀔 때마다 대화는 다시 활기를 띠며 이어졌다.

"내 생각은 달라." 스튜어트가 말했다. "범인이 유리한 상황이야. 분명 아주 영악한 놈일 거라고."

"글쎄, 하지만 그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나?" 랄프가 물었다. "그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텐데."

"흥!"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세상은 충분히 넓으니까."

"한때는 그랬지요." 필리어스 포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토머스 플래너건에게 카드를 건네며 덧붙였다. "컷(Cut) 하십시오."

휘스트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논쟁은 잦아들었으나, 게임이 끝난 뒤 스튜어트가 다시 그 화제를 꺼냈다.

"'한때'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뜻인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랄프가 대답했다. "저도 포그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는 백 년 전보다 열 배는 더 빠르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으니, 세상이 그만큼 좁아진 셈이지요. 그렇기에 이번 도둑을 잡는 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둑이 더 쉽게 도망칠 수도 있는 법이지요."

"스튜어트 씨, 계속 게임을 진행해 주시지요."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스튜어트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한 판의 게임이 끝나자 그는 간절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랄프, 자네는 세상이 좁아졌다는 사실을 참으로 묘한 방식으로 증명하는군. 그러니까, 세 달이면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80일이면 충분합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신사 여러분." 존 설리번이 말을 보탰다. "대인도 반도 철도의 로탈과 알라하바드 구간이 개통되었으니, 이제는 단 80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데일리 텔레그래프》지가 추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몽센과 브린디시를 거쳐 수에즈까지, 철도와 증기선 이용 ..... 7일 수에즈에서 봄베이까지, 증기선 이용 ..... 13일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 철도 이용 ..... 3일 캘커타에서 홍콩까지, 증기선 이용 ..... 13일 홍콩에서 요코하마(일본)까지, 증기선 이용 ..... 6일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증기선 이용 .....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철도 이용 ..... 7일 뉴욕에서 런던까지, 증기선과 철도 이용 ..... 9일 ---------- 총

계 80일

"그렇습니다, 단 80일이면 충분합니다!" 스튜어트가 흥분한 나머지 카드를 잘못 돌리며 외쳤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악천후나 역풍, 난파, 철도 사고 같은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변수까지 포함한 계산입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그는 회원들의 논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갔다.

"하지만 만약 힌두교도나 인도인들이 철로를 뽑아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스튜어트가 대답했다. "열차를 멈춰 세우고, 수하물 칸을 약탈하며, 승객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버릴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 모든 변수까지 포함한 계산입니다." 포그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그러고는 카드를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트럼프 두 장입니다."

차례가 되어 카드를 돌리던 스튜어트가 카드들을 거두어 모으며 말을 이었다. "이론적으로는 포그 씨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튜어트 씨."

"포그 씨가 80일 안에 직접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갈까요?"

"맙소사, 하늘이시여! 이런 조건으로 그런 여정을 떠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4,000파운드를 걸겠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장 내기를 하시지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한다고요?"

"그렇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언제 말이오?"

"당장 말입니다. 다만 당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거라고 미리 경고해 두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튜어트가 외쳤다. 친구의 끈질긴 태도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자, 그만하고 게임이나 계속합시다."

"그럼 다시 패를 돌립시다."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방금 건 잘못된 패였군요."

스튜어트가 초조한 손길로 카드를 집어 들더니, 갑자기 다시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포그 씨."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죠. 이 일에 4,000파운드를 걸겠습니다."

"진정하게, 친애하는 스튜어트." 팔렌틴이 말했다. "그저 농담일 뿐이라네."

"내기를 하겠다고 말할 때는," 스튜어트가 대답했다. "빈말이 아니네."

"좋습니다." 포그 씨가 말했다. 그는 다른 회원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베어링 은행에 2만 파운드를 예치해 두었는데, 그 돈을 기꺼이 걸겠습니다."

"2만 파운드라고!" 설리번이 외쳤다.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지연만으로도 잃게 될 2만 파운드 말일세!"

"예기치 못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포그 씨, 80일이라는 건 이 여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상 시간일 뿐입니다."

"잘 활용된 최소한의 시간이면 모든 일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기차에서 증기선으로, 다시 증기선에서 기차로 수학적으로 계산된 듯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갈아타야만 할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듯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갈아타겠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내기처럼 중대한 문제를 논할 때, 진정한 영국인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내가 80일 이내에, 즉 1,920시간 혹은 115,200분 안에 세계 일주를 마칠 수 있겠느냐에 대해 내기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와도 2만 파운드를 걸고 맞서겠습니다. 다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락하겠네."

스튜어트, 팔렌틴, 설리번, 플래너건, 그리고 랄프 씨가 서로 의견을 나눈 뒤 대답했다.

"좋습니다." 포그 씨가 말했다. "기차가 8시 45분에 도버로 출발합니다. 나는 그 기차를 타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인가?" 스튜어트가 물었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그는 휴대용 달력을 꺼내 확인하더니 덧붙였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이니,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는 이곳 리폼 클럽의 이 방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현재 베어링 은행에 내 이름으

로 예치해 둔 2만 파운드는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표가 있습니다."

내기 내용을 기록한 증서가 즉시 작성되었고, 여섯 명의 당사자가 모두 서명했다. 그 과정에서도 필리어스 포그는 동요 없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결코 돈을 따기 위해 내기에 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전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를 건 이유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절반의 재산도 써야 할 상황이 올 것임을 예견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상대방들은 무척이나 안절부절못하는 기색이었다. 이는 내기 금액이 커서라기보다, 친구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으로 내기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계가 일곱 시를 알렸다. 포그 씨가 떠날 채비를 할 수 있도록, 일행은 게임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이아몬드가 트럼프입니다. 자, 신사 여러분, 게임을 계속하시지요."

제IV장

필리어스 포그가 하인 파스파르투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

휘스트 게임에서 20기니를 따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필리어스 포그는 7시 25분에 리폼 클럽을 떠났다.

자신의 업무 일정을 성실히 숙지해 온 파스파르투는 주인이 이토록 이례적인 시간에 나타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소 규칙대로라면 주인은 자정 정각이 되어야 세빌 로의 저택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포그는 침실로 향하며 외쳤다. “파스파르투!”

파스파르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불린 것이 아닐 터였다. 지금은 그가 나타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파스파르투!” 포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불렀다.

파스파르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번이나 불렀네."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스파르투가 시계를 보여 주며 대답했다.

"알고 있네. 자네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10분 뒤에 도버와 칼레로 떠날 것이네." 주인이 말했다.

파스파르투의 둥근 얼굴에 당혹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분명 그는 주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주인님, 집을 떠나신다고요?"

"그렇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세계 일주를 떠날 것이다."

파스파르투는 눈을 크게 뜨고 눈썹을 치켜올린 채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나머지,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세계 일주라고!" 그가 중얼거렸다.

"80일 안에 말이야." 포그 씨가 대답했다. "그러니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네."

"하지만 여행 가방은요?" 파스파르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여행 가방은 필요 없네. 카펫 가방 하나면 충분해. 내 셔츠 두 벌과 양말 세 켤레, 그리고 자네 것도 똑같이 챙기게. 옷은 가는 길에 사면 되니까. 내 맥킨토시와 여행용 망토, 그리고 튼튼한 신발 몇 켤레만 내려오게나. 비록 걷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야. 어서 서두르게!"

파스파르투는 대답하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을 나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나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는 기계적으로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80일 만에 세계 일주라고! 주인님이 미치신 걸까?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농담이란 말인가? 도버로 간다니, 그거 좋군! 칼레까지 간다니, 그것도 좋고! 어쨌든 프랑스를 떠난 지 5년이나 된 파스파르투로서는 고국 땅을 다시 밟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었다. 어쩌면 파리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파리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눈이 즐거운 일일 터였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를 그토록 신중히 옮기는 신사라면 분명 거기서 멈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토록 가정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이 멀리 떠나려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포그 씨는 떠날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의 겨드랑이 사이에는 빨간 표지의 『브래드쇼 대륙 철도 증기 운송 및 일반 안내서』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증기선과 철도의 도착 및 출발 시각이 적힌 시간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카펫 가방을 받아 들고는 가방을 열어, 어디를 가든 통용될 영란은행 지폐 뭉치를 넉넉히 집어넣었다.

"빠뜨린 건 없나?" 그가 물었다.

"빠뜨린 건 없습니다, 주인님."

"내 맥킨토시와 망토는?"

"여기 있습니다."

"좋아! 이 카펫 가방을 받게." 포그는 파스파르투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잘 챙겨야 하네. 이 안에 2만 파운드가 들어 있으니까."

파스파르투는 마치 그 2만 파운드가 금화로 들어 있어 가방이 무겁기라도 한 듯,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주인과 하인은 계단을 내려갔고, 건물 출입문은 이중으로 잠겼다. 세빌 로 끝자락에서 마차를 잡은 두 사람은 차링 크로스 역을 향해 빠르게 달렸다. 마차는 8시 20분에 철도역 앞에 멈춰 섰다. 파스파르투는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주인을 따라갔다. 포그는 마부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막 역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아이를 품에 안은 불쌍한 거지 여인이 다가왔다. 여인은 맨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너덜너덜한 깃털이 매달린 초라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해진 숄로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여인은 슬픈 목소리로 구걸을 시작했다.

포그 씨는 방금 휘스트 게임에서 딴 20기니를 꺼내 거지 여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착한 분.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군요." 그러고는 그대로 지나쳐 갔다.

파스파르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주인의 행동이 마음 여린 그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파리로 가는 1등석 승차권 두 장을 재빨리 구입한 뒤, 포그 씨는 열차를 향해 역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때 그는 리폼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다섯 명의 친구를 발견했다.

"자,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제 떠납니다. 제가 돌아오면 제 여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약속한 여정을 완수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포그 씨." 랄프가 정중하게 말했다. "명예를 중시하는 신사로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런던에는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잊지 않았겠지요?" 스튜어트가 물었다.

"80일 뒤인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신사 여러분."

필리어스 포그와 그의 하인은 8시 40분에 1등석 객차에 자리를 잡았다. 5분 뒤, 기차의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열차는 역을 천천히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밤은 어두웠고, 가늘고 꾸준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기 자리의 구석에 편안히 몸을 파묻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

다. 파스파르투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거액의 돈이 든 카펫 가방을 기계적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다.

열차가 시드넘을 향해 질주하던 바로 그 순간, 파스파르투가 갑자기 절망 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무슨 일인가?" 포그 씨가 물었다.

"아아! 너무 서두르느라, 저, 제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제 방의 가스 불을 끄는 걸 말입니다!"

"알겠네, 젊은이." 포그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가스 불은 계속 켜두게나. 비용은 자네가 부담하면 될 테니."

제V장

자산가들에게도 생소한 새로운 종류의 펀드가 증권 시장에 등장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신이 런던을 떠나면 웨스트 엔드 지역이 떠들썩해질 것이라고 정확히 예상했다. 내기에 관한 소식은 리폼 클럽으로 퍼져 나갔고, 회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되었다. 소식은 곧 클럽을 넘어 영국 전역의 신문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가 호언장담한 '세계 일주'를 두고 마치 또 다른 앨라배마호 배상 청구 사건이라도 다루듯 뜨겁게 토론하고, 논쟁하며, 설전을 벌였다. 어떤 이들은 필리어스 포그의 편을 들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반대했다. 현재의 교통수단으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가능할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타임스》, 《스탠더드》, 《모닝 포스트》, 《데일리 뉴스》를 비롯한 그 밖의 스무 곳에 달하는 유력 신문들은 포그 씨의 계획을 광기 어린 짓이라며 비웃었다. 오직 《데일리 텔레그래프》만이 머뭇거리며 그를 지지했을 뿐이다. 일반 대중은 그

를 미치광이로 여겼고, 제안자의 정신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기에 응해준 리폼 클럽 친구들을 비난했다.

지리학은 영국인들이 유독 애착을 갖는 주제 중 하나였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리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격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필리어스 포그의 모험을 다룬 지면은 모든 계층의 독자들이 열광하며 읽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몇몇 성급한 이들이 그의 편을 들기도 했다. 그러다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가 리폼 클럽에 있는 사진을 본떠 그의 초상화를 실으면서, 포그에 대한 지지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독자 중 몇몇은 심지어 "안 될 게 무엇인가? 세상에는 더 기이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며 감히 그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10월 7일, 왕립지리학회 회보에 긴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모든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히 어리석은 일인지를 입증해 보였다.

기사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모든 장애물이 여행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출발과 도착 시각의 기적적인 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그의 성공이 가능했다. 거리가 비교적 짧은 유럽에서는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도 전역을 사흘 만에, 미국 전역을 칠 일 만에 가로지르겠다는 계산을 세우면서도, 과연 불안함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는가? 기계 결함이나 열차 탈선, 충돌 사고, 악천후, 그리고 폭설로 인한 통행 차단까지, 이 모든 것이 필리어스 포그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

가? 겨울철에 증기선을 타고 여행한다면 바람과 안개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대형 증기선이라도 예정보다 이틀이나 사흘씩 늦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은가? 단 한 번의 지연만으로도 연결된 교통망은 치명적으로 끊어지고 만다. 만약 필리어스 포그가 단 한 시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는 다음 배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고, 그 순간 그의 도전은 돌이킬 수 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모든 신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면서, 무모한 여행자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였다.

영국이 내기의 나라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영국의 내기꾼들은 단순한 도박사보다 한 단계 높은 부류인데, 내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영국인의 기질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리폼 클럽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도 필리어스 포그를 두고 찬성 혹은 반대 측에 막대한 판돈을 걸었다. 사람들은 마치 그를 경주마라도 되는 양 내기 장부에 기록했다. 채권까지 발행되어 증권 시장에 등장했다. '필리어스 포그 채권'이 액면가나 할증가로 매물로 나왔고, 거래량도 엄청났다. 하지만 왕립지리학회 회보에 실린 기사가 나온 지 닷새가 지나자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필리어스 포그'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채권이 다섯 개씩 묶음으로 팔리더니, 그다음에는 열 개씩 묶음으로 나왔다. 그러다 마침내 스무 개, 쉰 개, 백 개 단위가 아니면 아무도 사려 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필리어스 포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알베마를 경뿐이었다. 의자에 몸을 묶인 채 지내야 하는 이 고귀한 귀족은, 10년이 걸린다 해도 직접 세계 일주를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이라도 기꺼이 내놓았을 사람이었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에게 5,000파운드를 걸었다. 누군가 이 모험이 무모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만약 그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처음으로 해내는 사람은 반드시 영국인이어야 하네."

포그를 지지하는 무리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모두가 그에게 반대하는 분위기였고, 내기 배당률은 150대 1, 200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러던 그가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포그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지자를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9시, 경찰청장이 집무실에 앉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전보가 그의 손에 전달되었다.

수에즈에서 런던으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경찰청장 로완: 은행 강도 필리어스 포그를 찾아냈다. 지체 말고 봄베이로 체포 영장을 보내라.

픽스 형사.

이 전보가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행 강도가 들어섰다. 리폼 클럽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걸려 있던 필리어스 포그의 사진은 낱낱이 조사되었다. 사진 속

이목구비는 경찰에 전달된 강도의 인상착의와 하나하나 일치했다. 사람들은 필리어스 포그의 기묘한 습관들을 떠올렸다. 그의 고립된 생활 방식과 갑작스러운 출국까지 말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가 내기를 핑계 삼아 세계 일주를 떠난 것이, 형사들의 눈을 피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게 되었다.

제VI장

픽스 형사가 매우 자연스러운 초조함을 드러내는 대목

필리어스 포그에 관한 이 전보가 발송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페닌슐라 앤 오리엔탈 회사의 소속 증기선 몽골리아호는 2,800톤급의 철제 선박으로, 500마력의 엔진을 갖추고 있었다. 이 배는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에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몽골리아호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브린디시와 봄베이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했다. 이 배는 회사가 보유한 가장 빠른 증기선 중 하나로, 브린디시에서 수에즈까지는 항상 시속 10노트 이상을 유지했으며, 수에즈에서 봄베이까지는 시속 9.5노트 이상의 속력을 냈다.

한때는 띄엄띄엄 집들이 흩어져 있던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레셉 씨의 사업 덕분에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된 이곳에서, 현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인 인파 사이로 두 남자가 부두를 오가며 거닐고 있었다. 한 명은 수에즈의 영국 영사였다. 영국 정부의 예언이나 스티븐슨의 부정적인 예측과는 달리, 그는 집무실 창가에서 거대한 운하를 따라 매일 오

가는 영국 선박들을 지켜보는 것이 일과였다. 이 운하 덕분에 희망봉을 돌아가던 영국에서 인도까지의 오래된 우회로는 최소 절반 이상 단축되었다. 다른 한 명은 체구가 작고 왜소한 인물로, 신경질적이면서도 지적인 얼굴에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그는 끊임없이 눈썹을 움찔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극도의 초조함을 드러내며 신경질적으로 부두를 왔다 갔다 했고, 단 한 순간도 가만히 서 있지 못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행 강도를 쫓아 영국에서 파견된 형사 중 한 명인 픽스였다. 수에즈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면밀히 감시하고, 수상해 보이거나 이틀 전 런던 경찰 본부로부터 받은 범인의 인상착의와 닮은 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픽스 형사는 성공의 대가로 주어질 엄청난 현상금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 열띤 조바심을 느끼며 증기선 몽골리아호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사님, 그러니까 이 증기선은 절대 제시간보다 늦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가 스무 번째나 되풀이하며 물었다.

"아니오, 픽스 씨." 영사가 대답했다. "이 배는 어제 포트사이드에서 신호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정도 항로라면 이만한 배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몽골리아호는 선사 규정에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일찍 도착해 왔으며, 속도 초과에 따른 포상금까지 받아 갈 정도입니다."

"이 배는 브린디시에서 곧장 오는 건가요?"

"브린디시에서 곧장 옵니다. 거기서 인도행 우편물을 싣고 토요일 오후 5시에 출발했지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픽스 씨. 배는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당신이 가진 인상착의만으로는 범인이 설령 몽골리아호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영사님, 그런 자들은 눈으로 알아보기보다 기운으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 자들을 감지하는 직감이 있어야 하죠. 그 직감이란 청각과 시각, 후각이 하나로 합쳐진 제6감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신사들을 한둘 잡아본 게 아닙니다. 만약 범인이 배에 타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죠. 절대로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픽스 씨. 워낙 대규모 강도 사건이었으니까요."

"엄청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영사님. 무려 5만 5천 파운드라니요! 이런 횡재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요즘 도둑놈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몇 실링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지다니 말입니다!"

"픽스 씨," 영사가 말했다. "그 기백이 마음에 드는군요.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인상착의를 좀 보십시오. 정직한 신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영사님," 픽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단한 강도들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놈들은 정직한 척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체포될 테니까요. 진짜 기술은 정직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은 가면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지요."

픽스 형사에게는 분명 자만심이 조금 섞여 있는 듯했다.

부두의 풍경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마치 증기선이 곧 도착하기라도 할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선원들과 상인, 선박 중개인, 짐꾼, 그리고 펠라(fellah)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였다. 날씨는 맑았으나 약간 쌀쌀했다. 창백한 햇살 아래 마을의 미나레트들이 집들 위로 솟아 있었다. 약 2,000야드 길이의 방파제가 정박지를 향해 길게 뻗어 있었다. 홍해 위로는 고대 갤리선 같은 기이한 형태를 간직한 어선과 연안 항해용 배들이 여럿 보였다.

픽스 형사는 분주한 인파 사이를 지나가며 습관대로 날카롭고 빠른 눈길을 던져 행인들을 샅샅이 살폈다.

이제 시각은 10시 30분이었다.

"증기선이 오지 않는군!" 항구의 시계가 울리자 그가 외쳤다.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겁니다." 동행인이 대답했다.

"수에즈에는 얼마나 머무를까요?"

"네 시간입니다. 석탄을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홍해 반대편 끝에 있는 아덴까지는 수에즈에서 1,310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니, 배는 석탄을 새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럼 그 배는 수에즈에서 곧장 봄베이로 가나요?"

"어디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갑니다."

"좋군!" 픽스 형사가 말했다. "강도가 배에 타고 있다면, 분명 수에즈에서 내릴 거야. 다른 경로를 통해 아시아에 있는 네덜란드나 프랑스 식민지로 도망치려는 속셈이겠지. 인도 땅은 영국의 영토니, 그곳에 머물러 봤자 한 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놈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사가 반론했다. "그놈이 유달리 영악한 놈이라면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 범죄자라면 런던만큼 몸을 숨기기 좋은 곳도 없으니까요."

영사의 말은 픽스 형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그사이 영사는 집무실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픽스 형사는 강도가 '몽골리아호'에 타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해졌다. 만약 강도가 정말로 신대륙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런던을 떠난 것이라면, 대서양 항로보다는 감시가 덜 까다롭고 눈을 피하기 쉬운 인도 경유 항로를 택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픽스 형사의 생각은 연이어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끊기고 말았다. '몽골리아호'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짐꾼

과 현지인들이 부두로 달려 내려갔고, 증기선을 맞이하기 위해 십여 척의 배가 해안에서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다. 곧 거대한 선체가 강 사이를 지나며 모습을 드러냈고, 배가 정박지에 닻을 내릴 무렵 시계는 11시를 가리켰다. 배에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일부 승객은 갑판에 남아 그림 같은 도시의 전경을 감상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작은 배에 나누어 타고 부두로 내려왔다.

픽스 형사는 자리를 잡고 앉아, 모습을 드러내는 승객들의 얼굴과 체격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폈다. 잠시 후, 승객 중 한 명이 끈질기게 몰려드는 짐꾼들을 거칠게 밀치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영국 영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중하게 물으며, 동시에 비자를 받고 싶은 여권을 내보였다. 픽스 형사는 본능적으로 여권을 받아 들었고, 재빨리 훑어보며 소지자의 인적 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움을 터뜨릴 뻔했다. 여권에 적힌 인적 사항이 스코틀랜드 야드로부터 전달받은 은행 강도의 인상착의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의 여권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닙니다, 제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영사를 직접 만나러 가야만 합니다."

"오, 꼭 그래야만 합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영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광장 모퉁이에 있습니다." 픽스 형사가 이백 걸음쯤 떨어진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인님을 모셔 오겠습니다. 하지만 방해받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승객은 픽스 형사에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증기선으로 돌아갔다.

제VII장

이는 여권이 탐정들에게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픽스 형사는 부두를 따라 걸어가 영사관 사무실로 빠르게 향했고, 곧바로 영사를 만날 수 있었다.

"영사님," 그가 서론도 없이 말했다. "내가 쫓는 범인이 '몽골리아호'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방금 여권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글쎄요, 픽스 씨," 영사가 대답했다. "그 악당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저로서도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면 말입니다. 강도는 도망치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여권에 확인 서명을 받을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영사님, 만약 그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영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여권에 비자를 받으려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이라는 건 정직한 사람만 번거롭게 만들 뿐, 악당들의 도주를 돕는 데 쓰일 뿐이니까요. 그가 분명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부디 여권에 비자는 찍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어째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권이 진짜라면 제가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런던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낼 때까지는 이 자를 이곳에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영사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이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픽스 형사가 부두에서 마주쳤던 하인이었다. 그의 주인인 다른 한 남자는 영사에게 여권에 비자를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을 내밀었다. 영사가 서류를 받아 주의 깊게 읽는 동안, 픽스 형사는 방 한구석에서 그 낯선 이를 눈으로 관찰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당신이 필리어스 포그 씨입니까?" 여권 내용을 다 읽은 영사가 물었다.

"그렇소."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의 하인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스파르투라는 이름의 프랑스인입니다."

"런던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봄베이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비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여권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사님의 비자를 통해 제가 수에즈를 거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사는 여권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한 뒤, 공식 직인을 찍었다. 포그 씨는 관례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는 차갑게 목례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하인도 그 뒤를 따랐다.

"어떻습니까?" 픽스 형사가 물었다.

"글쎄요, 보기에도 행동도 아주 정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사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사님, 이 무덤덤해 보이는 신사가 제가 전달받은 강도 인상착의와 이목구비 하나 하나까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상착의라는 게 원래—"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픽스 형사가 말을 가로챘다. "제 눈에는 하인 쪽이 주인보다 덜 미스터해 보입니다. 게다가 저자는 프랑스인이라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할 테니까요. 영사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를 찾아 나섰다.

그사이 포그 씨는 영사관을 나와 부두로 향했다. 그는 파스파르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뒤, 작은 배를 타고 '몽골리아호'로 가서 자신의 선실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힌 수첩을 꺼내 들었다.

"10월 2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런던 출발."

"10월 3일 목요일 오전 7시 20분, 파리 도착."

"목요일 오전 8시 40분, 파리 출발."

"10월 4일 금요일 오전 6시 35분, 몽세니스를 거쳐 토리노 도착."

"금요일 오전 7시 20분, 토리노 출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브린디시 도착."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몽골리아호' 출항."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에즈 도착."

"총 소요 시간 158시간 30분, 즉 6일 반."

이 날짜들은 여러 칸으로 나뉜 일정표에 기록되었다. 일정표에는 10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파리, 브린디시, 수에즈, 봄베이, 캘커타, 싱가포르, 홍콩,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리고 런던에 이르기까지 각 주요 지점에 예정된 도착일과 실제 도착일이 월, 일 단위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각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혹은 얼마나 지체되었는지를 적을 수 있는 칸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 체계적인 기록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기에, 포그는 자신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지 혹은 앞서가고 있는지를 언제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10월 9일 금요일, 그는 수에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며 아직 시간상 이득도 손해도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선실에 조용히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외국을 여행할 때 하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습성이 있는 영국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제VIII장

파스파르투가 어쩌면 조금 지나치게 입을 놀린 장

픽스 형사는 부두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주위를 둘러보는 파스파르투에게 곧 다시 다가갔다. 파스파르투는 마치 자신만은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자, 친구," 픽스 형사가 그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여권에 비자는 받았나?"

"아, 당신이었군요, 선생?" 파스파르투가 대답했다. "고맙지만, 네, 여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주변을 살피고 있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빠르게 이동해서 마치 꿈속을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여기가 수에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집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그럼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에서도 말입니다."

"아프리카라고요!" 파스파르투가 되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는 우리가 파리보다 더 멀리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파리에서 본 것이라고는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40분 사이, 북역과 리옹역 사이를 달리는 열차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본 풍경뿐이었다고요! 페르 라셰즈와 샹젤리제의 서커스를 한 번이라도 더 보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무척 서두르시는 모양이군요?"

"저는 급할 게 없습니다만, 주인님은 무척 서두르시는 중입니다. 그나저나 신발이랑 셔츠를 좀 사야겠습니다. 짐가방도 없이 카펫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급히 떠나왔거든요."

"원하시는 물건을 구하기에 아주 좋은 가게를 하나 소개해 드리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으로 친절하시군요."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파스파르투는 걷는 내내 쉬지 않고 재잘거렸다.

"무엇보다도," 그가 말했다. "배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이제 겨우 열두 시인걸요."

파스파르투가 커다란 회중시계를 꺼냈다. "12시라니요!" 그가 외쳤다. "아니, 아직 10시 8분 전입니다."

"시계가 느리군요."

"제 시계 말입니까? 이건 가문 대대로 내려온 물건입니다, 손님! 증조부님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일 년 내내 오차가 5분도 안 납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완벽한 정밀 시계입니다."

"사정이 그렇군요." 픽스 형사가 말했다. "런던 시간을 기준으로 맞추고 계셨나 보군요. 런던은 수에즈보다 두 시간이나 늦으니까요. 앞으로는 각 나라의 정오 시간에 맞춰 시계를 조정해야 할 겁니다."

"제 시계를 맞추라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움직임과 맞지 않게 되겠군요."

"그렇다면 태양 쪽이 손해겠군요, 선생님. 태양이 틀린 셈이 될 테니까요!"

마음씨 좋은 그 친구는 반항하듯 손짓을 하며 시계를 다시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픽스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런던을 아주 급히 떠나셨다는 말씀이군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포그 씨가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45분 뒤에 우리는 길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주인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언제나 앞만 보고 가십니다. 세계 일주를 하러 가시는 길이죠."

"세계 일주라고요?" 픽스 형사가 외쳤다.

"네, 그것도 80일 안에 말입니다! 내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겁니다."

"아! 포그 씨가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인가 보군요?"

"그럼요, 범상치 않은 분이지요."

"그분은 부자인가요?"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아주 빳빳한 신권 지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게다가 여정 중에 돈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몽골리아호'의 기관사에게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봄베이에 도착하게 해주면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으니까요."

"주인님을 모신 지는 오래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런던을 떠나던 바로 그날부터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이미 의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픽스 형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강도 사건 직후 런던을 서둘러 떠난 점, 포그 씨가 거액의 현금을 지니고 있다는 점, 먼 나라들에 도착하려는 그 열의, 그리고 괴짜 같고 무모한 내기를 핑계 삼았다는 점까지. 이 모든 사실이 픽스 형사의 가설을 뒷받침했다. 그는 불쌍한 파스파르투를 계속해서 캐물었다. 그 과정에서 파스파르투가 주인에 대해 정말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포그는 런던에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부유하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 재산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또한 그의 일처리와 습관은 신비롭고 속을 알 수 없었다. 픽스 형사는 필리어스 포그가 수에즈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봄베이까지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봄베이는 여기서 먼가요?" 파스파르투가 물었다.

"꽤 멀지. 배를 타고 열흘은 가야 하네."

"그럼 봄베이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인도라네."

"아시아에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이런 제기랄! 마침 말씀드리려던 게 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제 가스등 말입니다!"

"무슨 가스등 말입니까?"

"제 가스등 말입니다. 끄는 걸 깜빡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돈을 태우며 타고 있을 겁니다. 계산해 보니, 선생님, 24시간마다 2실링씩 손해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버는 돈보다 정확히 6펜스나 더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 우리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픽스 형사가 가스 화로 때문에 걱정하는 파스파르투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을까? 그럴 리 없다. 그는 듣고 있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획을 구상하는 중이었다. 파스파르투와 픽스 형사는 어느 가게에 도착했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에게 증기선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물건을 사도록 내버려 두고 서둘러 영사관으로 돌아갔다. 이제 확신을 얻은 픽스 형사는 완전히 평정심을 되찾은 상태였다.

"영사님," 픽스 형사가 말했다. "이제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한다는 괴짜 신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영악한 자로군요." 영사가 대답했다. "양국의 경찰을 따돌리고 런던으로 돌아갈 속셈인가 봅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요."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째서 그토록 입국 도장을 받아 수에즈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안달이었을까요?"

"왜냐고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는 파스파르투와 나누었던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요컨대," 영사가 말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이 남자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런던에 전보를 쳐서 체포 영장을 즉시 봄베이로 보내달라고 한 다음, '몽골리아호'에 올라타 인도까지 그 악당을 뒤쫓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면 영국 영토 위에서, 한 손에는 영장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짚으며 정중하게 체포하는 거지요."

픽스 형사는 냉정하고 태연한 태도로 말을 마친 뒤, 영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신국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앞서 보았던 대로 런던 경찰청에 전보를 보냈다. 15분 뒤, 픽스 형사는 작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몽골리아호'에 올라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풍당당한 증기선은 전속력으로 홍해의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다.

제IX장

홍해와 인도양이 필리어스 포그의 계획에 순조롭게 작용하는 장

수에즈와 아덴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310마일이며, 선사 규정에 따르면 증기선이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허용된 시간은 138시간이다. 몽골리아호는 기관사의 힘찬 노력 덕분에 속도가 매우 빨랐고,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기세였다. 브린디시에서 승선한 승객 대부분은 인도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떤 이들은 봄베이로, 어떤 이들은 인도반도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놓인 가장 빠른 경로인 봄베이를 경유하여 캘커타로 가고 있었다. 승객 중에는 다양한 계급의 관리와 군 장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후자의 경우 영국 정규군 소속이거나 세포이 부대를 지휘하는 이들이었는데, 중앙 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권한을 인수했을 때부터 이들은 높은 급여를 받아 왔다. 소위는 280파운드, 준장은 2,400파운드, 사단장은 4,000파운드를 받았다. 군인들과 여행 중인 부유한 영국 청년들, 그리고 사무장의 친절한 환대 덕분에 몽골리아호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8시의 야식 시간에는 선실 식탁마다 정갈한 음식이 차려졌고, 숙녀

들은 하루에 두 번씩 꼼꼼하게 옷차림을 바꾸었다. 바다가 잔잔할 때면 음악과 춤, 그리고 게임이 이어졌고, 시간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다.

하지만 홍해는 변덕이 심한 바다다. 대부분의 길고 좁은 만이 그렇듯, 이곳 역시 종종 거칠게 요동쳤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긴 선체를 가진 몽골리아호는 무섭게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면 숙녀들은 서둘러 선실 아래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피아노 소리도 멎었으며, 노래와 춤도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훌륭한 이 배는 바람이나 파도에 굴하지 않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필리어스 포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아마도 초조한 마음에 바람의 변화나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즉, 몽골리아호의 속도를 늦추어 자신의 여정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러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리폼 클럽의 변함없이 냉정한 회원다웠다. 어떤 사건에도 놀라는 법이 없었고, 배의 정밀한 크로노미터만큼이나 한결같았다. 갑판에 나가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조차 거의 없는 그는, 홍해의 기억할 만한 풍경들을 차갑도록 무심하게 지나쳤다. 해안선을 따라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윤곽을 드러낸 역사적인 도시와 마을들을 보고도 그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고대 역사가들이 늘 공포에 질려 이야

기했고, 옛 항해사들이 신들에게 막대한 제물을 바쳐 달래지 않고서는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던 아라비아만의 위험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 괴짜 같은 인물은 몽골리아호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그는 배가 아무리 거칠게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요동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네 번의 든든한 식사를 챙겨 먹었다. 그리고 휘스트 게임에도 지칠 줄 모르고 몰두했는데, 자신만큼이나 게임에 열정적인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고아의 부임지로 가는 세무 공무원, 봄베이의 교구로 돌아가는 데시무스 스미스 목사,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자신의 여단과 합류하려는 영국군 준장이 그 일행이었다. 이들은 포그와 함께 몇 시간이고 몰입한 채 침묵 속에서 휘스트 게임을 즐겼다.

파스파르투 역시 멀미를 하지 않았으며, 앞쪽 선실에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다. 그는 이번 항해를 꽤 즐겼다.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잠자리도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쳐 가는 풍경들에도 큰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주인님의 변덕이 봄베이에서 끝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수에즈를 떠난 다음 날, 그는 갑판에서 수에즈 부두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친절한 인물을 다시 만나 기분이 좋았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는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에즈에서 친절하게 길 안내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그 신사분이시지요?"

"아! 당신을 단번에 알아보겠군요. 당신은 그 기이한 영국인의 하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픽스입니다."

"픽스 씨," 파스파르투가 말을 이었다. "이 배에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당신처럼 저도 봄베이로 갑니다."

"정말 잘됐군요! 전에도 이런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페닌슐라 회사의 대리인 중 한 명이니까요."

"그렇다면 인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군요?"

"물론입니다." 픽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인도라는 곳은 참으로 기묘한 곳이지요?"

"오, 아주 기묘한 곳이지요. 모스크와 미나레트, 사원과 파키르, 파고다에 호랑이와 뱀, 그리고 코끼리까지! 명승지를 구경할 시간은 아주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픽스 씨. 보시다시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며 증기선에서 기차

로, 다시 기차에서 증기선으로 갈아타는 데 평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요, 이런 번거로운 움직임은 봄베이에서 모두 끝날 것이라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포그 씨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픽스 형사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아주 잘 지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굶주린 괴물처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바다 공기 덕분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은 갑판에서 좀처럼 뵙기가 어렵더군요."

"전혀요. 주인님은 호기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으시거든요."

"파스파르투 씨, 혹시 알고 있습니까? 80일 만에 세계를 일주한다는 이 가짜 여행 뒤에 어떤 비밀스러운 임무, 이를테면 외교적 사명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픽스 씨. 장담컨대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걸 알아내자고 반 크라운조차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만남 이후, 파스파르투와 픽스 형사는 함께 담소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픽스 형사는 이 신사적인 사람의 신뢰를 얻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증기선 바(bar)에서 파스파르투에게 위스키나 페일 에일을 자주 권했고, 파스파르투는 매번 아주 기쁘고 정중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픽스 형사를 참으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사이 몽골리아호는 빠르게 전진했다. 13일에는 대추야자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는 폐허가 된 성벽에 둘러싸인 모카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너머 산지에는 광활한 커피밭이 펼쳐져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이 유명한 장소를 보고 넋을 잃었다. 그는 원형 성벽과 허물어진 요새를 보며, 마치 거대한 커피잔과 받침대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밤, 배는 아랍어로 '눈물의 다리'라는 뜻을 가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다. 그리고 이튿날, 석탄을 보충하기 위해 아덴 항구 북서쪽에 있는 스티머 포인트에 정박했다. 석탄 광산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증기선의 연료를 조달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페닌슐라 회사는 이 비용으로 연간 약 80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 먼 바다에서 석탄 가격은 1톤당 3, 4파운드에 달했다.

몽골리아호가 봄베이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1,650마일의 항해가 더 남아 있었고, 석탄을 보충하기 위해 스티머 포인트에서 4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러한 지연은 필리어스 포그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몽골리아호는 예정대로라면 15일 아침에 아덴에 도착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14일 저녁에 도착함으로써 15시간을 단축했다.

포그 씨와 그의 하인은 여권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아덴에 상륙했다. 픽스 형사는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쫓았다. 여권 확인을 마친 포그 씨는 다시 배로 돌아가 평소의 습관대로 일상을 이어갔다. 그사이 파스파르투는 아덴의 2만 5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 즉 소말리인, 바니안, 파르시, 유대인, 아랍인, 그리고 유럽인들이 뒤섞인 거리 사이를 평소처럼 한가로이 거닐었다. 그는 이 도시를 인도양의 지브롤터로 만

들어 주는 요새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솔로몬 왕 시대의 기술자들이 일한 지 2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작업 중인 거대한 저수지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참으로 신기하군, 정말 신기해." 증기선으로 돌아오며 파스파르투가 혼잣말을 내뱉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 오후 6시가 되자 몽골리아호는 천천히 정박지를 벗어나 다시 인도양으로 나아갔다. 봄베이에 도착하기까지는 168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북서풍이 불어 모든 돛이 엔진을 도와주는 덕분에 바다의 상태도 양호했다. 배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새로 옷을 갈아입은 숙녀들이 갑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노래와 춤도 재개되었다. 항해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파스파르투는 우연히 만난 즐거운 동행자, 즉 매력적인 픽스 형사에게 푹 빠져 있었다. 10월 20일 일요일 정오 무렵, 그들은 인도 해안을 발견했다. 두 시간 뒤에는 도선사가 배에 올랐다. 지평선 너머 하늘을 배경으로 산맥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곧 봄베이를 수놓는 야자수 군락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증기선은 만의 섬들이 만들어낸 수로를 따라 들어갔고, 4시 반에 봄베이 부두에 닻을 내렸다.

필리어스 포그는 이번 항해에서 서른세 번째 러버 게임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그와 게임 상대는 과감한 수로 열세 번의 트릭을 모두 잡아냈고, 이 멋진 승부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게임을 끝냈다.

몽골리아호는 22일에 봄베이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20일에 도착했다. 이로써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을 떠난 이후 이틀의 시간을 벌게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여정표의 단축된 시간 항목에 차분히 기록했다.

제X장

파스파르투는 신발을 잃어버리는 정도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인도라고 불리는 거대한 역삼각형 모양의 땅은 북쪽을 밑변으로, 남쪽을 꼭짓점으로 한다. 이 광활한 영토는 140만 제곱마일에 달하며, 그 위에는 1억 8천만 명의 인구가 불균등하게 퍼져 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영국 왕실은 이 거대한 영토의 대부분을 실질적이고도 전제적인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다. 캘커타에는 총독을, 마드라스와 봄베이, 그리고 벵골에는 각 총독을 배치했으며, 아그라에는 부총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국령 인도는 70만 제곱마일에 불과하며, 인구 또한 1억 명에서 1억 1천만 명 사이이다. 인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영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있다. 내륙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나운 라자들이 존재한다. 유명한 동인도 회사는 영국인이 지금의 마드라스 시가 세워진 곳에 처음 발을 들인 1756년부터, 대규

모 세포이 항쟁이 일어난 시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동인도 회사는 현지 추장들에게 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들로부터 주를 하나씩 사들여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총독과 그 휘하의 문관 및 무관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제 동인도 회사는 사라졌으며, 인도의 영국령 영토는 영국 왕실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나라의 모습은 인종 간의 관습과 차이만큼이나 매일같이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도에서 이동하려면 도보나 말을 이용하거나, 가마 혹은 다루기 힘든 마차를 타는 식의 번거롭고 구식인 방법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에 빠른 증기선이 오가고, 거대한 철도망이 반도를 가로지른다. 이 철도는 노선 곳곳에서 지선들이 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 단 사흘 만에 주파한다. 다만 이 철도가 인도를 가로질러 직선으로 달리는 것은 아니다. 봄베이와 캘커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1,000마일에서 1,100마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철도가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달리는 탓에 실제 거리는 이보다 3분의 1 이상 더 늘어난다.

인도 대반도 철도의 일반적인 노선은 다음과 같다. 봄베이를 출발한 철도는 살세트를 지나 타나 맞은편 대륙으로 건너간다. 이어 서고츠 산맥을 넘은 뒤 북동쪽으로 달려 부르함푸르까지 이어진다. 그곳에서 거의 독립 상태인 분델칸드 영토의 가장자리를 따라 돌며 알라하바드로 올라간다.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베나레스에서 갠지스강과 만나고, 이후 강에서 조금 벗어나 버디반과 프랑스령 도시 찬데르나고르를 거쳐 남동쪽으로 내려간다. 이 노선의 종착지는 캘커타이다.

'몽골리아호'의 승객들은 오후 4시 30분에 상륙했다. 기차는 정확히 8시에 캘커타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다.

포그 씨는 휘스트 게임을 함께하던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증기선에서 내렸다. 그는 하인 파스파르투에게 몇 가지 심부름을 맡기며, 반드시 8시 정각에 역에 도착해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고는 천문시계처럼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춘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여권 사무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봄베이의 명소들, 즉 유명한 시청과 화려한 도서관, 요새와 부두, 시장과 모스크, 유대교 회당,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두 개의 다각형 탑이 솟은 말라바르 언덕의 웅장한 파고다 같은 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엘레판타 섬의 걸작들이나, 부두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지하 묘지, 혹은 살세트섬의 칸헤리 동굴이라 불리는 불교 건축의 아름다운 유적들조차 살펴볼 마음이 전혀 없었다.

여권 사무소에서 볼일을 마친 필리어스 포그는 조용히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이 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현지 토끼'의 내장 요리를 그에게 특별히 추천했다.

포그 씨는 그 요리를 맛보았다. 하지만 향신료를 넣은 소스를 곁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맛은 전혀 입에 맞지 않았다. 그는 종을 울려 식당 주인을 불렀다. 주인이 나타나자 포그 씨는 맑은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이게 토끼 요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으리." 그 악당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정글에서 잡은 토끼입니다."

"그럼 이 토끼는 죽을 때 '야옹' 하고 울지 않던가요?"

"야옹이라니요, 나으리! 토끼가 어떻게 야옹 하고 운단 말입니까! 맹세코 제가—"

"주인장, 맹세까지 할 것은 없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두게나. 예전 인도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네. 참으로 좋았던 시절이었지."

"고양이에게 좋았던 시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으리?"

"어쩌면 여행자들에게도 좋은 시절이었겠지!"

그 후 포그 씨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포그 씨가 떠난 직후 픽스 형사도 상륙했다. 그의 첫 목적지는 봄베이 경찰 본부였다. 그는 자신이 런던에서 온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뒤, 봄베이에서 맡은 업무와 도둑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관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고는 런던에서 체포 영장이 도착했는지 초조하게 물었다. 하지만 영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사실 영장이 도착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아직 이르렀다. 픽스 형사는 크게 실망했다. 그는 봄베이 경찰 국장에게 체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보았다. 그러나 국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 사건은 런던 본부의 소관이며,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권한도 오직 그곳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픽스 형사는 더 고집 피우지 않고 중요한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상황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포그가 봄베이에 머무는 동

안만큼은 그 정체 모를 악당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파스파르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필리어스 포그가 적어도 영장이 도착할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몽골리아호'를 떠나라는 주인의 명령을 듣자마자 곧바로 깨달았다. 수에즈와 파리를 거쳐 온 것처럼 이번에도 봄베이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정은 적어도 캘커타까지,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곳까지 이어질 터였다. 그는 포그 씨가 말한 그 내기가 정말로 진지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사랑하는 자신을, 운명이 정말로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평소처럼 셔츠와 신발을 넉넉히 구입한 파스파르투는 여유롭게 거리를 산책했다. 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유럽인들부터 뾰족한 모자를 쓴 페르시아인, 둥근 터번을 두른 바냐인, 네모난 보닛을 쓴 신드인, 검은 미트라를 쓴 파르시인, 그리고 긴 예복을 입은 아르메니아인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마침 그날은 파르시의 축제일이었다. 조로아스터교를 따르는 이들의 후손인 파르시인은 봄베이에서 가장 부유한 현지 상인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검소하고 문명화되었으며 지적이고 엄격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행렬과 공연이 어우러진 일종의 종교적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축제 한가운데서는 분홍빛 거즈 옷을 입고 금색과 은색 장식을 두른 인도의 무용수들이 바이올린 소리와 탬버린의 챙그랑거리는 울림에 맞춰, 경쾌하면서도 아주 정숙하게 춤을 추었다. 파스파르투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이 기이한 의식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어수룩한 바보 그 자체였다.

주인에게도, 그리고 파스파르투 자신에게도 불행하게도,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도했던 곳보다 훨씬 더 멀리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마침내 멀어져 가는 파르시의 축제 행렬을 뒤로하고 역을 향해 발길을 돌리던 그때, 그는 말라바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화려한 파고다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고 싶다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기독교인이 인도의 특정 사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도, 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문밖에 신발을 벗어두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현지 종교의 관습을 무시할 경우 영국 정부의 현명한 정책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순한 관광객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펼쳐진 브라만 양식의 화려한 장식에 넋을 잃고 감탄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는 신성한 바닥 돌 위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분노에 찬 세 명의 사제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제들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파스파르투의 신발을 벗겨내더니, 거칠고 사나운 고함을 지르며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몸놀림이 민첩한 프랑스인은 곧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먹과 강력한 발길질을 휘둘러 긴 예복을 입은 적들 중 두 명을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다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파고다 밖으로 달려 나갔고, 거리의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겨 세 번째 사제의 추격을 따돌렸다.

8시 5분 전, 파스파르투는 모자도 없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난투극 중에 셔츠와 신발이 든 꾸러미마저 잃어버린 상태로 숨을 헐떡이며 역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포그 씨를 따라 역까지 온 픽스 형사는 그가 정말로 봄베이를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승강장에 머물렀다. 그는 이 도둑으로 의심되는 자를 캘커타까지, 필요하다면 그 너머까지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파스파르투는 어두운 구석에 서 있는 형사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가 자신이 겪은 모험담을 포그 씨에게 짧게 늘어놓는 것을 들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네."

기차에 올라타며 필리어스 포그가 차갑게 말했다. 가여운 파스파르투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아무 말 없이 주인을 따라갔다. 픽스 형사가 다른 객차에 올라타려던 찰나,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그 생각에 따라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아니, 그냥 여기 있겠어." 그가 중얼거렸다. "인도 땅에서 범죄가 일어났으니, 이제 내가 쫓던 자를 손에 넣은 셈이군."

바로 그때 기관차가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고, 열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제XI장

필리어스 포그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기묘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

기차는 정시에 출발했다. 승객 중에는 다수의 장교와 정부 관리, 그리고 동쪽 해안으로 사업차 이동하는 아편과 인디고 상인들이 섞여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주인과 같은 객차에 탔고, 그들 맞은편 좌석에는 세 번째 승객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었다. 그는 과거 '몽골리아'호에서 포그와 함께 휘스트 게임을 했던 파트너 중 한 명으로, 현재 자신의 부대가 있는 바라나시로 향하는 길이었다. 프랜시스 경은 키가 크고 피부가 밝은 50대의 남성으로, 지난 세포이 항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는 영국에는 아주 가끔 짧게 들를 뿐, 인도를 집처럼 여기며 살았다. 덕분에 인도의 관습과 역사,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현지인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중인 필리어스 포그는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마치 합리적인 역학 법칙에 따라 지구 궤도를 도는 하나의 견고한 물체와도 같

았다. 포그는 지금 런던을 떠난 후 몇 시간이 흘렀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그에게 쓸데없는 과시를 즐기는 성미가 있었다면, 아마 만족스러운 듯 두 손을 맞부딪치며 기뻐했을 것이다.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동행한 이의 기이함을 눈여겨보았다. 비록 그를 관찰할 기회라고는 카드 게임을 할 때나 두 판 사이의 휴식 시간뿐이었지만 말이다. 그는 저 차가운 겉모습 아래에 정말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리고 필리어스 포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준장인 그는 자신이 만난 모든 괴짜 중에서도, 이 정밀 과학의 결정체 같은 인물에 비견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계획과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프랜시스 경에게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준장은 이 내기를 그저 쓸데없는 기행이자 상식의 결여로만 여겼다. 이 기이한 신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그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봄베이를 떠난 지 한 시간 후, 기차는 육교와 살세트섬을 지나 탁 트인 평원으로 들어섰다. 칼리안에 이르자 기차는 칸달라와 푸나를 거쳐 인도 남동부로 내려가는 지선과 합류했다. 파월을 지나자 기차는 현무암으로 된 기저부와 울창하고 푸른 숲이 정상에 드리워진 험준한 산악 협곡으로 진입했다.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때때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프랜시스 경이 다시 대화를 이어가며 말했다. “포그 씨,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점에서 지체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내기에서 지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프랜시스 경?"

"그 이유는 철도가 이 산맥의 기저부에서 끊겼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칸달라 건너편까지 가기 위해 가마를 타거나 조랑말을 타고 이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만 했지요."

"그런 지체 정도로는 제 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그가 말했다.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날지는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그 씨," 프랜시스 경이 말을 이었다. "그 가련한 친구가 파고다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여행용 담요로 발을 편안하게 감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몰랐다. "정부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인도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요. 만약 당신의 하인이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알겠습니다, 프랜시스 경." 포그가 대답했다. "만약 그가 붙잡혔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뒤, 조용히 유럽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주인인 저의 여정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대화는 다시 끊겼다. 밤사이 기차는 산맥을 뒤로하고 나시크를 지나갔다. 다음 날 기차는 칸데시의 평탄하고 경작이 잘 된 지역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마을들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고, 마을 위로는 파고

다의 첨탑들이 솟아 있었다. 이 비옥한 영토에는 수많은 작은 강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대부분은 고다바리 강의 지류들이다.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본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정말로 기차를 타고 인도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영국인 기관사가 운전하고 영국산 석탄을 연료로 쓰는 기관차는 면화와 커피, 육두구, 정향, 후추 농장 위로 연기를 내뿜었다. 증기는 야자수 무리를 따라 나선형으로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그림 같은 방갈로와 비하리(버려진 수도원 같은 곳), 그리고 인도 건축 양식 특유의 끝없는 장식미가 돋보이는 경이로운 사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나타났다. 그곳의 정글에는 뱀과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짐승들은 기차 소리에 놀라 달아났다. 기차 선로가 파고든 숲에는 여전히 코끼리들이 살고 있었으며, 코끼리들은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기차를 바라보았다.

여행객들은 밀리가움을 지나, 칼리 여신의 신도들이 흘린 피로 자주 물들었던 비극적인 지역을 통과했다. 멀지 않은 곳에 우아한 파고다를 품은 엘로라가 솟아 있었고, 사나운 아우랑제브의 수도였던 유명한 아우랑가바드가 나타났다. 아우랑가바드는 현재 니잠 왕국에서 분리된 속주들 가운데 한 곳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터그(Thuggee)의 우두머리이자 목을 조르는 자들의 왕인 페링헤아가 세력을 떨치던 곳도 바로 이 근처였다. 비밀스러운 결속으로 뭉친 이 불량배들은 죽음의 여신을 기리기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희생자들을 목 졸라 죽였다. 한때 이 지역은 도처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살인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터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끔찍한 의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열두 시 반에 기차는 부람푸어에 멈춰 섰다. 파스파르투는 그곳에서 인조 진주로 장식된 인도식 슬리퍼를 한 켤레 샀다. 그는 아주 으스대며 그 신발에 발을 밀어 넣었다. 여행객들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아수르구르를 향해 출발했다. 기차는 수라트 근처의 캠베이만으로 흘러드는 작은 강, 탭티 강의 기슭을 잠시 따라갔다.

파스파르투는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봄베이에 도착하면 여정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왔으나, 이제 기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을 보니 꿈꾸던 기분이 돌연 바뀌었다. 예전의 방랑벽이 다시 살아났고, 젊은 시절의 환상적인 공상들이 다시금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주인의 계획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기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자, 세계 일주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실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벌써부터 여정 중에 일어날지도 모를 지연이나 사고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이 내기에 개인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전날 밤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혹여 내기를 망치게 될까 봐 몸서리쳤다. 포그 씨에 비해 침착함이 훨씬 부족했던 그는 훨씬 더 안절부절못했다. 지나간 날들을 몇 번이고 되뇌며 세어보았고, 기차가 멈춰 설 때마다 저주를 퍼부으며 기차가 너무 느리다고 타박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포그 씨가 기관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은 것을 탓하기까지 했다. 이 선량한 사내는 그런 수단으로 증기선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철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녁 무렵, 기차는 칸데시와 분델칸드를 가르는 숫푸르 산맥의 협곡으로 들어섰다. 다음 날,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이 파스파르투에게 지금이 몇 시냐고 물었다. 파스파르투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새벽 세 시라고 대답했다. 항상 그리니치 자오선에 맞춰져 있는 이 유명한 시계는, 현재 서쪽으로 약 77도나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적어도 네 시간은 느린 상태였다. 프랜시스 경이 파스파르투의 시간을 바로잡아 주자,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내뱉었다. 프랜시스 경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즉 태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경도를 하나 지날 때마다 하루가 4분씩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새로운 경도에 들어설 때마다 시계를 새로 맞춰야 한다고 모두가 권했지만, 파스파르투는 런던 시간을 유지하겠다며 고집스럽게 시계를 고치기를 거부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순진한 착각이었다.

기차는 8시 정각에 로탈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숲속 빈터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몇 채의 방갈로와 인부용 오두막들이 있었다. 차장도 객차 사이를 지나가며 소리쳤다. “승객 여러분, 여기서 내리십시오!”

필리어스 포그는 설명을 듣고자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장군은 대추야자와 아카시아 나무가 숲을 이룬 이 한복판에서 기차가 왜 멈춰 섰는지 알지 못했다.

파스파르투 역시 놀란 기색으로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곧바로 돌아오며 외쳤다. “주인님, 이제 철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프랜시스 경이 물었다.

“기차가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군은 즉시 밖으로 나갔고, 필리어스 포그는 침착하게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함께 차장에게 향했다.

“지금 어디쯤인가?” 프랜시스 경이 물었다.

“콜비 마을 근처라네.”

“여기서 멈추는 건가?”

“물론이지. 철도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고?”

“아니. 여기서 알라하바드까지는 아직 50마일가량의 선로를 더 깔아야 하네. 그곳부터 다시 철길이 시작되거든.”

“하지만 신문에서는 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장교님? 신문이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봄베이에서 캘커타까지 가는 승차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진 프랜시스 경이 반박하며 말했다.

"그렇긴 합니다." 차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승객들도 알고 있습니다. 콜비에서 알라하바드까지는 각자 알아서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랜시스 경은 몹시 화가 났다. 파스파르투는 당장이라도 차장을 때려눕히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주인인 포그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프랜시스 경," 포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알라하바드까지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포그 씨, 이런 지연은 당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프랜시스 경.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뭐라고요! 길이 그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정 중에 조만간 어떤 장애물이라도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이미 확보해 둔 이틀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요. 25일 정오에 캘커타를 떠나 홍콩으로 향하는 증기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22일이니, 우리는 제시간에 캘커타에 도착할 겁니다."

그토록 확신에 찬 대답에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었다.

철도가 이 지점에서 끊긴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었다. 신문들은 마치 제멋대로 빨라지는 시계처럼, 철도 완공 소식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해 버린 셈이었다. 여행객 대부분은 이러한 여정의 중단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차에서 내려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탈것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바퀴 네 개 달린 팔키가리(palkighari)부터 제부(zebu)가 끄는 마차, 마치 움직이는 파고다처럼 생긴 마차, 가마와 조그만 말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으나,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

"나는 걸어서 가겠네."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주인에게 다시 합류한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화려하지만 너무나 약한 인도식 신발을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다행히 그 역시 주변을 살피던 중이었기에,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주인님, 이동할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코끼리입니다! 여기서 불과 백 걸음도 안 되는 곳에 사는 인도인이 소유한 코끼리 말입니다."

"코끼리를 보러 갑시다." 포그 씨가 대답했다.

그들은 곧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 근처에는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문제의 코끼리가 있었다. 인도인 한 명

이 오두막에서 나오더니, 그들의 요청에 따라 울타리 안으로 안내했다. 주인이 짐꾼이 아닌 전쟁용으로 길러낸 이 코끼리는 어느 정도 길들여진 상태였다. 주인은 이미 코끼리를 자주 자극하고 석 달마다 설탕과 버터를 먹이는 방식으로, 본래 성질에는 없는 사나움을 심어주고 있었다. 이는 전투용 인도 코끼리를 훈련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포그 씨에게는 운이 좋았다. 코끼리의 이런 훈련은 아직 초기 단계였기에, 녀석은 여전히 타고난 온순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키우니, 이것이 이 짐승의 이름이었다. 키우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오랫동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듯 보였고, 다른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자 포그 씨는 이 코끼리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인도에서 코끼리는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점점 귀해지는 추세였고, 서커스 공연에 적합한 수컷은 특히 수요가 많았다. 길들여진 수컷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그 씨가 인도인에게 키우니를 빌려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포그 씨는 굴하지 않고, 알라하바드까지 코끼리를 빌려주는 대가로 시간당 10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다. 거절당했다. 20파운드는? 이 또한 거절당했다. 40파운드는? 여전히 거절이었다. 파스파르투는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지만, 인도인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제안 자체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만약 알라하바드까지 가는 데 코끼리가 15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주인은 무려 600파운드라는 거금을 받게 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필리어스 포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예 코끼리를 통째로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음에는 코끼리 값으로 천 파운드를 불렀다. 인

도인은 아마도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여전히 거절했다.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포그 씨를 따로 불러내어, 더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자 포그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신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없으며, 지금 2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내기가 걸려 있고, 코끼리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만약 코끼리 값의 20배를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다시 인도인에게 돌아갔다. 탐욕으로 번뜩이는 인도인의 작고 날카로운 눈을 보니, 그에게 이 문제는 오직 얼마나 더 높은 가격을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임이 분명했다. 포그 씨는 먼저 1,200파운드를 제시했고, 이어 1,500파운드, 1,800파운드, 그리고 2,000파운드를 불렀다. 평소 얼굴이 아주 발그레하던 파스파르투는 긴장한 나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2,000파운드를 부르자 인도인은 마침내 굴복했다.

"세상에, 코끼리 한 마리에 대체 얼마를 쓴 겁니까!"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이제 남은 일은 안내인을 찾는 것뿐이었는데, 이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영리해 보이는 인상의 젊은 파르시인이 안내를 자처했고, 포그 씨는 그의 열의를 북돋울 만큼 넉넉한 보상을 약속하며 그를 고용했다. 코끼리가 끌려 나와 장비가 갖춰졌다. 숙련된 코끼리 조련사였던

파르시인은 코끼리의 등 위에 일종의 안장 덮개를 씌운 뒤, 양옆에 기묘하고도 불편해 보이는 하우다를 하나씩 매달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그 유명한 카펫 가방에서 지폐를 꺼내 인도인에게 지불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불쌍한 파스파르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어 포그는 크로마티 경을 알라하바드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여행객이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짐승이 더 힘들어할 것 같지는 않았기에, 경은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콜비에서 식량을 구입한 뒤, 크로마티 경과 포그 씨가 양옆의 하우다에 올라탔고, 파스파르투는 두 사람 사이의 안장 덮개 위에 올라탔다. 파르시인은 코끼리의 목 부분에 자리를 잡았다. 아홉 시가 되자 일행은 마을을 떠났고, 코끼리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야자수 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제XII장

필리어스 포그와 일행이 인도의 숲을 가로질러 모험을 떠나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

여정을 단축하기 위해 가이드는 아직 철로를 건설 중인 노선의 왼쪽으로 길을 잡았다. 빈디아 산맥의 굽이진 지형 탓에 이 노선은 직선으로 뻗어 있지 않았다. 이 지역의 길과 오솔길을 훤히 꿰뚫고 있던 파르시인은 숲을 가로질러 곧장 나아가면 20마일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은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한 하우다(howdah)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코끼리의 빠른 걸음에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숙련된 파르시인이 코끼리를 재촉하며 몰아붙인 탓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을 거의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모습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영국 신사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불편함을 견뎌냈다.

코끼리의 등에 올라탄 파스파르투는 짐승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냈다. 그는 주인인 포그의 조언에 따라, 자칫 혀가 짧게 잘려 나가지 않도록 이 사이에 혀를 두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다. 이 충직한 하인은 코끼리의 목 부분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튀어 올랐고, 마치 스프링보드를 밟은 광대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그럼에도 그는 몸이 튀어 오르는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파스파르투는 때때로 주머니에서 설탕 한 조각을 꺼내 키오니의 코에 넣어주었고, 키오니는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 설탕을 받아먹었다.

두 시간 뒤 가이드가 코끼리를 멈춰 세웠고,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주었다. 그동안 키오니는 근처 샘물에서 목을 축인 뒤, 주변의 나뭇가지와 관목들을 정신없이 먹어 치웠다.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도 포그도 여정이 지체된 것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안도하는 마음으로 코끼리에서 내려왔다. 키오니를 감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프랜시스 경이 외쳤다. "세상에, 이 녀석은 강철로 만들어졌나 보군요!"

“그것도 단조한 강철이죠.” 파스파르투가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대꾸했다.

정오가 되자 파르시인이 출발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매우 거칠고 황량했다. 울창한 숲이 지나간 자리에는 대추야자와 왜소한 야자수 숲이 나타났고, 그 뒤로는 드문드문 관목이 돋아난 광활하고 메마른 평원이 이어졌다. 평원 곳곳에는 거대한 사이아나이

트 암석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행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이 분델칸드 지역에는 힌두교의 가장 끔찍한 관습에 찌든 광신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이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 이곳은 접근조차 거의 불가능한 험준한 산악 요새에 은거하는 라자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객들은 사나운 인도인 무리를 여러 번 마주쳤다. 그들은 코끼리가 숲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화를 내며 위협적인 몸짓을 해 보였다. 파르시인은 가능한 한 그들을 피하며 나아갔다. 경로에서 동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원숭이들조차 몸을 뒤틀고 얼굴을 찡그리며 길을 비켜 가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파스파르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즐거움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충직한 하인의 마음을 괴롭혔다. 포그 씨가 알라하바드에 도착하면 코끼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코끼리를 데리고 계속 여행을 할 것인가? 그건 불가능했다. 코끼리를 운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코끼리를 팔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풀어줄 것인가? 이 훌륭한 짐승은 분명히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만약 포그 씨가 키오니를 파스파르투에게 선물로 주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는 무척이나 난처해질 터였다. 이런 생각들은 한동안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빈디아 산맥의 주된 산줄기를 모두 넘을 수 있었다. 일행은 북쪽 경사면에 있는 어느 폐허가 된 방갈로에서 다시 휴식을 취했다. 그날 이동한 거리는 거의 25마일에 달했으며, 알라하바드 역까지는 아직 같은 거리만큼의 여정이 남아 있었다.

밤은 차가웠다. 파르시인이 마른 나뭇가지 몇 개로 방갈로에 불을 지피자 기분 좋은 온기가 감돌았다. 콜비에서 산 식량은 저녁 식사로 충분했고, 여행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다. 처음에는 몇 마디 띄엄띄엄 나누던 대화도 곧 잦아들더니, 이내 크고 일정한 코골이 소리로 바뀌었다. 가이드는 커다란 나무 몸통에 몸을 기대고 서서 잠든 키오니를 지켜보았다. 밤사이 가끔 표범이 으르렁거리거나 원숭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긴 했으나, 잠든 이들을 방해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더 위협적인 맹수들은 방갈로에 머무는 이들을 향해 울부짖거나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프랜시스 경은 피로에 지친 정직한 군인처럼 깊이 잠들었다. 파스파르투는 어제의 요동치던 여정을 떠올리며 불안한 꿈을 꾸었다. 포그 씨는 마치 새빌 로에 있는 평온한 저택에 있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잤다.

여정은 아침 6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가이드는 저녁쯤에는 알라하바드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포그 씨는 여행을 시작한 이래 단축한 48시간 중 아주 일부만을 손해 보게 될 뿐이었다. 키오니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빈디아 산맥의 낮은 산기슭을 내려갔다. 정오 무렵, 일행은 갠지스강의 지류 중 하나인 카니강 강변에 자리한 칼렌저 마을을 지나쳤다. 가이드는 거대한 강 유역의 첫 번째 저지대를 따라 펼쳐진 탁 트인 평원을 지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사람이 사는 마을은 피해 갔다. 이제 알라하바드는 북동쪽으로 겨우 12마일 거리에 있었다. 일행은 바나나 나무 군락 아래에 멈춰 섰다. 빵만큼이나 영양가가 높고 크림처럼 부드러운 바나나 열매를 그들은 아주 맛있게, 그리고 넉넉히 나누어 먹었다.

오후 2시가 되자 가이드는 수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섰다. 그는 숲의 그늘을 따라 이동하는 편을 선호했다. 아직까지 불쾌한 조우는 없었기에 여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코끼리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멈춰 섰다.

그때는 오후 4시였다.

"무슨 일인가?" 프랜시스 경이 몸을 내밀며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나리."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들려오는 어수선한 웅성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파르시인이 대답했다.

웅성거림은 곧 더 또렷해졌다. 이제는 마치 멀리서 금관 악기 연주에 맞춰 들려오는 사람들의 합창 소리처럼 느껴졌다. 파스파르투는 눈과 귀를 한데 모아 온 신경을 집중했다. 포그 씨는 아무 말 없이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파르시인은 땅으로 뛰어내려 코끼리를 나무에 묶어두고는 빽빽한 덤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곧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브라만들의 행렬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가이드는 코끼리의 묶인 줄을 풀어 덤불 속으로 이끌며, 여행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제든 코끼리 등에 올라타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는 일행이 완전히 몸을 숨긴 이 빽빽한 잎사귀들 덕분에, 신실한 브라만들의

행렬이 그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듯했다.

목소리와 악기들이 내는 불협화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웅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탬버린과 심벌즈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곧 나무 사이로 행렬의 선두가 백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종교 의식을 치르는 기이한 형체들은 나뭇가지 사이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머리에 관을 쓰고 긴 레이스 예복을 입은 사제들이 나타났다. 그들 주변에는 남녀노소가 모여 슬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탬버린과 심벌즈 소리가 노래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들 뒤로는 커다란 바퀴가 달린 수레 한 대가 끌려오고 있었는데, 바퀴살은 서로 뒤엉킨 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네 마리의 제부(zebu)가 끄는 그 수레 위에는 흉측한 네 팔 달린 조각상이 서 있었다. 조각상의 몸은 탁한 붉은색이었고, 눈은 초췌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툭 튀어나온 혀와 베텔로 물든 입술도 눈에 띄었다. 조각상은 머리가 잘린 채 엎드려 있는 거인의 형상 위에 똑바로 서 있었다.

프랜시스 경은 그 조각상을 알아보고는 나직이 속삭였다. "칼리 여신이군. 사랑과 죽음의 여신 말이야."

"죽음의 여신일지는 몰라도," 파스파르투가 나직이 대꾸했다. "사랑의 여신이라니요? 저렇게 흉측하고 늙은 마녀가 말입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파르시인이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했다.

늙은 파키르 무리가 조각상 주위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황토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는데, 몸 곳곳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한 방울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인도의 거대한 의식 속에서 여전히 자거너트의 바퀴 아래로 몸을 던지는 어리석은 광신도들이었다. 그 뒤를 이어 동양 의복의 화려함을 온몸에 두른 브라만들이 한 여인을 이끌고 나타났다. 여인은 걸음마다 비틀거렸다. 이 여인은 젊었으며, 피부는 유럽인만큼이나 희고 고왔다. 머리와 목, 어깨, 귀, 팔, 손, 그리고 발가락까지 보석과 원석으로 장식된 팔찌와 귀걸이, 반지가 가득했다. 금색 테두리를 두른 튜닉 위로 가벼운 머슬린 로브를 걸치고 있었으나, 옷 너머로 여인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젊은 여인을 뒤따르는 호위병들은 그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허리에 날카로운 사브르를 차고 긴 다마스쿠스식 권총을 지닌 채, 가마에 시신을 싣고 행진하고 있었다. 가마에 누운 이는 라자(rajah)의 복장을 화려하게 갖춰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살아생전과 마찬가지로 진주를 수놓은 터번을 쓰고, 실크와 금사로 짠 비단 옷을 입었으며,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캐시미어 스카프와 힌두 왕자다운 장엄한 무기들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그 뒤로 악사들이 뒤따랐고, 행렬의 맨 뒤에는 광란의 춤을 추는 파키르 무리가 후방을 지켰다. 이들의 외침은 때때로 악기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했다.

프랜시스 경은 슬픈 표정으로 그 행렬을 지켜보다가, 가이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사티(suttee) 의식이로군.”

파르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행렬은 나무 사이를 지나 천천히 굽이쳐 나갔고, 머지않아 행렬의 맨 뒷줄까지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노래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이따금 멀리서 외침이 들려오기도 했으나, 마침내 다시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필리어스 포그는 프랜시스 경이 한 말을 들었다. 행렬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물었다. "사티가 무엇입니까?"

"사티란," 장군이 대답했다. "인신공양의 일종이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네. 방금 자네가 본 여인은 내일 동이 틀 무렵에 화형을 당할 것이네."

"오, 이 악당들 같으니!" 파스파르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그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포그 씨가 물었다.

"그분은 그녀의 남편인 왕자님입니다." 가이드가 말했다. "분델칸드의 독립적인 라자이시지요."

"인도에 아직도 이런 야만적인 관습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필리어스 포그가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큼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영국인들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이런 희생 제사는 인도의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프랜시스 경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만적인 영토들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특히 이곳 분델칸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빈디아 산

맥 북쪽의 전 지역은 끊임없는 살인과 약탈이 벌어지는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가엾은 사람 같으니!"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산 채로 불타 죽다니!"

"그렇습니다." 프랜시스 경이 말을 이었다. "산 채로 불타 죽는 것이지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여인이 친척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할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친척들은 여인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쥐꼬리만 한 쌀밥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며, 멸시하며 대할 것입니다. 여인은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마치 병든 개처럼 어느 구석진 곳에서 죽어갈 테지요. 이토록 끔찍한 삶을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사랑이나 종교적 광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가엾은 이들을 희생 제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희생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봄베이에 살 때, 한 젊은 과부가 남편의 시신과 함께 화장하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총독은 거절했지요. 결국 그 여인은 마을을 떠나 독립적인 라자에게 몸을 의탁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결심한 목적을 완수했습니다."

프랜시스 경이 말을 이어가는 동안, 가이드는 고개를 몇 번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일 새벽에 치러질 희생 제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분델칸드에서는 누구나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은 여인은 전혀 저항하려는 기색이 없더군요." 프랜시스 경이 말했다.

"그건 사람들이 대마와 아편 연기로 그 여인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여기서 2마일 떨어진 필라지의 파고다로 데려갈 겁니다. 여인은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겠지요."

"그럼 제물이 바쳐지는 건——"

"내일, 동이 트자마자 시작될 겁니다."

가이드는 코끼리를 이끌고 덤불을 빠져나오더니 녀석의 목 위로 뛰어올랐다. 가이드가 특유의 휘파람을 불어 키오니를 재촉하려던 바로 그 순간, 포그 씨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러고는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여인을 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인을 구해야 합니다, 포그 씨!"

"아직 12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 일에 써도 무방합니다."

"세상에,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시군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지요." 필리어스 포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말입니다."

제XIII장

파스파르투, 용기 있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새로운 증거를 얻다

그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난관이 가득했고, 어쩌면 실행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했다. 포그 씨는 자신의 목숨을, 혹은 적어도 자유를 걸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여행의 성공마저 도박에 맡겨야 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또한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동맹군을 얻었다.

파스파르투는 어떤 제안이 내려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인님의 계획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겉모습 아래 숨겨진 뜨거운 마음과 영혼을 보았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제 가이드가 문제였다.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혹시 인도인들과 한패가 되어 움직이지는 않을까?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했다.

프랜시스 경은 그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졌다.

"나리님들," 가이드가 대답했다. "저는 파르시교도이고, 이 여인 또한 파르시교도입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훌륭하군요!" 포그 씨가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붙잡힌다면 목숨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점은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그 씨가 대답했다.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가 말했다.

그 후 인도의 신사다운 가이드는 희생될 여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 여인이 파르시교도 중에서도 이름난 미인이며, 봄베이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봄베이에서 철저히 영국식 교육을 받았기에, 몸가짐이나 지성만 보면 유럽인이라 생각될 정도였다. 그녀의 이름은 아우다였다.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그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델칸드의 늙은 라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다.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있던 아우다는 도망쳤으나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의 죽음으로 이득을 얻는 라자의 친척들은 아우다를 다시 붙잡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제물의 운명으로 몰아넣었다.

파르시교도의 이야기는 포그와 그의 일행이 세운 관대한 계획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일행은 가이드가 코끼리를 몰아 필라지 파고다로

향하기로 결정했고, 가이드는 그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파고다로 접근했다. 그로부터 30분 뒤, 일행은 파고다에서 약 500피트 떨어진 숲속에 멈춰 섰다. 그곳은 몸을 숨기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으나, 파고다 안에서 들려오는 파키르들의 신음과 비명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희생될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논의했다. 가이드는 젊은 여인이 갇혀 있다는 필라지 파고다의 지리에 밝았다. 인도인 무리 전체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이 파고다의 문 중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벽에 구멍을 뚫는 편이 더 안전할까? 이 문제는 현장에 도착해 직접 상황을 살펴봐야만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구출 작전은 반드시 오늘 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동이 틀 무렵 희생자가 장작더미로 끌려가고 나면, 그때는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이 찾아온 6시경, 일행은 파고다 주변을 미리 정찰해 보기로 했다. 파키르들의 비명은 막 잦아들고 있었다. 인도인들은 대마와 섞은 액체 아편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중이었으므로, 그들 사이를 몰래 빠져나가 사원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파르시교도 가이드가 앞장서서 일행을 이끌고 숲속을 소리 없이 헤쳐 나갔다. 10분쯤 지나자 그들은 작은 시냇가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송진 횃불의 불빛으로 장작더미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아내와 함께 불태워질 라자(rajah)의 방부 처리된 시신이 놓여 있었다.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나무 위로 미나렛이 어렴풋이 솟아 있는 파고다는 그들로부터 백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어서 갑시다!" 가이드가 속삭였다.

그는 동료들을 뒤에 이끌고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덤불 사이를 빠져나갔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나뭇가지 사이로 낮게 웅얼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곧 파르시교도 가이드는 횃불이 밝게 비추는 빈터의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땅 위에는 술에 취해 잠든 인도인들이 무리 지어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은 이들이 널브러진 전장 같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뒤섞여 누워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멀리 필라지 파고다가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가이드로서는 몹시 실망스럽게도, 라자(rajah)의 경비병들이 횃불을 밝힌 채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뽑아 든 사브르를 들고 이리저리 오가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아마도 사제들 역시 파고다 안쪽에서 경계를 서고 있을 것이었다.

파르시교도 가이드는 사원으로 강제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행을 다시 데리고 되돌아갔다.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크로마티 경 역시 그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겨우 8시일 뿐입니다." 준장이 말했다. "이 경비병들도 곧 잠들지 모르니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파르시교도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몸을 뉘인 채 기다렸다.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가이드는 숲 가장자리를 살피겠다며 이따금씩 일행을 떠나곤 했지만, 경비병들은 횃불의 번뜩이는 빛 아래에서 쉬지 않고 감시를 이어갔다. 파고다의 창문 사이로는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자정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경비병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들이 잠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결국 다른 계획을 실행해야만 했다. 파고다 벽에 구멍을 뚫어야 했다. 다만 제물을 지키는 사제들이 문 앞을 지키는 병사들만큼이나 철저하게 희생자 곁을 감시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나눈 뒤, 가이드는 이제 시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며 앞장섰고 나머지 일행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파고다 뒷면에 접근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일행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은 채 12시 반쯤 벽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경비병도 없었으며, 창문이나 문조차 달려 있지 않았다.

밤은 어두웠다. 그믐을 향해 가는 달은 지평선 근처에 겨우 걸려 있었고, 두터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려 있었다.

벽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벽에 구멍을 내야만 했으나, 일행에게는 주머니칼뿐이었다. 다행히 사원의 벽은 벽돌과 나무로

지어져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뚫을 수 있었다. 벽돌 한 장만 먼저 빼내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져 내릴 터였다.

일행은 소리 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파르시교도가, 다른 한쪽에서는 파스파르투가 벽돌을 하나씩 떼어내며 폭 두 피트 정도의 구멍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던 그때, 갑자기 사원 안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뒤이어 곧바로 밖에서도 그에 응답하는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파스파르투와 가이드가 동작을 멈췄다. 들킨 것일까? 경보가 울린 것일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물러나는 것이 옳았기에, 그들은 몸을 피했다.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경도 그 뒤를 따랐다. 일행은 다시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소란이 무엇이든 일단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즉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경비병들이 사원 뒷벽 쪽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기습을 막으려는 듯 그곳에 자리를 잡고 버티기 시작했다.

작업이 중단되자 일행이 느낀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 희생자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는데, 대체 어떻게 그녀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프랜시스 경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고, 파스파르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못했으며, 가이드는 분에 못 이겨 이를 갈았다. 반면, 늘 침착한 포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이제는 물러나는 수밖에 없네." 프랜시스 경이 속삭였다.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군요." 가이드도 그 말을 따라 했다.

"멈추게." 포그가 말했다. "나는 내일 정오 전까지만 알라하바드에 도착하면 되네."

"하지만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프랜시스 경이 물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을 텐데, 그러면—"

"지금은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네."

프랜시스 경은 필리어스 포그의 눈을 읽어내고 싶었다. 이 냉철한 영국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물이 바쳐지는 바로 그 순간, 젊은 여인에게 달려들어 처형자들로부터 그녀를 대담하게 낚아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포그가 그토록 무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프랜시스 경은 이 끔찍한 비극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가이드는 일행을 숲속 공터 뒤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일행은 잠든 무리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사이 나무 아래쪽 가지에 자리를 잡고 앉은 파스파르투는 한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번뜩이는 영감처럼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이, 이제는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는 먼저 혼잣말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금 "그래도 안 될 건 없잖아? 이건 기회야.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게다가 저렇게 곤드레만드레 취한 자들 틈이라면 더더

욱!"이라며 되뇌었다. 생각을 마친 파스파르투는 뱀처럼 유연한 움직임으로 가장 낮은 가지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그 가지의 끝은 땅에 닿을 듯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았으나, 희미한 빛이 감도는 것을 보니 곧 동이 틀 모양이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잠들었던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탬버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노래와 외침이 터져 나왔다. 제사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파고다의 문이 활짝 열리자 내부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 빛 사이로 포그 씨와 프랜시스 경은 희생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취기로 인한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 처형자로부터 도망치려 애쓰는 듯 보였다. 프랜시스 경은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경련하듯 포그 씨의 손을 꽉 움켜쥐었고, 그 손에 쥐어진 주머니칼을 찾아냈다. 바로 그 순간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여인은 대마 향에 취해 다시 혼미한 상태에 빠졌고, 광기 어린 종교적 외침을 내지르는 파키르들 사이로 옮겨졌다. 파키르들은 그녀를 호위하며 행렬을 이어갔다.

필리어스 포그와 일행은 군중의 뒤편에 섞여 행렬을 뒤따랐다. 2분쯤 지나자 그들은 시냇가에 다다랐고, 라자(rajah)의 시신이 여전히 놓여 있는 화장용 장작더미에서 50보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남편의 시신 곁에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희생자를 보았다. 그때 횃불이 다가왔고, 기름에 듬뿍 젖은 장작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그 순간, 필리어스 포그가 광기 어린 용기를 내어 장작더미로 돌진하려 하자 프랜시스 경과 가이드가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포그는 재빨리 그들을 밀쳐냈고, 그 직후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겁에 질린 군중 전체가 바닥에 엎드려 굴복했다.

그렇다면 늙은 라자는 죽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일어나 아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장작더미를 내려왔는데, 그 연기는 그의 유령 같은 모습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 뿐이었다.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힌 파키르와 병사들, 그리고 사제들은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감히 눈을 들어 이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지도 못했다.

생기를 잃은 희생자는 자신을 받쳐 든 힘찬 팔에 안겨 옮겨졌다. 그녀는 그 팔이 전혀 무겁지 않은 듯 보였다. 포그 씨와 프랜시스 경은 똑바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파르시교도는 고개를 숙였다. 파스파르투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 못지않게 넋이 나가 있었다.

기운을 차린 라자는 프랜시스 경과 포그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갑작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이제 출발합시다!”

연기 자욱한 장작더미 위로 몰래 뛰어든 이는 다름 아닌 파스파르투였다. 그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어둠을 틈타 젊은 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파스파르투는 대담하고도 기지 넘치는 행동으로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던 것이다.

네 사람이 숲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코끼리는 빠른 속도로 그들을 태운 채 멀어져 갔다. 하지만 곧 비명과 소란이 터져 나왔고, 필리어스 포그의 모자를 꿰뚫고 지나간 총알 한 발이 그들에게 속임수가 들통났음을 알렸다.

실제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는 늙은 라자의 시신이 놓였다. 공포에서 벗어난 사제들은 누군가 여인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제들은 숲을 향해 급히 달려 나갔고, 그 뒤를 군인들이 뒤따랐다. 군인들은 도망치는 이들을 향해 일제히 총을 쏘아댔다. 하지만 도망자들은 빠르게 거리를 벌렸고, 머지않아 총알과 화살이 닿지 않는 곳까지 멀어졌다.

제XIV장

필리어스 포그가 아름다운 갠지스강 계곡의 전 구간을 지나가지만, 정작 그 풍경을 구경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장

무모했던 모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성공을 떠올리며 한 시간 동안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프랜시스 경은 이 훌륭한 사내의 손을 맞잡으며 격려했고, 그의 주인인 포그 역시 "잘했다!"라고 말했다. 포그의 성격상 이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러자 파스파르투는 이 모든 공은 포그 씨에게 있다며 공을 돌렸다. 자신은 그저 조금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파스파르투는 웃음이 났다. 전직 체조 선수이자 전직 소방대원이었던 자신이, 잠시나마 매력적인 여인의 남편, 곧 미라로 방부 처리된 존경스러운 라자 노릇을 했으니 말이다. 한편, 그 젊은 인도 여인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지금은 여행용 담요를 두르고 코끼리 안장 중 하나에 몸을 뉘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파르시인 가이드의 능숙한 인도 덕분에 코끼리는 여전히 어둑한 숲을 빠르게 지나갔다. 파고다를 떠난 지 한 시간 만에 일행은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렀다. 일곱 시가 되어서야 일행은 발걸음을 멈췄다. 젊은 여인은 여전히 기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가이드는 그녀에게 브랜디를 약간 섞은 물을 마시게 했으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졸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대마 향이 일으키는 취기 효과를 잘 알고 있던 프랜시스 경은 그녀의 상태를 두고 동료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앞날에 닥칠 운명 때문에 더 큰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프랜시스 경은 필리어스 포그에게 만약 아우다가 인도에 남게 된다면, 결국 다시 처형자들의 손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광신도들은 인도 전역에 퍼져 있었기에, 영국 경찰이 있다 해도 마드라스나 봄베이, 혹은 캘커타에서 결국 희생자를 찾아낼 것이었다. 아우다가 안전해지려면 인도를 영원히 떠나는 길뿐이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알라하바드 역에는 열 시쯤 도착했다. 끊겼던 철로가 다시 이어져 있었기에, 이대로라면 24시간 안에 캘커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필리어스 포그는 다음 날인 10월 25일 정오에 캘커타를 떠나 홍콩으로 향하는 증기선에 제시간에 올라탈 수 있었다.

젊은 여인은 역 대기실 중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사이 파스파르투는 그녀에게 필요한 세면도구와 드레스, 숄, 그리고 모피 제품들을 사 오라는 임무를 맡았다. 주인인 필리어스 포그는 파스파르투에게 비용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일렀다. 파스파르투는 즉시 길을

나섰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도시 중 하나인 알라하바드의 거리로 들어섰다. 이 도시는 '신의 도시'라 불리며, 인도 반도 전역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을 불러모으는 두 성스러운 강, 갠지스강과 줌나강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졌다. 라마야나의 전설에 따르면, 갠지스강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브라마 신의 작용으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파스파르투는 물건을 사는 동안 도시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과거에는 이곳을 지키는 웅장한 요새가 있었으나, 지금은 주립 교도소로 쓰이고 있었다. 상권도 예전만 못해 쇠퇴한 상태였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자주 다니던 리전트 스트리트의 시장 같은 풍경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곳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중고 물품을 파는 까칠한 인상의 노년 유대인을 만났다. 파스파르투는 그에게서 스코틀랜드산 직물로 만든 드레스와 커다란 망토, 그리고 고급 수달 가죽 펠리스를 샀다. 그는 이 물건들을 사는 데 75파운드를 지불하면서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물건을 모두 산 파스파르투는 의기양양하게 역으로 돌아갔다.

필라지의 사제들이 아우다에게 가했던 압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고,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인도 여인 특유의 부드러운 표정이 다시금 감돌았다.

시인 왕 우카프 우다울이 아메흐나가라 여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다.

“두 갈래로 나뉜 그녀의 빛나는 머릿결은 희고 섬세한 뺨의 조화로운 윤곽을 감싸고 있으며, 그 뺨은 생기 넘치는 광채로 눈부시게 빛난

다. 칠흑 같은 눈썹은 사랑의 신 카마가 든 활처럼 우아한 곡선과 매력을 지녔다. 길고 부드러운 속눈썹 아래, 크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히말라야의 신성한 호수처럼 순수한 빛과 천상의 광채가 일렁인다. 미소 짓는 입술 사이로 드러난 치아는 가늘고 고르며 하얀데, 마치 꽃잎에 반쯤 싸인 시계꽃의 가슴 속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반짝인다. 섬세하게 빚어진 귀와 주홍빛 손, 그리고 연꽃 봉오리처럼 굽어 있고 부드러운 작은 발은 실론의 가장 아름다운 진주나 골콘다의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한 손에 잡힐 듯 가늘고 유연한 허리는 그녀의 둥근 몸매와 풍만한 가슴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며, 그 가슴에는 만개한 청춘의 보물들이 가득하다. 비단 같은 튜닉의 주름 아래로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불멸의 조각가 비크바르카르마의 신성한 손길이 순은을 깎아 만든 듯하다."

아우다에게 이 시적인 찬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유럽에서 통용되는 모든 의미를 통틀어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는 사실만 말해두면 충분할 것이다. 그녀는 매우 정확하고 깨끗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했으며, 그녀의 보살핌 덕분에 젊은 파르시 청년이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다는 가이드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열차가 알라하바드 역을 막 출발하려 할 무렵, 포그 씨는 가이드에게 약속했던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다. 단 한 펜니도 더 얹어주지 않았다. 주인님이 가이드의 헌신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기억하고 있던 파스파르투는 이 모습에 깜짝 놀랐다. 사실 가이드는 필라지에서의 모험 중에 목숨까지 걸었으며, 만약 나중에 인도인들에게 붙잡힌다면 그들의 보복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키우니에 대한 처우도 해

결해야 했다. 또한, 큰 비용을 들여 산 코끼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리어스 포그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파르시 씨," 그가 가이드에게 말했다. "당신은 매우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소. 당신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지만, 당신의 헌신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한 것은 아니오. 이 코끼리를 받겠소? 이제 당신의 것이오."

가이드의 눈이 반짝였다.

"경의 너그러움이 제게 큰 재물을 주시는군요!" 그가 외쳤다.

"가이드, 그를 데려가게." 포그 씨가 대답했다.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여전히 자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네."

"좋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가이드, 이 녀석을 데려가게나. 키우니는 용감하고 충직한 짐승이라네." 그러고는 코끼리에게 다가가 설탕 덩어리 몇 개를 건네며 말했다. "자, 여기 있다, 키우니. 여기, 여기."

코끼리는 만족스럽다는 듯 꿀꿀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코로 파스파르투의 허리를 감싸더니, 그의 머리 높이까지 번쩍 들어 올렸다. 파스파르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코끼리를 쓰다듬었다. 코끼리는 그를 다시 땅 위로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리어스 포그와 프랜시스 경, 그리고 파스파르투는 마차에 올라탔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우다를 위해 마련되었다. 마

차는 베나레스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80마일의 여정은 두 시간 만에 끝났다.

여행하는 동안 젊은 여인은 정신을 완전히 차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마차에 타고 있는지 깨닫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유럽식 옷차림을 한 채 철도 위를 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전혀 모르는 여행객들뿐이었다. 일행은 먼저 술을 조금 마시게 하여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고 나서 프랜시스 경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주저 없이 목숨을 걸었던 용기에 대해 강조했고, 파스파르투의 무모한 아이디어가 가져온 행운 가득한 결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포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파스파르투는 쑥스러운 듯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우다는 말보다는 눈물로, 자신을 구해준 이들에게 애처롭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입술로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생각이 희생 제물이 될 뻔했던 그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떠올리자, 아우다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아우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치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홍콩까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곳에 머물면 이번 사건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아우다는 이 제안을 간절하고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홍콩의 주요 상인 중 한 명인 파르시인이 친척으로 있

는 듯했다. 홍콩은 중국 해안의 섬에 위치해 있지만, 도시 전체가 완전히 영국식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열두 시 반에 열차가 베나레스에 멈춰 섰다. 브라만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고대 도시 카시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한다. 카시는 무함마드의 묘처럼 한때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동양학자들이 '인도의 아테네'라 부르는 오늘날의 베나레스는 그리 낭만적이지 않게 단단한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열차가 도시로 들어서자 파스파르투의 눈에 벽돌집과 진흙 오두막들이 스치듯 지나갔고, 그 모습은 도시 전체에 황량한 분위기를 드리웠다.

베나레스는 프랜시스 경의 목적지였다. 그가 합류해야 할 부대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프랜시스 경은 필리어스 포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또한,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모험이 아니라, 좀 더 평범하면서도 유익한 목적으로 이 길을 다시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포그는 가볍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프랜시스 경에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아우다는 훨씬 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파스파르투 역시 용맹한 장군으로부터 힘찬 악수를 받았다.

베나레스를 떠난 열차는 한동안 갠지스강 계곡을 따라 달렸다. 객차 창밖으로 비치는 비하르주의 풍경은 다채로웠다. 초록빛으로 뒤덮인 산들과 보리, 밀, 옥수수가 자라는 들판, 초록 악어들이 떼 지어 사는 정글, 정갈한 마을들, 그리고 여전히 잎이 무성한 숲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신성한 강물에서는 코끼리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계절이

깊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졌음에도 인도인 무리는 모여들어 경건하게 종교적 정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이들은 불교의 가장 격렬한 적대자인 열성적인 브라만들이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 비슈누와 자연의 힘을 신격화한 시바, 그리고 사제와 입법자들의 최고 통치자인 브라마였다. 증기선이 갠지스강을 따라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면서 수면 위를 떠다니는 갈매기들과 강둑에 바글거리는 거북이들, 그리고 강가에 사는 신실한 신자들을 놀라게 하는 오늘날의 영국화된 인도를 보며, 이 신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증기가 간간이 시야를 가릴 때를 제외하면, 눈앞의 파노라마는 마치 번쩍이는 섬광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여행객들은 베나레스에서 남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하르 라자들의 고대 요새, 추페니 성을 제대로 식별하기조차 어려웠다. 가즈푸르와 그곳의 유명한 장미수 공장, 갠지스강 좌안에 솟아 있는 콘월리스 경의 묘, 요새화된 도시 북사르, 그리고 인도의 주요 아편 시장이 형성된 대규모 제조 및 무역 중심지 파트나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몽기르 역시 마찬가지였다. 몽기르는 철강 주물 공장과 도구 공장이 들어서 있고, 높은 굴뚝들이 검은 연기를 하늘로 내뿜고 있다는 점에서 맨체스터나 버밍엄만큼이나 영국적인 면모를 갖춘, 유럽식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다.

밤이 찾아왔다. 기관차를 피해 달아나는 호랑이와 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열차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벵골의 경이로운 풍경들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골콘다의 폐허가 된 구르, 옛 수도였던 무르셰다바드, 버드완, 허글리, 그리고 파스

파르투가 자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았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프랑스 마을 찬데르나고르까지 모두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전 7시에 캘커타에 도착했고, 정오에 홍콩행 여객선이 출발할 예정이었다. 필리어스 포그에게는 5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의 일지에 따르면 10월 25일에 캘커타에 도착해야 했고, 실제로 도착한 날짜도 정확히 그날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정보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런던에서 봄베이까지 이동하며 벌어둔 이틀의 시간은 인도 대륙을 횡단하는 여정에서 모두 소진되었다. 하지만 필리어스 포그가 그 시간을 아까워했을 리는 만무하다.

제XV장

지폐 가방에서 수천 파운드가 더 쏟아져 나온 사건

열차가 역에 들어섰다. 파스파르투가 먼저 뛰어내렸고, 뒤이어 포그 씨가 내려와 아름다운 동행인이 무사히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왔다. 필리어스 포그는 아우다가 항해를 위해 편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곧장 홍콩행 증기선으로 향할 계획이었다. 아직 위험이 도사리는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역을 떠나려는 찰나,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필리어스 포그 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하인입니까?” 경찰이 파스파르투를 가리키며 덧붙여 물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포그 씨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대리인이었고, 영국인에게 법이란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파르투는 상황을 설명하며 따져보려 했으나, 경찰은 지팡이로 그를 툭툭 쳤다. 그러자 포그 씨는 파스파르투에게 순순히 따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젊은 숙녀분도 저희와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가도 좋습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 그리고 파스파르투는 말 두 마리가 끄는 네 바퀴 마차인 팔키가리(palkigahri)에 올라탔다. 마차가 출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20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차는 먼저 좁은 골목과 비참하고 지저분한 오두막, 그리고 불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블랙 타운'을 지나갔다. 이어 마차는 '유러피언 타운'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코코넛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돛대가 빽빽이 솟아 있는 밝은 벽돌 저택들이 늘어서 있어 앞선 풍경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우아한 옷차림의 기수들과 멋진 마차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마차는 평범해 보이는 집 앞에 멈춰 섰다. 하지만 그곳은 개인 저택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경찰은 죄수라고 불러도 무방할 세 사람에게 마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뒤, 창살이 달린 방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말했다.

"8시 반에 오바디아 판사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자리를 뜨며 문을 닫았다.

"세상에, 우리가 죄수라니요!" 파스파르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외쳤다.

아우다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포그 씨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제 운명에 맡겨두고 떠나셔야 해요! 선생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저를 구해주신 탓이라고요!"

필리어스 포그는 그저 그럴 리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사티(suttee)를 막았다는 이유로 체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다. 고소인들이 그런 죄목을 들고 감히 나설 리도 없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우다를 저버리지 않고 홍콩까지 안전하게 호송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증기선은 정오에 출발한다고요!" 파스파르투가 초조한 듯 말했다.

"정오 전에는 배에 올라탈 수 있을 거다." 주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말이 워낙 확신에 차 있었기에, 파스파르투는 자신도 모르게 "맙소사, 분명히 그렇겠지! 정오 전에는 배에 올라탈 거야."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불안함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8시 30분이 되자 문이 열리고 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은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한 뒤 옆에 있는 홀로 앞장서서 안내했다. 그곳은 분명 법정이었다. 이미 수많은 유럽인과 현지인들이 방 뒤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포그 씨와 그의 일행 두 명은 판사와 서기의 책상 맞은편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서기를 대동한 뚱뚱하고 둥그스름한 체구의 오바디아 판사가 들어왔다. 판사는 못에 걸려 있던 가발을 집어 들더니 서둘러 머리에 썼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머리에 갖다 대며 외쳤다. "허! 이건 내 가발이 아니잖아!"

"아닙니다, 재판장님." 서기가 대답했다. "제 것입니다."

"오이스터퍼프 씨, 재판장이 서기의 가발을 쓰고 어떻게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가발이 서로 바뀌어 버렸다.

파스파르투는 점점 초조해졌다. 재판장 머리 위에 걸린 커다란 시계의 바늘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바디아 판사가 다시 말했다.

"필리어스 포그입니까?" 오이스터퍼프가 물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포그 씨가 대답했다.

"파스파르투입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파스파르투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들, 당신들은 봄베이에서 오는 열차 안에서 이틀 동안이나 수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슨 죄로 고발당했다는 말씀입니까?" 파스파르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곧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는 영국 국민입니다." 포그 씨가 말했다. "나에게는 권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고소인들을 들여보내세요."

판사의 명령에 따라 문이 활짝 열렸고, 인도 사제 세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놈들이군요." 파스파르투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우리 아가씨를 화형에 처하려 했던 악당들이 바로 저들이에요."

사제들은 판사 앞에 자리를 잡고 섰다. 이어 서기가 큰 목소리로 필리어스 포그와 그의 하인을 상대로 한 신성 모독 고소장을 낭독하기 시

작했다. 두 사람은 브라만교에서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를 침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혐의를 들었는가?" 판사가 물었다.

"네, 판사님." 포그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혐의를 인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 사제들이 필라지 파고다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사제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방금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맞습니다!" 파스파르투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필라지 파고다에서 그들이 희생자를 불태우려던 참이었단 말입니다!"

판사는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고, 사제들은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희생자라니요?" 오바디아 판사가 물었다. "누구를 태운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봄베이 안에서 말입니까?"

"봄베이라니요?" 파스파르투가 비명을 질렀다.

"분명합니다. 필라지의 파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봄베이에 있는 말라바르 힐의 파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서기가 덧붙였다. "여기 범인이 현장에 남겨두고 간 신발이 있습니다."

그러자 서기는 책상 위에 신발 한 켤레를 올려놓았다.

"제 신발이에요!" 파스파르투가 비명을 질렀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경솔한 외마디 비명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현재 캘커타에 구금되어 있는 이유가 봄베이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주인과 하인의 혼란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의 돌발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임을 미리 내다보았다. 그는 출발을 12시간 늦추고 그 사이 말라바르 힐의 사제들을 찾아가 상담했다. 영국 당국이 이런 종류의 경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픽스 형사는 사제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 배상금을 약속하고 그들을 다음 열차에 태워 캘커타로 보냈다. 젊은 미망인을 구출하느라 지체된 탓에, 픽스 형사와 사제들은 포그 씨와 그의 하인보다 먼저 인도의 수도에 도착했다. 이미 치안 판사들에게는 포그 일행이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라는 전갈이 전달된 상태였다. 필리어스 포그가 캘커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픽스 형사가 느꼈을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강도가 경로 중간 어딘가에 멈춰 서서 남부 지방으로 몸을

숨겼다고 확신했다. 픽스 형사는 24시간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역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포그 씨와 파스파르투가 도착하는 것을 보며 그는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들 곁에는 한 젊은 여성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픽스 형사는 그녀가 왜 그들과 함께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서둘러 경찰을 부르러 달려갔다. 이렇게 해서 일행은 체포되어 오바다이아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

파스파르투가 조금만 덜 정신이 없었더라면, 법정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흥미진진하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픽스 형사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뭄바이와 수에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체포 영장이 캘커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오바다이아 판사는 파스파르투가 내뱉은 경솔한 외침을 듣고 말았다. 가련한 파스파르투로서는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는 것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인정합니다." 포그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영국 법은 인도인들의 종교를 평등하고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또한 파스파르투라는 자가 10월 20일 봄베이의 말라바르 힐에 있는 성스러운 사원을 모독했음을 인정한바, 본 판사는 해당 파스파르투에게 징역 15일과 벌금 300파운드를 선고한다."

"300파운드라고요!" 파스파르투가 그 엄청난 액수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정숙하시오!" 순경이 소리쳤다.

"또한," 판사가 말을 이었다. "주인이 하인의 범행을 묵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어떤 경우든 주인은 급료를 받는 하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필리어스 포그에게 150파운드의 벌금과 1주일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픽스 형사는 만족스러운 듯 부드럽게 손을 비볐다. 필리어스 포그가 캘커타에 일주일 동안 억류될 수 있다면, 구속 영장이 도착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파스파르투는 망연자실했다. 이 판결은 주인을 파멸시킬 것이었다. 그가 보잘것없는 바보처럼 그 끔찍한 사원에 발을 들인 탓에, 2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내기에서 지게 생긴 것이다.

필리어스 포그는 마치 판결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침착함을 유지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서기가 다음 사건을 부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보석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대답했다.

픽스 형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각 죄수에게 요구되는 보석금이 1,000파운드라는 판사의 발표를 듣자, 그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포그 씨가 말했다. 그는 파스파르투가 곁에 챙겨온 카펫 가방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서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대로 이 금액은 돌려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전까지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가세!" 필리어스 포그가 하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신발만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스파르투가 화가 나서 외쳤다.

"아, 이 신발들 꽤나 비싼 것들인데!" 신발을 건네받으며 그가 중얼거렸다. "한 켤레에 천 파운드가 넘는 물건이라고요. 게다가 발도 꽉 끼는데 말입니다."

포그 씨는 아우다에게 팔을 내어주며 그녀를 부축했고, 낙담한 기색이 역력한 파스파르투가 그 뒤를 따르며 자리를 떠났다. 픽스 형사는 강도가 결국 2,000파운드를 두고 떠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서 죄를 달게 받기로 결정하기를 여전히 기대하며 포그 씨의 뒤를 쫓았다. 포그 씨는 마차를 탔고, 일행은 곧 어느 부두에 내렸다.

'랑군호'는 항구에서 반 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고, 돛대 끝에는 출항 신호기가 올라가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치고 있었다. 포그 씨는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앞서 도착한 상태였다. 픽스 형사는 그들이 마차에서 내려 증기선을 향해 작은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실망감에 발을 구르며 땅을 쳤다.

"결국 그 악당이 떠나버렸군!" 그가 외쳤다. "2,000파운드를 허공에 날리다니! 도둑놈치고는 지나치게 돈을 펑펑 쓰는군! 필요하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 하지만 저 속도로 계속 나아간다면, 훔친 돈은 금방 바닥나고 말 거야."

형사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런던을 떠난 이후, 포그 씨는 여비와 뇌물, 코끼리 구입비, 보석금과 벌금 등으로 이미 5,000파운드 넘게 써버린 상태였다. 은행 강도에게서 회수한 금액 중 형사들에게 돌아갈 몫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제XVI장

픽스는 자신에게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듯 보인다

'랑군호'는 페닌슐라 앤 오리엔탈 사의 선박 중 하나로, 중국과 일본 근해를 오가는 배였다. 이 배는 철제로 제작된 스크루 증기선으로, 무게는 약 1,770톤이었으며 400마력의 엔진을 갖추고 있었다. '랑군호'는 '몽골리아호'만큼 빠르기는 했으나 설비는 그보다 못했고, 그런 탓에 아우다는 필리어스 포그가 바랐던 만큼 안락하게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캘커타에서 홍콩까지의 여정은 약 3,500마일에 불과했고, 열흘에서 열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었기에 아우다는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여정의 초반 며칠 동안 아우다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이와 점차 가까워졌고, 그가 베푼 친절에 대해 깊은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했다. 무덤덤한 성격의 신사는 아우다의 말을 듣기는 했으나, 겉보기에는 냉담해 보였다. 그의 목소리나 태도 어디에서도 미세한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우다의 안락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세심하게

살피는 듯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아우다를 찾아왔는데, 이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곁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우다를 지극히 정중하게 대했으나, 마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자동인형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했다. 파스파르투가 주인에 관한 기이한 면모를 몇 가지 귀띔해 주었고, 포그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내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웃게 만들기도 했지만, 아우다는 여전히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몰랐다. 어찌 되었든 그녀는 필리어스 포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를 높게 평가하며 바라보았다.

아우다가 겪은 가슴 아픈 사연은 파르시인 안내자가 들려준 이야기와 일치했다. 그녀는 참으로 인도의 고귀한 혈통에 속하는 여인이었다. 인도의 수많은 파르시 상인은 면직물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그중 한 명인 자메트시 지지보 경은 영국 정부로부터 준남작 작위까지 받았다. 아우다는 이 위대한 인물의 친척이었으며, 홍콩에서 만나기로 한 이는 그의 사촌인 지지였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으나, 포그 씨는 그녀의 불안을 달래며 모든 일이 수학적으로—그는 정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처리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아우다는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호수처럼 맑은" 커다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고 냉담한 포그는, 마치 그 호수에 몸을 던지기를 거부하는 듯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항해의 첫 며칠은 순조로운 날씨와 유리한 바람 덕분에 평온하게 흘러갔다. 이윽고 배는 벵골만에서 가장 큰 섬인 안다만 제도의 본섬을

목격했다. 해수면 위로 2,400피트 높이의 그림 같은 새들 피크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증기선은 해안 가까이를 지나갔으나, 인류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고 일컬어지는 야만적인 파푸아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식인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증기선이 섬들을 지나쳐 갈 때 펼쳐진 풍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전경에는 야자나무와 아레카야자, 대나무, 티크, 거대한 미모사, 그리고 나무처럼 자라는 양치식물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로는 산맥의 우아한 윤곽이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서는 수천 마리의 귀한 제비 떼가 무리 지어 날아다녔는데, 이들의 둥지는 중국의 식탁에 오르는 호화로운 요리의 재료가 되곤 했다. 하지만 안다만 제도가 선사하는 다채로운 풍경은 곧 뒤로 물러났다. '랑군호'는 중국해로 이어지는 말라카 해협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운 나쁘게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추적을 이어가던 픽스 형사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봄베이에 여전히 머물고 있을 것이라 믿는 파스파르투의 눈을 피해 캘커타에서 '랑군호'에 몰래 올라탔다. 그러고는 체포 영장이 도착하면 홍콩에서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미리 내려두었다. 픽스 형사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기를 바랐다. 파스파르투가 자신을 여전히 봄베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고 자신이 배에 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성실한 하인과 다시 마주해야만 했다. 그 과정은 뒤이어 보게 될 내용에 자세히 나온다.

이제 픽스 형사의 모든 희망과 염원은 홍콩에 집중되어 있었다. 싱가포르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짧아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홍콩에서 체포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는 영영 그의 손을 빠져나갈지도 몰랐다. 홍콩은 그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마지막 영국 땅이었다. 홍콩을 벗어나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포그에게는 거의 확실한 도피처가 생기는 셈이었다. 만약 홍콩에서 마침내 체포 영장이 도착한다면, 픽스 형사는 포그를 체포해 현지 경찰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홍콩을 지나치게 되면 단순한 체포 영장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범죄인 인도 영장이 따로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체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악당은 그 틈을 타 정의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 갈 것이 분명했다.

픽스 형사는 선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이러한 가능성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홍콩에 체포 영장이 도착해서 내가 그놈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영장이 도착하지 않거나. 만약 영장이 없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그가 떠나는 것을 지연시켜야만 한다. 봄베이에서도 실패했고 캘커타에서도 실패했다. 홍콩에서마저 실패한다면 내 명성은 끝장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영장이 없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된다면, 대체 어떻게 그를 못 떠나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픽스 형사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파스파르투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여, 그의 주인이 실제로는 어떤 자인지 말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파스파르투가 포그의 공범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진실을 알려준다면, 범죄에 휘말릴까 두려워진 하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사의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에,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만 써야 하는 마지막 카드였다. 만약 파스파르투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한마디라도 흘린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그래서 형사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번뜩였다. 필리어스 포그와 동행하여 '랑군호'에 타고 있는 아우다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준 것이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건들이 얽히고설켜 그녀를 포그의 여행 동반자로 만들었단 말인가? 두 사람은 분명 봄베이와 캘커타 사이 어딘가에서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였을까? 우연히 만난 것일까, 아니면 포그가 이 매력적인 여인을 찾아 일부러 내륙으로 들어간 것일까? 픽스 형사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혹시 두 사람이 악의적인 야반도주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파고들자, 그는 이 가설을 이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젊은 여인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었다. 홍콩에서 포그 씨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홍콩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포그는 배를 갈아타는 솜씨가 지독할 정도로 빨랐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요코하마를 향해 다시 항해를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픽스 형사는 영국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랑군호가 도착하기 전에 신호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 계획은 실행하기 쉬운 일이었다. 증기선이 싱가포르에 정박하는데, 그곳에는 홍콩으로 연결되는 전신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픽스 형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파스파르투를 심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를 입을 열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터였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픽스 형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했다.

이제 10월 30일이었다. 다음 날이면 랑군호가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픽스 형사는 선실에서 나와 갑판으로 향했다. 파스파르투는 증기선 앞쪽 갑판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픽스 형사는 몹시 놀란 기색을 내비치며 파스파르투에게 급히 다가갔다. 그러고는 외쳤다. "당신이 왜 여기, 랑군호에 있는 거요?"

"아니, 픽스 씨, 당신이 어떻게 이 배에 타고 있습니까?"

몽골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을 알아본 파스파르투가 정말로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분명 봄베이에서 헤어졌는데, 홍콩으로 가는 길에 여기서 또 만나다니요! 당신도 세계 일주를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홍콩에서 멈출 겁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말이죠."

"허!" 파스파르투가 잠시 당황한 듯 소리쳤다. "그런데 캘커타를 떠난 이후로 왜 배 위에서 당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 멀미가 좀 나서요. 계속 선실에만 있었습니다. 벵골만은 인도양만큼 몸에 맞지 않더군요. 그나저나 포그 씨는 좀 어떻습니까?"

"여느 때처럼 건강하고 시간도 아주 정확합니다. 단 하루도 늦지 않았지요! 그런데 픽스 씨,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젊은 숙녀분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젊은 숙녀분이요?" 픽스 형사가 되물었다. 방금 들은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기색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이어서 아우다의 사연을 늘어놓았다. 봄베이 사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코끼리를 이천 파운드에 구입한 일, 그리고 그녀를 구출한 뒤 캘커타 법정에서 체포되어 선고를 받았으나, 포그 씨와 자신이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게 된 과정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최근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던 픽스 형사였음에도, 파스파르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전혀 모르는 듯한 기색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이야기에 이토록 몰입하는 청중을 만난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런데 당신 주인은 이 젊은 여인을 유럽까지 데려갈 생각이오?"

"전혀 아닙니다. 그저 홍콩에 사는 부유한 상인인 친척분의 보호 아래 맡겨두려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없겠군." 픽스 형사는 실망감을 감추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파스파르투 씨, 진 한 잔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러지요, 픽스 씨. 랑군호에 탄 김에 친목을 다지는 의미로 한 잔 정도는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XVII장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항해 중에 벌어진 일들

그 면담 이후, 픽스 형사와 파스파르투는 갑판 위에서 자주 마주쳤다. 하지만 픽스 형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동행인인 파스파르투로부터 포그에 관한 사실을 더 캐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신비로운 신사의 모습을 한두 번 힐끗 보기도 했다. 그러나 포그는 대개 선실 안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아우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평소 습관대로 휘스트 게임을 즐기곤 했다.

파스파르투는 도대체 어떤 기묘한 우연이 픽스 형사를 주인님이 가는 길목마다 계속 나타나게 만드는 것인지 아주 진지하게 추측하기 시작했다. 수에즈에서 처음 만났던 이 인물은 분명 매우 상냥하고 태평한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몽골호'에 타고 있다가, 목적지라고 말한 봄베이에서 내리더니, 이제는 '랑군호'에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나 필리어스 포그의 뒤를 한 걸음씩 쫓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말이지 따져볼 만한 문제였다. 픽스 형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파스파

르투는 자신이 정성껏 관리해 온 인도식 신발을 걸고 내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픽스 형사 역시 그들과 동시에, 아마도 같은 증기선을 타고 홍콩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파스파르투가 백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해도, 픽스 형사가 노리는 진짜 목적을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필리어스 포그가 도둑으로 몰려 전 세계에 걸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파스파르투는 문득 픽스 형사의 행보에 대한 설명을 떠올렸다. 사실 그것은 꽤 그럴듯한 추측이었다. 그는 픽스 형사가 리폼 클럽에 있는 포그의 친구들이 보낸 요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포그를 뒤쫓으며, 그가 약속한 대로 정말 세계 일주를 완수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파견된 사람이라고 말이다.

"분명해!" 충직한 하인은 자신의 예리함에 스스로 뿌듯해하며 혼잣말로 되뇌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낸 스파이야! 하지만 그토록 명예로운 분인 필리어스 포그를 감시하다니, 그것도 참 도리가 아니군! 아, 리폼 클럽의 신사들이여, 이 일은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의 발견에 도취되어, 주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적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포그가 정당하게 불쾌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픽스 형사에게 모호한 암시를 던지며 놀려주기로 결심했다. 물

론, 자신의 진짜 의심을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놀려줄 생각이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랑군호'는 같은 이름의 반도와 수마트라를 가르는 말라카 해협에 진입했다.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많은 작은 섬들이 가로막고 있어, 여행객들의 시야에는 이 고귀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랑군호'는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반나절을 앞당긴 덕분에, 다음 날 새벽 4시에 석탄을 싣기 위해 싱가포르에 닻을 내렸다. 필리어스 포그는 이렇게 앞당긴 시간을 일지에 기록한 뒤, 육지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 아우다와 함께 배에서 내렸다.

포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던 픽스 형사는 자신을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았다. 반면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의 수작을 속으로 비웃으며 평소처럼 자기 할 일을 해 나갔다.

싱가포르 섬은 산이 없어 외관이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력이 없는 곳도 아니다. 이곳은 쾌적한 도로와 가로수길이 격자무늬처럼 펼쳐진 공원과도 같다. 매끄러운 털을 가진 뉴홀랜드 말 한 쌍이 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는 빛나는 잎사귀를 뽐내는 야자수와 정향나무가 줄지어 선 곳으로 들어갔다. 정향나무는 꽃이 반쯤 피어 있는 중심부에 정향을 품고 있었다. 유럽 들판의 가시 돋친 울타리 대신 후추나무가 자라나 있었고, 사고야자와 화려한 가지를 뻗은 커다란 양치식물들이 이 열대 기후의 풍경을 다채롭게 꾸며주었다. 잎이 무성한 육두구 나무들은 공기 중에 코를 찌르는 듯한 진한 향기를

가득 채웠다. 나무 사이로는 재빠르고 익살스러운 원숭이 무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정글에는 호랑이들도 살고 있었다.

두 시간 동안 교외를 달린 끝에 아우다와 포그 씨는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은 열대 과일과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매력적인 정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투박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집들이 거대하게 모여 있는 모습이었다. 열 시가 되자 그들은 다시 배에 올랐다. 그들의 뒤에는 줄곧 그들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픽스 형사가 바짝 따라붙어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망고 수십 개를 사서 갑판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망고는 제법 큰 사과만 한 크기에 겉은 짙은 갈색이고 속은 밝은 붉은색을 띠는 과일이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하얀 과육은 미식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파스파르투는 아우다에게 망고를 건네며 기뻐했고, 아우다는 아주 우아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열한 시가 되자 '랑군호'는 싱가포르 항구를 떠났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숲이 우거진 말라카의 높은 산맥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숲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털을 가진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홍콩까지의 거리는 약 1,300마일이다. 홍콩은 중국 해안 근처에 있는 작은 영국 식민지다. 필리어스 포그는 이 여정을 6일 안에 마치고자 했다. 그래야만 11월 6일에 일본의 주요 항구인 요코하마로 떠나는 증기선에 제때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랑군호'에는 승객이 아주 많았다. 그중 상당수는 싱가포르에서 내렸는데, 인도인과 실론인, 중국인, 말레이인, 그리고 포르투갈인들이 꽤 섞여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2등석 여행객이었다.

지금까지는 날씨가 좋았으나, 하현달이 뜰 무렵부터 날씨가 변했다. 바다는 거칠게 출렁였고, 바람은 때때로 폭풍에 가까울 정도로 거세게 불었다. 다행히 바람이 남서쪽에서 불어온 덕분에 증기선의 항해에는 도움이 되었다. 선장은 가능한 한 자주 돛을 올렸고, 배는 증기 기관과 돛의 힘을 동시에 빌려 안남과 코친차이나 해안을 따라 빠르게 나아갔다.

하지만 '랑군호'는 선체 구조에 결함이 있었기에, 날씨가 나빠질 때면 이례적일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자 파스파르투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으나, 그의 주인인 포그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듯 보였다. 파스파르투는 선장과 기관사, 그리고 선원들을 모두 탓하며, 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후추가 자라는 땅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했다. 아마도 새빌 로의 집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무자비하게 타오르고 있을 가스 불빛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조급하고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홍콩에 아주 급히 가셔야겠군요?” 어느 날 픽스 형사가 그에게 물었다.

“아주 아주 급하게 가야 합니다!”

"포그 씨는 요코하마로 가는 증기선을 타려고 무척 애를 쓰고 계시는 모양이죠?"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계시죠."

"그렇다면 당신도 이번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군요?"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픽스 형사님?"

"저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을 단 한 마디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교활하시군요!" 파스파르투가 그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이런 태도는 픽스 형사를 다소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혹시 저 프랑스인이 자신의 진짜 목적을 알아챈 것일까?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파스파르투가 자신이 형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단 말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저 남자가 한 말에는 분명 겉으로 드러낸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파스파르투는 한술 더 떠서 입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픽스 형사님," 그가 농담조로 말했다. "홍콩에 도착했을 때, 설마 당신을 놓치는 불운을 겪게 되지는 않겠지요?"

"글쎄요," 픽스 형사가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 제발 우리와 계속 동행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페닌슐라 선사의 대리인이 가는 길에 중간에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원래 봄베이까지만 가려던 참이었는데, 어느새 여기 중국까지 오셨군요. 미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럽까지는 그저 한 걸음 차이일 뿐입니다."

픽스 형사는 동행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파스파르투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픽스도 그를 따라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지금 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버느냐고 묻는 등 계속해서 그를 놀려댔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이런 일에는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제 돈을 들여 여행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 그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파스파르투가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다.

픽스 형사는 꽤나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선실로 내려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정체를 들킨 모양이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그 프랑스인이 자신이 형사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까? 이 모든 상황에서 파스파르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공범인 것일까, 아니면 아닌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 픽스 형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이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다가도, 포그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

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일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스 형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파스파르투를 상대로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했다. 만약 홍콩에서 포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포그가 영국 영토의 마지막 거점인 홍콩을 떠날 채비를 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파스파르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작정이었다. 하인이 주인의 공범이라면 주인은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하인이 강도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는 강도를 버리고 떠나는 편이 자신에게 이득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픽스 형사와 파스파르투 사이의 상황은 이러했다. 그사이 필리어스 포그는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더없이 위엄 있고 무심한 태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작은 별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질서 정연하게 세계를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근처에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교란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만약 그 별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 신사의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파스파르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우다의 매력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만약 마음의 동요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왕성을 발견하게 만든 천왕성의 궤도 교란보다도 훨씬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터였다.

파스파르투는 매일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우다의 눈빛에서 주인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

가 용감하고 기사도 정신이 넘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분명 아주 냉혈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여정이 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지 살펴보아도,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가련한 파스파르투는 끊임없이 공상에 빠져 지냈다.

어느 날 파스파르투는 기관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엔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증기선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프로펠러가 물 밖으로 튀어 올랐다. 밸브에서는 증기가 쉭쉭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다. 그 모습에 파스파르투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밸브에 압력이 충분히 차지 않았어!" 그가 외쳤다. "이래서는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아, 이놈의 영국인들 같으니! 만약 이게 미국 배였다면, 아마 폭발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훨씬 더 빠르게는 갔을 거라고!"

제XVIII장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투, 그리고 픽스 형사가 각자의 길을 가는 이야기

항해 후반부에는 날씨가 나빴다. 북서풍이 완강하게 불어닥치며 강한 돌풍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증기선의 속도가 더뎌졌다. '랑군호'는 거칠게 요동쳤다. 바람이 길 앞에 일으켜 세운 길고 거대한 파도에 승객들은 인내심을 잃어갔다. 11월 3일에는 일종의 폭풍이 몰아쳤다. 돌풍은 맹렬하게 배를 뒤흔들었고 파도는 높게 일렁였다. '랑군호'는 돛을 모두 줄였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해 헐벗은 삭구까지 휘몰아치는 돌풍 속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흔들려 감당하기 버거울 지경이었다. 증기선은 서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장은 폭풍이 계속된다면 홍콩에 예정보다 20시간 늦게 도착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마치 자신을 늦추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를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태도로 바라보았다. 20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요코하마행 배를 놓치게 된다면 내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그는 단 한 순간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강심장은 조급함이나 짜증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마치 이 폭풍조차 미리 예상된 일정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아우다는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픽스 형사는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폭풍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만약 '랑군호'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회항해야만 했다면, 그의 만족감은 정점에 달했을 것이다.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그는 희망에 부풀었다. 포그가 홍콩에 며칠간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몰아치는 돌풍과 돌풍을 동반한 폭풍우까지, 하늘조차 그의 편이 된 듯했다. 이 폭풍 때문에 배멀미가 나는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런 불편함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몸은 멀미로 인해 뒤틀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에 찬 환희로 들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이 불길한 날씨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려오지 않았던가! 땅과 바다는 마치 주인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고, 증기선과 철도는 그의 명령에 따랐으며, 바람과 증기는 그의 여정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합쳤다. 이제 드디어 역경의 시간이 닥친 것인가? 파스파르투는 마치 그 2만 파운드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안절부절못하며 흥분했다. 폭풍은 그를 짜증 나게 했고, 강풍은 그를 격노하게 했다. 그는 고집스러운 바다를 채찍질해서라도 굴복시키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엾은 사람 같으니! 픽스 형사는 자신의 만족감을 파스파르투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감추었다. 만약 그 속내를 내비쳤다가는, 파스파르투가 픽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거의 참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파르투는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갑판 위에 머물렀다. 아래층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원들을 도와 배의 전진을 돕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온갖 질문을 쏟아내며 선장과 장교, 선원들을 몰아붙였고, 그들은 파스파르투의 조급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폭풍이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압계를 가리켰다. 기압계는 기압을 높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파스파르투는 기압계를 흔들어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흔드는 것 따위나 저주를 퍼붓는 것만으로는 기압계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일이 되자 바다는 점차 잔잔해졌고, 폭풍의 기세도 꺾였다.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면서 다시 항해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파스파르투의 기분도 날씨와 함께 맑게 개었다. 돛 몇 개가 펼쳐지자 랑군호는 다시 최대한의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증기선은 5일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육지에서 신호가 온 것은 6일 오전 5시가 되어서였다. 필리어스 포그는 예정보다 24시간이 늦어진 셈이었고, 당연히 요코하마행 증기선도 놓치게 될 처지였다.

도선사가 6시에 승선하여 선교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랑군호가 수로를 지나 홍콩항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길을 안내했다. 파스파르투는 도선사에게 증기선이 이미 요코하마로 떠났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불안함을 픽스 형사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 교활한 악당은 포그가 다음 배를 타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며 그를 달래려 들었다. 그 말은 오히려 파스파르투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하인보다 대담한 필리어스 포그는 주저하지 않고 도선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증기선이 언제 홍콩을 떠나 요코하마로 향하는지 차분하게 물었다.

"내일 아침 만조 때입니다." 도선사가 대답했다.

"아!" 필리어스 포그가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말했다.

상황을 전해 들은 파스파르투는 도선사를 덥석 껴안고 싶을 만큼 기뻤지만, 픽스 형사는 그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을 만큼 분통이 터졌다.

"그 증기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필리어스 포그가 물었다.

"'카나틱호'입니다."

"그 배는 어제 떠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중 하나를 수리해야 하는 바람에 출항이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고맙소."

포그 씨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마치 계산된 움직임처럼 정교하게 살롱으로 내려갔다.

파스파르투는 기쁨에 겨워 도선사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흔들며 외쳤다. "도선사님, 당신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친구입니다!"

도선사는 아마 지금까지도 자신의 대답이 왜 이런 열렬한 환대를 불러일으켰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시 선교로 올라가, 홍콩 항구를 가득 메운 정크선과 탄카선, 그리고 어선들 사이를 헤치며 증기선을 인도했다.

한 시가 되자 '랑군호'가 부두에 정박했고, 승객들은 육지로 내리기 시작했다.

운명은 기묘하게도 필리어스 포그의 편을 들어주었다. 만약 '카나틱호'가 보일러를 수리하느라 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배는 11월 6일에 이미 출항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일본으로 향하는 승객들은 다음 증기선이 떠날 때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만 했을 터였다. 물론 포그 씨의 일정은 24시간 뒤처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태평양을 건너가는 증기선은 홍콩에서 출발하는 배와 직결되어 운항했다. 따라서 홍콩에서 출발한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할 때까지는 샌프란시스코행 배도 출항할 수 없었다. 포그 씨가 요코하마에 도착하는 것이 24시간 늦어지더라도, 태평양을 22일 동안 횡단하는 여정 중에 이 시간은 분명히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터였다. 이로써 그는 런던을 떠난 지 35일 만에, 예정보다 약 24시간 뒤처진 상태가 되었다.

'카나틱호'는 다음 날 아침 5시에 홍콩을 떠난다고 공고되었다. 포그 씨에게는 홍콩에서 볼일을 처리할 1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의 임무는 아우다를 그녀의 부유한 친척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었다.

상륙한 후, 포그는 아우다를 가마에 태워 클럽 호텔로 데려갔다. 젊은 여성을 위해 방을 하나 빌렸고, 포그 씨는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핀 뒤 사촌 지지지를 찾아 나섰다. 그는 아우다가 완전히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파스파르투에게 호텔에 머물라고 지시했다.

포그 씨는 거래소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파르시 상인처럼 부유하고 저명한 인물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개인을 만나 지지지에 관해 물었다.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지지지는 2년 전에 중국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뒤 사업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거처를 옮겼다. 중개인은 지지지가 주로 거래하던 상인들이 있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호텔로 돌아가 아우다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지지

지가 더 이상 홍콩에 있지 않으며, 아마도 네덜란드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아우다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포그 씨,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사가 대답했다. "유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폐를 끼칠 수는—"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스파르투!"

"선생님."

"'카나틱호'로 가서 객실 세 개를 예약하게."

자신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 그 젊은 여성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진 파스파르투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경쾌한 발걸음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제XIX장

파스파르투가 주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 결과 벌어진 일

홍콩은 1842년 전쟁 이후 난징 조약을 통해 영국이 차지하게 된 섬이다. 영국인 특유의 식민지 개척 정신은 이 섬에 중요한 도시와 훌륭한 항구를 일구어 놓았다. 이 섬은 광둥강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맞은편 해안에 있는 포르투갈령 마카오와는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중국 무역권을 두고 벌인 경쟁에서 홍콩은 마카오를 앞질렀고, 이제 중국 물품 운송의 대부분은 홍콩을 거점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소와 병원, 부두, 고딕 양식의 성당, 관사, 그리고 잘 닦인 도로들이 늘어선 홍콩의 모습은, 마치 영국의 켄트나 서리 지방에 있는 마을이 어떤 기묘한 마법에 걸려 남반구로 옮겨온 듯한 인상을 준다.

파스파르투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빅토리아 항구를 향해 거닐었다. 그는 길을 걷는 동안 기묘하게 생긴 가마와 여러 운송 수단, 그리고 거리에서 오가는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 무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홍콩은 어디를 가나 영국의 지배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에게는 봄베이나 캘커타, 혹은 싱가포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빅토리아 항구에 도착하자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배들이 뒤섞여 어지럽게 떠 있었다. 군함과 상선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정크선, 삼판선, 탱카, 그리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화단처럼 늘어선 꽃배들까지 보였다. 파스파르투는 인파 속에서 노란 옷을 입은, 아주 늙어 보이는 현지인들을 눈여겨보았다. 면도를 하러 이발소에 들어간 그는 이 노인들이 모두 최소 80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나이가 되어야 황제의 색인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된다는 설명도 들었다. 파스파르투는 정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그 사실이 무척이나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카나틱호'에 올라타야 할 부두에 도착했을 때,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픽스 형사는 몹시 초조하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거 큰일이군, 리폼 클럽의 신사분들에게는 말이야!" 파스파르투가 중얼거렸다. 그는 픽스 형사의 불쾌한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사실 픽스 형사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불운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체포 영장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영장은 분명 오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 홍콩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적어도 며칠은 더 걸릴 터였다. 홍콩은 포그의 여정에서 만나는 마지막 영국령이었기에, 만약 그를 붙잡아두지 못한다면 강도는 유유히 도망치고 말 것이다.

"자, 픽스 씨," 파스파르투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미국까지 가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소." 픽스 형사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파스파르투가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다. "우리와 떨어져서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선실을 예약하시지요."

그들은 증기선 사무실로 들어가 4인용 선실을 예약했다. 사무원이 티켓을 건네며 알려주기를, '카나틱'호의 수리가 완료되어 증기선이 다음 날 아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에 출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게 제 주인님께는 훨씬 더 잘 맞겠군요." 파스파르투가 말했다. "어서 가서 주인님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픽스 형사는 이제 과감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파스파르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필리어스 포그를 홍콩에 며칠이라도 더 붙들어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인 듯했다. 픽스 형사는 부둣가에서 눈에 띄는 선술집으로 동행을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장식된 넓은 방이 나타났는데, 방 끝에는 쿠션이 놓인 커다란 간이침대가 있었다.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방 곳곳에 놓인 작은 탁자에서는 서른 명 남짓한 손님들이 영국식 맥주와 포터, 진, 브랜디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장미 정수를 섞은 작은 아편 덩어리를 채운 긴 붉은 진흙 파이프를 피우기도 했다. 흡연자 중 한 명이 약기운에 취해 이따금 탁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웨이터들이 달려와 그의 머리와 발을 붙잡고 침대로 옮겨 눕혔다. 침대에는 이미 정신을 잃고 취해 있는 술꾼 스무 명이 누워 있었다.

픽스 형사와 파스파르투는 이곳이 아편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영국 상인들이 매년 140만 파운드어치나 팔아치우는 비참한 마약, 즉 아편에 중독된 가련하고 창백하며 멍청한 괴물들이 들끓고 있었다.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비열한 악덕 중 하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엄격한 법령을 통해 이 폐단을 막으려 애썼으나 소용없었다. 아편은 처음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점차 하층민에게까지 퍼져나갔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천자의 나라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편을 피웠다. 일단 아편에 길들여지면, 피해자들은 끔찍한 신체적 경련과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아편을 끊을 수 없었다. 아편을 아주 많이 피우는 사람은 하루에 여덟 개나 되는 파이프를 피우기도 하지만, 결국 5년 안에 죽고 만다. 픽스 형사와 파스파르투가 술 한잔을 나누려다 들어온 곳이 바로 이런 소굴 중 하나였다. 파스파르투는 돈이 없었지만, 나중에 꼭 갚으리라는 생각으로 픽스 형사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포트 와인 두 병을 주문했다. 프랑스인은 와인을 아주 맛있게 들이켰고, 그동안 픽스 형사는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두 사람은 여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가 자신들과 함께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에 특히 즐거워했다. 하지만 와인 두

병을 모두 비우자, 파스파르투는 '카르나틱호'의 출항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픽스 형사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잠깐 기다리게.”

“무슨 일 때문입니까, 픽스 씨?”

“자네와 진지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네.”

“진지한 이야기라고요!”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그는 잔 바닥에 남은 약간의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내일 나누기로 하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내가 하려는 말은 자네 주인과 관련된 것이네.”

이 말에 파스파르투는 동행자를 주의 깊게 살폈다. 픽스의 얼굴에는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픽스는 파스파르투의 팔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짐작한 모양이군?”

“맙소사!” 파스파르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전부 다 말해주겠네—”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친구! 아, 정말 다행이군. 하지만 계속하게, 어서 말해 보라고. 그전에 먼저 말해두겠는데, 그 신사분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에 돈을 낭비하고 말았네."

"소용없다고!" 픽스 형사가 말했다. "자네, 참 자신만만하군.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물론 알고 말고." 파스파르투가 대답했다. "2만 파운드 말일세."

"5만 5천 파운드라고!" 픽스 형사가 동행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뭐라고요!" 프랑스인이 외쳤다. "포그 씨가 감히 5만 5천 파운드나 걸었다고요! 그렇다면 한순간도 지체할 이유가 없겠군요."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를 다시 의자에 밀어 앉히며 말을 이었다. "5만 5천 파운드라네.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2천 파운드를 손에 넣게 되지. 자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중 500파운드를 떼어 주겠네."

"돕다니요?" 파스파르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외쳤다.

"그렇다네. 포그 씨를 이곳에 이삼일 정도 더 머물게 하는 걸 도와달라는 말이야."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주인님을 뒤쫓으며 명예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앞길까지 막으려 드는 겁니까! 정말이지 그분들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은,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쯤 되면 차라리 포그 씨를 길목에서 습격해 돈을 뺏는 게 나을 지경이군요!"

"바로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음모군요!"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술을 계속 들이켜고 있었기에, 술기운이 올라올수록 점점 더 흥분했다. "명백한 음모예요! 그것도 아주 점잖은 신사들이 벌이는 음모라니. 흥!"

픽스는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리폼 클럽의 회원들이라니요!" 파스파르투가 말을 이었다. "픽스 형사님, 제 주인님은 정직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인님은 내기를 하실 때면 언제나 정당하게 이기려고 노력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픽스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세상에나! 리폼 클럽 회원들이 보낸 요원이었군요. 제 주인님의 여정을 방해하려고 여기까지 사람을 보낸 게 분명해요. 하지만 당신의 정체를 진작에 알아챘어도, 포그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각별히 주의해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파스파르투가 대답하며 다시 잔을 비웠다.

픽스 형사는 이마를 손으로 훑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파스파르투의 실수는 진심인 듯 보였으나, 그 때문에 계획을 실행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픽스가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이 하인이 주인의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좋아," 픽스 형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공범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를 도와주겠군."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필리어스 포그를 반드시 홍콩에서 붙잡아야 했기에, 픽스 형사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내 말 잘 듣게." 픽스 형사가 불쑥 말했다.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리폼 클럽 회원들의 대리인이 아니네—"

"흥!" 파스파르투가 농담조로 대꾸했다.

"나는 런던 본부에서 이곳으로 파견된 경찰 형사라네."

"당신이 형사라고요?"

"증명해 보이겠네. 여기 내 임명장이 있네."

픽스가 이 문서를 보여주자, 파스파르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문서의 진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포그 씨의 내기는 핑계일 뿐일세." 픽스가 말을 이었다. "자네와 리폼 클럽의 신사들은 그저 속고 있는 거네. 그는 자네의 순진한 협력을 끌어내려고 그 내기를 이용한 거야."

"대체 왜 그런 거죠?"

"잘 듣게. 지난 9월 28일, 영국은행에서 5만 5천 파운드를 훔쳐 간 강도 사건이 발생했네. 다행히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할 수 있었지. 여기 그 인상착의가 적혀 있네. 이 모습이 필리어스 포그 씨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파스파르투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다. "우리 주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분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 자네는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그가 떠나던 날 자네는 하인으로 들어왔을 뿐이야. 그는 짐 가방 하나 챙기지 않은 채 막대한 양의 지폐를 들고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대며 떠났단 말이네. 그런데도 감히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단언하다니!"

"그래, 그래." 불쌍한 사내는 기계적으로 대답을 반복했다.

"자네도 그의 공범으로 체포되고 싶은가?"

파스파르투는 방금 들은 말에 압도되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픽스 형사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우다를 구한 용감하고 관대한 사람, 필리어스 포그가 강도라니! 하지만 그를 향한 의심의 근거가 이토록 많다니! 파스파르투는 머릿속을 파고드는 의구심을 떨

쳐내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가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이보게."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나는 포그 씨를 여기까지 추적해 왔네. 하지만 런던에 요청해 둔 체포 영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니 자네가 나를 도와 포그 씨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어야겠네."

"제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영국은행에서 내건 2,000파운드의 현상금을 자네와 나누겠네."

"절대 안 됩니다!" 파스파르투가 대답하며 일어나려 애썼으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탓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픽스 형사님," 그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 해도, 설령 제 주인이 당신이 쫓는 그 강도가 정말 맞다 해도—물론 저는 부정합니다만—저는 지금까지 그분을 모셔왔고,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너그러움과 선량함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황금을 준다 해도 결코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빵 따위는 먹지도 않는 마을에서 왔단 말입니다!"

"거절하겠다는 건가?"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로 치게." 픽스 형사가 말했다. "자, 한 잔하세."

"좋습니다. 자, 술이나 마십시다!"

파스파르투는 술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탁자 위에는 아편이 가득 담긴 파이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의 손에 파이프 하나를 슬쩍 쥐여주었다. 파스파르투는 그것을 받아 입술 사이에 물고 불을 붙였다. 그는 몇 차례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러더니 마약의 기운에 머리가 무거워진 듯, 탁자 위로 고개를 떨구었다.

"드디어 성공이군!" 파스파르투가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한 픽스 형사가 말했다. "포그 씨는 '카르나틱호'가 언제 떠나는지 전혀 모르게 될 거야. 설령 알게 된다 해도, 이 빌어먹을 프랑스 놈을 떼어놓고 가야만 하겠지!"

픽스 형사는 술값을 지불한 뒤 선술집을 나섰다.

제XX장

픽스 형사가 필리어스 포그와 마주치다

아편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필리어스 포그는 증기선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아우다를 데리고 영국인 거리를 조용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긴 여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포그처럼 영국인이라면 카펫 가방 하나만 들고도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여인에게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편안한 여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포그는 특유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너그러움에 당혹스러워하며 항의를 늘어놓는 아름다운 동행인에게도, 그는 언제나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여정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물품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차려진 코스 요리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우다는 영국식 예법

에 따라 보호자인 포그와 악수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그는 저녁 내내 《타임스》와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를 읽는 데 몰두했습니다.

만약 포그가 무언가에 놀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잠자리에 들 시간까지 하인이 돌아오지 않은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기선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요코하마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일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파스파르투가 주인의 호출 벨 소리에 응답하며 나타나지 않았지만, 포그는 조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카펫 가방을 챙기고, 아우다를 부른 뒤, 가마를 불러오게 하는 것으로 상황을 갈음했습니다.

그때는 8시였습니다. 만조가 되는 9시 반이면 '카나틱 호'가 항구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포그와 아우다는 가마에 올라탔고, 짐은 외바퀴 손수레에 실려 뒤따라왔습니다. 30분 뒤, 두 사람은 배에 오를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포그는 그곳에서 '카나틱 호'가 이미 전날 저녁에 출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증기선뿐만 아니라 하인까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두 가지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우다에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일 뿐입니다, 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픽스 형사였습니다. 픽스는 포그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처럼 어제 도착한 '랑군 호'의 승객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포그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일면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례했습니다. 선생님의 하인이 이곳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아우다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픽스 형사가 놀란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우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를 남겨두고 ‘카나틱 호’에 올라탄 건 아닐까요?”

“부인, 당신들을 남겨두고 말입니까?” 픽스 형사가 되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카나틱 호’를 타고 항해할 계획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우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부인. 정말이지 너무나 실망스럽군요. ‘카나틱 호’는 수리를 마치자마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정보다 열두 시간이나 일찍 홍콩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증기선이 오려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일주일”이라는 말이 나오자, 픽스 형사는 기쁨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그가 홍콩에 일주일 동안이나 발이 묶이다니! 그

사이 체포 영장이 도착할 시간도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이 법의 대리인인 그자의 편을 들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포그가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내가 보기엔 홍콩 항구에 '카나틱 호' 말고도 다른 배들이 더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을 때, 픽스 형사가 느꼈을 경악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포그는 아우다에게 팔을 내밀어 부축하며, 곧 출항할 배를 찾아 부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픽스 형사는 멍한 상태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필리어스 포그와 연결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를 이토록 잘 도와주던 운명은 이제 그를 버린 듯 보였습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필요하다면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통째로 빌리겠다는 결심을 품고 세 시간 동안이나 부두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배들은 모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중이라 당장 출항할 수 없는 것들뿐이었습니다. 픽스 형사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그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마카오까지라도 가겠다는 결심으로 계속해서 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부두에 있던 한 선원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배를 찾고 계십니까, 나리?"

"지금 바로 출항할 수 있는 배가 있습니까?"

"예, 나리. 43호라는 도선선이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가장 좋은 배지요."

"그 배는 속도가 빠릅니까?"

"한 시간에 8노트에서 9노트 정도는 나갑니다. 그 배를 직접 보시겠습니까?"

"네."

"그 배라면 손님께서도 만족하실 겁니다. 바다 구경이라도 나가실 계획입니까?"

"아니요, 항해를 하려는 겁니다."

"항해라고요?"

"네, 저를 요코하마까지 데려다주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선원은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손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카나틱 호'를 놓쳤거든요.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타려면 늦어도 14일까지는 반드시 요코하마에 도착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원이 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100파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간에 요코하마에 도착한다면 200파운드를 보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다."

도선사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액을 벌고 싶은 욕심과 멀리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분명 갈등하는 기색이었다. 픽스 형사는 죽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포그 씨는 아우다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 혹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포그 씨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도선사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손 안에서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발을 질질 끌었다.

"자, 도선사 양반, 어떻습니까?" 포그 씨가 물었다.

"글쎄요, 손님," 도선사가 대답했다. "이맘때 같은 시기에 저 자신이나 선원들, 그리고 고작 20톤도 안 되는 이 작은 배를 걸고 그렇게 긴 항해를 감행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홍콩에서 요코하마까지는 1,66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제시간에 도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겨우 1,600마일 아닙니까." 포그 씨가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픽스 형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도선사가 덧붙였다. "다른 방법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픽스 형사는 숨을 멎은 듯했다.

"어떻게 말입니까?" 포그 씨가 물었다.

"일본 최남단에 있는 나가사키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고작 80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하이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이로 간다면 중국 해안에서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으니 훨씬 유리할 겁니다.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니 항해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도선사님," 포그 씨가 말했다. "상하이나 나가사키가 아니라, 반드시 요코하마에서 미국 증기선을 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선사가 되물었다. "샌프란시스코행 증기선은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와 나가사키를 거쳐 가기는 하지만, 출발지는 상하이입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상하이에서는 배가 언제 출발합니까?"

"11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96시간, 즉 나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남서풍이 불어주고 바다마저 잔잔하다면, 그 시간 안에 800마일 떨어진 상하이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신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 시간 뒤면 출발합니다. 식량을 배에 다 싣고 돛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당신이 이 배의 선장입니까?"

"그렇소. 내가 '탄카데레 호'의 선장, 존 번즈비요."

"계약금이라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나리께 폐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기 계약금으로 20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픽스 형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만약 이 기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침 부탁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30분 뒤에 배에 오르도록 하죠."

"하지만 불쌍한 파스파르투는 어쩌고요?" 하인이 사라진 일로 몹시 불안해하던 아우다가 다급히 물었다.

"그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픽스 형사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으로 도선사 배를 향해 달려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콩 경찰서로 향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그곳에서 파스파르투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뒤, 그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

정 금액의 돈을 맡겨 두었다. 프랑스 영사관에서도 같은 절차를 마친 후, 호텔로 다시 보냈던 짐을 찾기 위해 가마를 세웠다가 다시 부두로 돌아왔다.

어느덧 세 시가 되었다. 선원들이 모두 승선하고 보급품까지 모두 실은 도선사 배 43호가 출항 준비를 마쳤다.

'탄카데레 호'는 20톤급의 깔끔하고 작은 배로, 마치 경주용 요트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반짝이는 구리 외판과 아연 도금된 철제 장식, 그리고 상아처럼 하얀 갑판을 보니, 존 번즈비가 이 배를 얼마나 정성껏 가꾸었는지 알 수 있었다. 두 개의 돛대는 뒤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으며, 브리건틴 돛과 앞돛, 폭풍용 지브 돛, 그리고 고정식 지브 돛을 갖추고 있어 바람을 등지고 항해하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삭구가 잘 갖춰져 있었다. 이 배는 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듯 보였는데, 실제로도 도선사 배 경주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며 그 성능을 이미 입증한 상태였다. '탄카데레 호'의 선원은 선장 존 번즈비와 중국 근해에 익숙한 강인한 선원 네 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장 존 번즈비는 마흔다섯 살 전후의 남성으로, 기운이 넘치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으며, 눈빛은 생기가 돌고 얼굴에는 활기차고 자신만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아무리 겁 많은 사람이라도 절로 신뢰를 느끼게 할 만큼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가 배에 올라타자, 그곳에는 이미 픽스 형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갑판 아래에는 사각형 모양의 선실이 있었는데, 원형 디반 위로 벽면이 침대 형태로 돌출되어 있었다. 선실 중앙에

는 흔들림을 방지하는 램프가 달린 탁자가 놓여 있었다. 공간은 협소했으나 깔끔했다.

"더 나은 제안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포그가 픽스 형사에게 말했다. 픽스 형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보였다.

픽스 형사는 필리어스 포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굴욕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분명해.' 그는 생각했다. '저자가 아무리 악당이라 해도, 예의만큼은 아주 바르군!'

3시 10분, 돛이 올라가고 영국 국기가 게양되었다. 갑판에 앉아 있던 포그와 아우다는 혹시라도 파스파르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두 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픽스 형사는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불행한 하인이 혹시라도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되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형사 자신에게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여전히 아편의 몽롱한 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을 터였다.

마침내 선장 존 번즈비가 출항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탕카데레호'는 브리간틴 돛과 앞돛, 그리고 스탠딩 지브 돛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 파도를 헤치며 경쾌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제XXI장

'탕카데레'호의 선장이 200파운드의 보상금을 놓칠 뻔한 위기에 처하다

800마일에 달하는 이번 항해는 20톤급의 작은 배로 떠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 게다가 계절마저 좋지 않았다. 중국 근해는 보통 파도가 거칠고 무서운 강풍이 몰아치곤 하는데, 특히 춘분과 추분 무렵에는 더욱 그러했다. 지금은 11월 초였다.

선장은 승객들을 요코하마까지 데려다주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다. 하루에 일정 금액의 운임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항해를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고, 상하이까지 가는 것조차 경솔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존 번즈비는 갈매기처럼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탕카데레'호를 믿었다. 어쩌면 그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루가 저물 무렵 그들은 홍콩의 변덕스러운 수로를 통과했다. 순풍을 탄 '탕카데레'호는 아주 훌륭하게 항해를 이어갔다.

"도선사, 가능한 한 전속력으로 가라고 굳이 권할 필요는 없겠군." 배가 먼바다로 나아갔을 때,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저를 믿으십시오, 나리. 바람이 허락하는 한 모든 돛을 다 펼쳤습니다. 보조 돛대를 더 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겁니다. 보조 돛대는 항구로 들어갈 때나 쓰는 법이니까요."

"도선사,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당신의 전문 분야이니 당신을 믿겠소."

필리어스 포그는 몸을 곧게 세우고 다리를 넓게 벌린 채, 마치 선원처럼 흔들림 없이 서서 출렁이는 파도를 응시했다. 선미에 앉아 있던 젊은 여인은 이토록 가냘픈 배를 타고 나선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상에 젖었다. 황혼이 내려앉아 어둑해지는 바다는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하얀 돛들이 거대한 날개처럼 파닥거렸다.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배는 마치 공중을 날아가는 듯했다.

밤이 찾아왔다. 달은 상현달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그 미약한 빛은 곧 지평선의 안개 속으로 사라질 듯했다. 동쪽에서는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벌써 하늘의 일부를 뒤덮기 시작했다.

도선사는 등불을 내걸었다. 육지로 향하는 배들이 뒤엉켜 있는 이 해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곳에서는 선박 간의 충돌이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지금 배가 나아가는 속도라면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이 용맹하고 작은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선두에 앉은 픽스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포그 씨가 말수가 적은 성격임을 알고 있었기에 동행인들과 거리를 두었다. 게다가 자신이 호의를 받아낸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리 내키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다. 포그가 요코하마에 머물지 않고 곧장 샌프란시스코행 배를 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였다. 그렇게 되면 광활한 미국 대륙이 그의 도주를 돕고 안전을 보장해 줄 터였다.

픽스 형사가 보기에 포그의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했다. 포그는 평범한 악당들처럼 영국에서 미국으로 곧장 항해하는 대신, 지구를 4분의 3이나 가로질러 돌아왔다. 미국 대륙에 더 확실하게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뒤, 은행에서 훔친 재산을 가지고 유유히 즐기며 살 작정인 듯했다.

하지만 일단 그가 미국에 도착하면, 픽스 형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남자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범인을 인도할 절차를 확실히 마칠 때까지, 그는 단 한 시간도 포그를 눈앞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의무였고, 그는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할 생각이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 파스파르투가 주인의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픽스 형사가 파스파르투에게 이미 속마음을 털어놓은 이상, 그 하인이 주인과 결코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필리어스 포그 역시 이토록 이상하게 사라져 버린 파스파르투를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았을 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실

수로 '카나틱'호에 올라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였다. 아우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이 훌륭한 동료를 잃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만약 그가 '카나틱'호를 타고 있다면 요코하마에서 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배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중이라면, 그가 배에 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 10시쯤 상쾌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돛을 접어 바람을 줄이는 것이 신중한 처사였을지도 모르나, 도선사는 하늘을 주의 깊게 살핀 뒤 배의 돛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탕카데레'호는 흘수가 깊은 배였음에도 아주 훌륭하게 항해를 이어갔으며, 강풍이 닥칠 경우에 대비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자정 무렵,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가 선실로 내려갔다. 이미 선실에 먼저 도착해 간이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있던 픽스 형사가 그들보다 앞서 내려간 뒤였다. 도선사와 선원들은 밤새도록 갑판을 지켰다.

다음 날인 11월 8일 일출 무렵, 배는 이미 100마일 넘게 나아간 상태였다. 항해 일지에 기록된 평균 속도는 8마일에서 9마일 사이였다. '탕카데레'호는 여전히 모든 돛을 펼친 채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항해를 이어갔다. 지금과 같은 바람이 계속 유지된다면 배에 유리한 상황이 될 터였다. 낮 동안 배는 조류의 흐름이 좋은 해안선을 따라 움직였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했고, 이따금 탁 트인 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배와의 거리는 기껏해야 5마일 정도였다.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바다는 비교적 잔잔했다. 이는 배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 배

는 톤수가 작아서 바다가 거세지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에 미풍이 다소 잦아들더니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도선사는 보조 돛대를 세워 올렸으나, 바람이 다시 거세지자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내렸다.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는 다행히도 거친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다. 포그는 픽스 형사에게도 식사를 함께하자고 권했으나, 픽스 형사는 내심 불쾌함을 삼키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남자의 비용으로 여행하며 그가 제공하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은 픽스 형사에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했고, 결국 그렇게 했다.

식사를 마친 픽스 형사는 포그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내뱉을 때마다 입술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앞의 이 "신사"를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선생님, 이 배에 탈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형편이 선생님처럼 넉넉하지 못하여, 제 몫의 비용은 직접 지불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포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정 그렇다면—”

“아닙니다, 선생님.” 포그가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다시 말했다. “이것은 제 일반적인 경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픽스 형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동안 항해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존 번즈비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포그에게 상하이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장담했다. 포그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선원들은 보상금을 받을 생각에 고무되어 아주 열성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은 돛은 하나도 없었으며, 힘차게 올리지 않은 돛도 없었다. 키를 잡은 이의 실수로 배가 휘청거리는 일조차 없었다. 선원들은 마치 왕실 요트 경주에 참가한 것처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탕카데레'호는 밤이 깊은 새벽녘, 포르모사섬과 중국 해안을 가르는 복건 해협에 진입하여 북회귀선을 통과했다. 해협의 바다는 매우 거칠었다. 역류가 만들어낸 소용돌이가 가득했고, 잘게 부서지는 파도가 배의 항로를 방해하는 바람에 갑판 위에 서 있는 것조차 무척 어려웠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하늘은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기압계는 수은주가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며 급격한 기상 변화를 알렸다. 남동쪽 바다에서도 폭풍을 암시하는

긴 너울이 일렁였다. 전날 저녁, 태양은 바다 위에서 번뜩이는 인광을 뒤로한 채 붉은 안개 속으로 저물어 갔다.

존 번즈비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중얼거렸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하늘의 기세를 살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포그 씨에게 물었다. "주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글쎄요, 돌풍이 몰아칠 모양입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부나요, 아니면 남쪽에서 부나요?" 포그 씨가 차분하게 물었다.

"남쪽입니다. 보십시오!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태풍이라 다행입니다. 덕분에 배가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존 번즈비가 말했다. "더 드릴 말씀이 없군요." 존 번즈비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유명한 기상학자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일 년 중 조금만 더 이른 시기에 찾아왔더라면 마치 눈부시게 쏟아지는 전기 불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동지 무렵인 지금은 태풍이 엄청난 위력을 떨치며 몰아칠까 두려운 상황이었다.

도선사는 미리 대비를 마쳤다. 그는 모든 돛을 접어 내렸고, 돛대 끝의 가로대도 치워 버렸다. 선원들은 모두 배 앞머리로 모여들었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기 위해 튼튼한 캔버스 천으로 만든 삼각형 모양의 작은 돛 하나만을 폭풍용 지브 돛으로 올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다렸다.

존 번즈비는 승객들에게 선실 안으로 내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기도 희박하고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강풍에 배가 요동치는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어스 포그와 픽스 형사, 그리고 아우다 중 누구도 갑판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8시 무렵,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돛을 아주 조금만 올린 상태였음에도, '탕카데레'호는 그 위력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바람에 깃털처럼 떠올랐다. 이 배의 속도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증기 기관차보다 네 배나 빠르다고 비유하는 것조차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셈이었다.

'탕카데레'호는 거대한 파도에 밀려 하루 종일 북쪽을 향해 질주했다. 다행히 배는 파도의 속도에 맞춰 계속해서 나아갔다. 뒤편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물벽에 배가 스무 번은 더 잠길 뻔했으나, 선장의 능숙한 조종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승객들은 수시로 들이치는 파도에 몸이 젖었지만,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픽스 형사는 분명 폭풍을 저주하며 욕설을 내뱉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우다는 자신을 지켜주는 포그를 응시했다. 포그의 침착함에 경외감을 느낀 아우다 역시 그에게 어울리는 품격을 보여주며 용감하게 폭풍을 견뎌냈다. 필리어스 포

그의 경우, 마치 이 태풍조차 그의 계획된 일정 중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탕카데레'호는 줄곧 북쪽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저녁 무렵, 바람의 방향이 북서쪽으로 크게 바뀌며 몰아치기 시작했다. 파도의 골짜기에 놓인 배는 끔찍하게 흔들리고 요동쳤으며, 바다는 무서운 기세로 배를 몰아쳤다. 밤이 되자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존 번즈비 선장은 어둠이 깔리고 폭풍이 거세지는 것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선원들에게 속도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선원들과 상의를 마친 그는 포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포그 씨, 제 생각에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중 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도선사가 말했다. “하지만 어느 항구 말입니까?”

“제가 아는 곳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포그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곳은 바로—”

“상하이입니다.”

도선사는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이토록 강한 결단력과 끈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다 이내 그는 외쳤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상하이로 갑시다!”

그리하여 ‘탕카데레’호는 북쪽 항로를 따라 꾸준히 나아갔다.

밤은 정말이지 끔찍했다.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일 정도였다. 선원들이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두 번이나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뻔한 위기를 맞았다. 아우다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나 불평 한마디 내뱉지 않았다. 포그 씨는 거센 파도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몇 번이고 서둘러 달려갔다.

날이 밝았다. 폭풍은 여전히 사나운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으나, 바람은 이제 남동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다행스러운 변화였다. 파도가 서로 뒤엉키며 거대한 산맥처럼 솟구쳤고, 선체가 튼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박살 났을 만큼 강한 충격이 연달아 배를 때려댔지만, ‘탕카데레’호는 다시금 그 거친 바다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간간이 흩어진 안개 사이로 해안선이 보이기도 했으나, 눈에 띄는 배는 한 척도 없었다. 바다 위에는 오직 ‘탕카데레’호뿐이었다.

정오 무렵에는 바다가 다소 잠잠해질 기미가 보였고,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앉으면서 그 기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폭풍은 무시무시했던 만큼이나 짧게 지나갔다. 완전히 기진맥진했던 승객들은 이제야 겨우 음식을 조금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밤은 비교적 고요했다. 돛을 다시 몇 개 올리자 배의 속도는 아주 좋아졌다. 다음 날 새벽,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존 번즈비는 상하이

까지 채 100마일도 남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100마일이라니, 그것을 주파하는 데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만약 포그가 요코하마로 향하는 증기선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는 바로 오늘 저녁까지 상하이에 도착해야만 했다. 몇 시간이나 허비하게 만든 폭풍만 없었더라면, 그들은 지금쯤 목적지에서 30마일 이내에 도달해 있었을 것이다.

바람은 확실히 잦아들었고, 다행히 바다도 함께 잠잠해졌다. 모든 돛을 올리자 정오 무렵 '탕카데레'호는 상하이에서 45마일 거리까지 접근했다. 남은 거리를 주파하기까지는 아직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배에 탄 모든 이들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에 떨었고, 필리어스 포그를 제외한 모두가 초조함에 가슴을 졸였다. 배는 시간당 평균 9마일의 속도를 유지해야 했으나, 바람은 매 순간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이 변덕스러운 미풍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바다를 다시 평온하게 만들곤 했다. 그럼에도 '탕카데레'호는 워낙 가벼운 데다 돛이 좋아 이 변덕스러운 미풍을 아주 잘 탔기에, 조류의 도움까지 더해져 존 번즈비는 6시가 되었을 때 상하이강 입구에서 채 1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 시내는 강을 따라 상류로 최소 12마일은 더 올라가야 했다. 7시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상하이에서 3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도선사는 분노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 200파운드라는 보상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포그를 바라보았다. 포그는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전 재산이 바로 이 순간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연기 고리를 머리에 인 길고 검은 굴뚝 하나가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해진 시간에 요코하마로 떠나는 미국 증기선이었다.

“제기랄!” 존 번즈비가 절박하게 키를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신호를 보내게!” 필리어스 포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탕카데레'호의 앞쪽 갑판에는 안개 속에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작은 황동 대포가 놓여 있었다. 대포는 이미 포구 끝까지 장전된 상태였다. 하지만 선장이 화구에 벌겋게 달군 석탄을 갖다 대려는 찰나, 포그 씨가 말했다.

“깃발을 올리게!”

깃발이 조기(弔旗)로 게양되었다. 이것은 조난 신호였다. 미국 증기선이 이 신호를 알아채고 항로를 약간 틀어, 이 도선선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발사!” 포그 씨가 말했다. 그러자 작은 대포가 굉음을 내며 공중에 울려 퍼졌다.

제XXII장

파스파르투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주머니에 돈을 좀 넣어두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장

11월 7일 6시 반, 홍콩을 출항한 '카나틱호'는 전속력으로 일본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배에는 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고, 객실 또한 승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선미에 있는 두 개의 일등실은 비어 있었다. 바로 필리어스 포그가 예약했던 객실이었다.

다음 날, 초점 없는 눈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승객 한 명이 두 번째 객실에서 나오더니 갑판 위 좌석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 승객은 파스파르투였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았다. 픽스 형사가 아편굴을 떠난 직후, 웨이터 두 명이 의식을 잃은 파스파르투를 들어 올려 흡연자용 침대로 옮겼다. 세 시간 뒤, 꿈속에서조차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불쌍한 파스파르투는 마침내 깨어났다. 그는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마약의 기운을 떨쳐내려 애썼다. 아

직 완수하지 못한 임무가 떠오르자 그는 무기력함을 떨치고 술에 취한 그곳에서 서둘러 빠져나왔다. 그는 벽을 짚으며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본능에 이끌리듯 연신 "카나틱호! 카나틱호!"라고 외쳐댔다.

증기선은 막 출항하려는 듯 부두 옆에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불과 몇 걸음만 더 가면 될 거리였다. 그는 발판 위로 달려가 건너간 뒤, 카나틱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갑판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런 광경이 익숙한 듯한 선원 몇 명이 불쌍한 프랑스인을 들어 올려 두 번째 객실로 옮겼다. 파스파르투는 배가 중국에서 150마일이나 멀어진 뒤에야 겨우 깨어났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그는 카나틱호의 갑판 위에서 정신을 차렸고 상쾌한 바닷바람을 간절히 들이마셨다. 맑은 공기 덕분에 술기운이 가셨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일과 픽스 형사가 드러낸 사실, 그리고 아편굴에서의 일을 모두 기억해 냈다.

"분명히 내가 지독하게 취했었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포그 씨가 뭐라고 하실까? 그래도 일단 증기선을 놓치지 않았으니, 그게 가장 다행이다."

그러다 문득 픽스 형사가 떠올랐다. "그 악당 놈은 이제 제발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군. 감히 계획했던 대로 카나틱호에까지 따라 타지는 않았어야 할 텐데. 영란은행을 털었다는 혐의를 받는 포그 씨를 뒤

쫓는 형사라니! 쳇, 말도 안 돼. 포그 씨가 강도라면 나도 살인마나 다름없지."

픽스 형사가 꾸민 진짜 속셈을 주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형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차라리 포그 씨가 다시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런던 경찰의 요원이 세계를 돌며 자신을 뒤쫓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함께 한바탕 웃어넘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틀림없다. 적어도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포그 씨를 찾아내어,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리는 증기선 위를 최대한 중심을 잡으며 선미 갑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인이나 아우다를 닮은 사람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다.

"다행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우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포그 씨는 아마 휘스트 게임을 할 동료를 찾았을 거야."

그는 선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포그 씨는 그곳에 없었다. 파스파르투는 사무장에게 주인의 객실 번호를 물어보기만 하면 될 터였다. 그러나 사무장은 포그라는 이름의 승객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실례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파스파르투가 끈질기게 물었다. "키가 크고 조용한 분입니다. 말수도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배에는 젊은 여성 승객이 없습니다.” 사무장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여기 승객 명단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파스파르투는 명단을 훑어보았으나, 그곳에 주인의 이름은 없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 내가 ‘카나틱호’에 타고 있는 건가?”

“그렇다네.”

“요코하마로 가는 길인가?”

“물론이지.”

파스파르투는 순간 자신이 배를 잘못 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카나틱'호에 타고 있었지만, 주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출항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포그 씨와 아우다가 증기선을 놓친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리고 포그 씨를 홍콩에 붙들어 두려고 자신을 술에 취하게 만든 그 배신자의 잘못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이제 픽스 형사가 부린 속임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포그 씨는 분명 모든 것을 망쳤을 것이고, 내기에서도 졌을 것이며, 자신 또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파스파르

투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 만약 픽스 형사가 자신의 손에 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묵은 셈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처음의 절망감을 추스른 파스파르투는 점차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처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분명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일본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대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실링도, 아니 펜스 한 닢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배삯은 미리 지불해 둔 상태였기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시간은 닷새나 엿새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 때가 되자 식욕이 돋아 포그 씨와 아우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먹기라도 하듯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마치 일본이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도 되는 양, 그는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13일 새벽, 카나틱호가 요코하마 항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태평양에서 매우 중요한 기항지로, 북미와 중국, 일본, 그리고 동양의 여러 섬 사이를 오가는 모든 우편 증기선과 여객선이 들르는 곳입니다. 요코하마는 에도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 제국의 제2 수도이자, 영적 황제인 미카도가 세속 황제인 대군(타이쿤)의 직무를 자신의 직무로 흡수하기 전까지 그 대군이 거처하던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카나틱호는 각국에서 온 배들이 국기를 휘날리며 모여 있는 가운데, 세관 근처 부두에 닻을 내렸습니다.

파스파르투는 태양의 후예들이 사는 이 기이한 땅에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이드도 없이 요코하마의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도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철저히 유럽풍인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앞모습이 낮게 지어져 있었고, 베란다가 달려 있었는데 그 아래로 깔끔한 주랑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이 구역은 거리와 광장, 부두와 창고를 포함하여 '조약 항구의 돌출부'와 강 사이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홍콩이나 캘커타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과 영국인, 중국인과 네덜란드인 등 온갖 인종이 뒤섞여 있었으며, 대부분은 무엇이든 사고팔 준비가 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인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마치 호텐토트족 한복판에 덩그러니 떨어진 것처럼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도 최소한의 방책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코하마에 있는 프랑스 영사와 영국 영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험담이 주인의 여정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사들을 찾아가기 전에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움을 얻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럽인 구역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기에, 그는 일본인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에도까지라도 계속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채 말입니다.

요코하마의 일본인 거주 구역은 바다의 여신 이름을 따서 벤텐이라 불리는데, 이 여신은 주변 섬들에서 숭배되는 대상입니다. 그곳에서 파스파르투는 아름다운 전나무와 삼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독특한 양

식의 신성한 문들과 대나무와 갈대 사이에 반쯤 가려진 다리들도 보였습니다. 거대한 삼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운 사찰과 불교 승려 및 유교 신봉자들이 머무는 성스러운 은거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거리에는 마치 일본 병풍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발그레한 얼굴을 한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다리가 짧은 푸들과 누런 고양이들 사이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승려들은 단조로운 북소리를 울리며 행렬을 지어 지나갔고, 옻칠을 한 뾰족한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두 자루의 칼을 찬 경찰과 세관원들도 보였습니다. 흰 줄무늬가 있는 푸른 면직물 옷을 입고 총을 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겉옷과 사슬 갑옷을 입은 미카도의 근위대원들과 온갖 계급의 군인들도 무리를 짓거나 짝을 지어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군인이 중국에서 멸시받는 만큼이나 존경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스파르투는 구걸하는 승려와 긴 옷을 입은 순례자들, 그리고 평범한 민간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뒤틀린 검은 머리에 큰 머리, 긴 상체와 가는 다리, 작은 키를 가졌으며, 피부색은 구릿빛에서 창백할 정도로 하얀색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만 일본인은 중국인과 확연히 다르기에, 중국인처럼 노란빛을 띠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와 가마, 돛을 단 수레, 대나무로 만든 들것 같은 기묘한 운송 수단들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성들도 눈여겨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름답다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캔버스 신이나 짚신, 혹은 정교하게 깎은 나무 신을 신은 작은 발로 보폭을 좁게 하여 걸었습니다. 여성들은 매서운 눈매와 평평한 가슴을 가졌으며, 유행에 따라 치아를 검게 물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비단 스카프를 두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스카프는 등 뒤의 장식 위에 커다란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장식은 마치 현대 파리의 귀부인들이 일본 여인들에게서 빌려온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이 다채로운 군중 사이를 몇 시간 동안이나 거닐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기묘한 상점들의 진열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일본 특유의 독특한 장신구들로 반짝이는 보석 가게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깃발과 현수막으로 장식된 식당들도 보았고, 향긋한 차를 쌀을 발효시켜 만든 술인 '사키'와 함께 마시는 찻집들도 지나쳤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늑한 흡연실도 보았는데, 그곳에서 피우는 것은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편이 아니라 아주 질이 좋고 결이 살아있는 담배였습니다.

그는 계속 걸음을 옮겨 마침내 광활한 논이 펼쳐진 들판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신 동백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들은 관목이 아닌 나무 위에서 마지막 색채와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안에는 벚나무와 매화나무, 사과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열매보다는 꽃을 보기 위해 이 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참새와 비둘기, 까마귀 같은 탐욕스러운 새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기묘한 모양으로 웃는 얼굴을 한 허수아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삼나무 가지 위에는 커다란 독수리들이 앉아 있었고, 수양버들의 잎사귀 사이에는 왜가리들이 엄숙하게 한쪽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까마귀, 오리, 매 같은 야생 조류와 더불어, 일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며 장수와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학들도 도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가로이 거닐던 파스파르투의 눈에 관목 사이로 핀 제비꽃 몇 송이가 들어왔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녁이나 좀 먹어야겠군."

하지만 막상 냄새를 맡아보니, 그 꽃에는 아무런 향기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희망이 없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착한 친구는 '카나틱'호를 떠나기 전, 분명 가능한 한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에 허기가 점점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는 정육점 가판대에 양고기나 염소고기, 돼지고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농사용으로만 보존되는 소를 잡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요코하마에는 고기가 매우 귀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차라리 멧돼지나 사슴 고기 한 점, 혹은 자고새나 메추라기,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쌀과 함께 거의 전적으로 먹는 사냥감이나 생선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운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간절히 원하는 식사를 다음 날 아침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파스파르투는 현지인 거주 구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형형색색의 등불이 밝혀진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거리에서

는 숙련된 발놀림으로 춤을 추는 무용수들과, 야외에서 망원경을 세워 두고 서 있는 점성술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그는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항구는 배 위에서 낚시를 하는 어부들이 밝힌 송진 횃불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거리는 고요해졌고, 북적거리던 인파 대신 순찰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순찰대원들의 모습은 파스파르투가 보기에 마치 대사처럼 보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마다 파스파르투는 낄낄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유럽으로 떠나는 일본 사절단이 또 한 팀 지나가는군!"

제XXIII장

파스파르투의 코가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장

다음 날 아침, 가난하고 지친 데다 배고픔까지 견디기 힘들었던 파스파르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시계를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내려준, 비록 감미롭지는 않아도 힘 있는 목소리를 써먹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몇 곡의 프랑스 노래와 영국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이 노래들을 불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늘 심벌즈와 탐탐, 탬버린을 두드려 대는 것을 보니 분명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일 테고, 유럽의 재능 또한 기꺼이 알아봐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공연을 열기에는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관객들이 잠에서 너무 일찍 깨어난다면, 공연가에게 미카도(일본 천황)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지불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파르

투는 몇 시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가로이 거리를 거닐던 중, 그는 자신이 떠돌이 예술가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번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획에 더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옷을 바꾸면 당장의 허기를 달랠 돈도 조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심을 굳혔으니,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야 파스파르투는 헌 옷을 취급하는 현지 상인을 찾아냈고, 그에게 옷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유럽식 의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스파르투는 오래 입어 색이 바랜 낡은 일본식 겉옷과 한쪽으로 늘어진 터번을 걸친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는 은전 몇 닢이 짤랑거리며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카니발 축제에 와 있다고 상상해야겠어!"

그렇게 '일본인 차림'을 마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박해 보이는 찻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반 마리와 약간의 쌀밥을 먹으며, 아직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사람답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배불리 식사를 마친 그가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이 옷을 더 일본인 같은 옷으로 바꿔 입고 다시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주 즐거운 기억을 남기지는 못하겠지만, 이 해 뜨는 나라를 최대한 빨리 떠날 방법을 고민해야겠어."

그는 미국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증기선들을 찾아가 볼 생각을 했습니다. 배삯과 식비를 대신해 요리사나 하인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할 심산이었습니다. 일단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문제는 일본과 신대륙 사이에 놓인 4,700마일의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곧장 부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계획이 점점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행 증기선에서 요리사나 하인이 왜 필요하겠으며, 지금 같은 차림을 한 그를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게다가 내세울 만한 추천서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그의 눈에 광대 차림의 한 남자가 거리에서 들고 다니는 거대한 광고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적힌 그 광고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 곡예단, 단장 윌리엄 바툴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공연, '긴 코! 긴 코!'를 선보입니다! 팅구 신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최고의 볼거리!

"미국이라니!" 파스파르투가 외쳤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던 곳이야!"

그는 광대를 따라갔고, 곧 다시 일본인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15분쯤 지나자 그는 커다란 오두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오두막은 여러

줄기 색띠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외벽에는 저글링을 하는 무리의 모습이 강렬한 색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원근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이곳은 윌리엄 바툴카 씨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바넘 같은 인물로, 곡예사, 저글러, 광대, 아크로바틱 단원, 외줄 타기 곡예사, 그리고 체조 선수들로 구성된 유랑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에 따르면, 이 극단은 태양의 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공연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안으로 들어가 바툴카 씨를 찾았고, 곧 바툴카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용건인가?" 그가 파스파르투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현지인으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인 한 명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파스파르투가 물었습니다.

"하인이라니!" 바툴카 씨가 턱 아래로 길게 늘어진 덥수룩한 회색 수염을 쓰다듬으며 외쳤습니다. "이미 말 잘 듣고 충직한 하인이 둘이나 있네. 그들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먹고살기 위해 나를 섬기고 있지. 자, 여기 있네." 그는 더블베이스 줄만큼이나 굵은 혈관이 툭 불거진 두 팔을 내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파스파르투가 물었습니다.

"없네."

"제기랄! 당신과 함께 태평양을 건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바툴카 씨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일본인이라니, 그건 내가 원숭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군! 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차림을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은 형편에 맞춰 옷을 입는 법이지요."

"그 말도 맞군. 당신, 프랑스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파리에서 온 파리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법도 알겠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파스파르투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국적이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킨 것이 조금 불쾌했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프랑스 사람들도 익살스러운 표정을 잘 짓기는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보다 딱히 더 잘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 좋아, 하인으로는 쓸 수 없겠지만 광대라면 몰라도 되겠어. 이보게 친구,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광대를 보여주고, 외국에서는 프랑스인 광대를 보여주는 법이라네."

"아!"

"힘이 꽤 센 모양이군, 그렇지?"

“특히 맛있는 음식을 든든히 먹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노래도 할 줄 아나?”

“네.” 예전에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던 파스파르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물구나무를 선 채로 노래도 할 수 있나? 왼발 위에서는 팽이를 돌리고, 오른발 위에는 칼을 세워 균형을 잡으면서 말이야.”

“흥! 그 정도야 할 수 있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젊은 시절 했던 체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 정도면 충분하군.” 윌리엄 바툴카 씨가 말했습니다.

고용 계약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체결되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마침내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일본 곡예단에서 공연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 품위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툴카 씨가 요란하게 광고한 공연은 세 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일본 악단의 귀가 먹먹해질 만큼 요란한 악기 소리가 문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파스파르투는 배역을 따로 공부하거나 연습할 시간도 없었지만, '팅구 신의 긴 코' 단원들이 선보이는 '인간 피라미드' 대공연에서 튼튼한 어깨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최고의 볼거리'는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었습니다.

세 시가 되기 전부터 유럽인과 현지인,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관객들이 커다란 창고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맞은편에 놓인 좁은 벤치와 칸막이 관람석으로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악사들은 무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징과 탐탐, 피리, 캐스터네츠, 탬버린, 그리고 거대한 북을 힘차게 연주했습니다.

공연은 여느 곡예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세계 최고의 외줄타기 곡예사라는 점만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 곡예사는 부채와 종이 조각을 이용해 나비와 꽃이 춤추는 듯한 우아한 묘기를 선보였다. 또 다른 이는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연기로 공중에 푸른 글자들을 써 내려갔는데, 그 글자들은 관객들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세 번째 곡예사는 불을 붙인 양초를 가지고 저글링을 했다. 그는 양초가 입술을 스칠 때마다 차례로 불을 껐다가, 저글링의 흐름을 단 한 순간도 끊지 않은 채 다시 불을 붙였다. 또 다른 이는 팽이를 이용해 아주 기이한 동작들을 재현해냈다. 팽이가 끝없이 회전하며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다. 팽이는 파이프대 위를 달리고, 칼날과 철사, 심지어 무대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머리카락 위까지 굴러갔다. 커다란 유리잔의 가장자리에서 회전하기도 하고, 대나무 사다리를 가로지르기도 했으며, 무대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기도 했다. 또한 팽이마다 각기 다른 음을 내며 돌아가면서 기묘한 음악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곡예사들이 팽이를 공중으로 던지고 나무채로 셔틀콕을 치듯 날려 보내도 팽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았다. 곡예사들이 팽이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도, 팽이는 여전히 이전처럼 힘차게 회전하고 있었다.

곡예사와 체조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공연을 일일이 묘사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다. 사다리나 장대, 공, 통 등을 이용한 회전 묘기는 경이로울 만큼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연의 백미는 유럽에서는 아직 생소한 구경거리인 '긴 코' 공연이었다.

'긴 코' 공연단은 팅구 신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는 독특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중세 시대 복장을 갖춰 입고 어깨에는 화려한 날개 한 쌍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돋보이게 한 것은 얼굴에 고정된 긴 코와 그 코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코들은 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길이는 5피트나 6피트, 심지어 10피트에 달하기도 했다. 어떤 것은 곧게 뻗어 있었고 어떤 것은 휘어져 있었으며, 리본을 두르거나 가짜 사마귀를 붙여 놓은 것도 있었다. 그들은 실제 코 위에 이 부속물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 체조 묘기를 선보였다. 팅구의 추종자 중 열두 명 정도가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워 있으면, 피뢰침 차림을 한 다른 단원들이 다가와 그 코 위에서 즐겁게 뛰어놀았다. 그들은 코와 코 사이를 옮겨 다니며 아주 능숙하게 도약하고 공중제비를 돌았다.

마지막 장면으로는 '인간 피라미드'가 예고되어 있었다. 50명의 '긴 코' 단원들이 거대한 저거너트 수레를 재현하는 공연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어깨 위로 올라가 피라미드를 만드는 대신, 단원들의 코 위에 올라타 무리를 지을 예정이었다. 마침 수레의 밑받침 역할을 하던 공연자가 단원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오직

힘과 민첩성만이 필요했기에 파스파르투가 그 역할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가여운 파스파르투는—젊은 시절을 떠올리니 참으로 애달픈 기억이었다!—알록달록한 날개가 달린 의상을 입고, 자신의 코에 6피트나 되는 가짜 코를 붙였을 때 정말이지 울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코 덕분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 저거너트 수레의 밑받침을 맡은 다른 단원들 곁에 자리를 잡았다. 단원들은 모두 바닥에 몸을 뉘었고, 그들의 코는 천장을 향해 솟아 있었다. 그 긴 코들 위에 두 번째 단원 무리가 자리를 잡았고, 그 위로 세 번째 무리가, 다시 그 위로 네 번째 무리가 차례로 올라갔다. 곧이어 극장의 천장 몰딩에 닿을 듯한 거대한 인간 기념물이 코들 위로 우뚝 솟아올랐다.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오케스트라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웅장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피라미드가 휘청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말았다. 아래쪽 코 하나가 피라미드에서 사라지자, 인간 기념물은 마치 카드로 만든 성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파스파르투의 잘못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더니, 날개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무대 앞 조명 기구들을 넘어갔다. 그러고는 오른쪽 관람석 쪽으로 기어 올라가 어느 관객의 발치에 엎드려 외쳤다.

"아, 주인님! 주인님!"

“여기 있었나?”

“저요.”

“좋네, 그럼 어서 증기선으로 가세, 젊은이!”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 그리고 파스파르투는 극장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바툴카 씨가 분노에 가득 차 서 있었다. 그는 피라미드가 '파손'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그에게 지폐 한 뭉치를 건네며 그를 진정시켰다.

여섯 시 반, 바로 배가 떠나는 정각에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가 미국행 증기선에 올랐다. 서두르느라 날개와 6피트 길이의 코를 채 떼지 못한 파스파르투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제XXIV장

포그 씨 일행의 태평양 횡단

도선선이 상하이 근처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요코하마행 증기선 선장은 '탄카데레'호가 보내는 신호를 이미 보았다. 깃발이 반쯤 내려간 것을 발견한 선장은 즉시 배의 방향을 그 작은 배 쪽으로 돌렸다. 필리어스 포그는 존 버스비에게 약속된 승선 요금을 지불하고, 그 성실한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550파운드를 추가로 더 얹어 주었다. 그러고는 아우다, 픽 형사와 함께 증기선에 올라탔다. 일행은 곧장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향해 출발했다.

일행은 11월 14일 아침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지체 없이 '카나틱'호에 올라탔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인 파스파르투가 바로 전날 그 배에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우다는 이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포그 역시 내심 기뻤을지 모르나,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행 증기선이 바로 그날 저녁에 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능하다면 지체 없이 파스파르투를 찾아야만 했다. 포그는 프랑스 영사와 영국 영사를 차례로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허사였다. 한참 동안 거리를 헤매던 그는 행방이 묘연해진 하인을 결국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 운명이었는지, 혹은 어떤 예감 때문이었는지, 그는 마침내 바툴카 씨가 운영하는 극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기이한 복장을 한 광대 차림의 파스파르투를 본다면 포그는 결코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등을 대고 누워 있던 파스파르투는 관람석에 있는 주인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는 바람에 코의 위치가 크게 틀어졌고, 그 탓에 '피라미드'가 무대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파스파르투는 이 모든 사실을 아우다에게서 전해 들었다. 아우다는 픽 형사와 동행하며 '탄카데레'호를 타고 홍콩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항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파스파르투는 그 이름을 듣고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픽 형사와 자신 사이에 벌어진 일을 주인에게 털어놓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왜 자리를 비웠는지 설명하면서, 홍콩의 한 술집에서 아편을 피우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포그는 아무 말 없이 냉담한 태도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는 파스파르투가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옷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내주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프랑스인 파스파르투는 가짜

코를 떼어내고 날개를 벗어 던졌으며, 팅구 신을 따르는 광대를 떠올리게 할 만한 것은 몸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요코하마를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할 예정인 증기선은 퍼시픽 메일 증기선 회사의 소유였으며, 이름은 '제너럴 그랜트'호였다. 이 배는 2,500톤급의 거대한 외륜 증기선으로,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고 속도 또한 매우 빨랐다. 갑판 위로는 거대한 워킹 빔이 위아래로 움직였고, 한쪽 끝에서는 피스톤 로드가 상하로 작동했다. 반대쪽 끝에는 연결봉이 달려 있었는데, 이 봉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패들 샤프트에 동력을 직접 전달했다. '제너럴 그랜트'호는 돛을 넉넉히 달 수 있도록 세 개의 돛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덕분에 증기 기관의 힘을 크게 보탤 수 있었다. 시속 12마일의 속력을 유지한다면 21일 만에 대양을 횡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리어스 포그는 12월 2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11일까지 뉴욕에, 그리고 20일까지 런던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렇게 되면 운명의 날인 12월 21일보다 몇 시간의 여유를 더 벌 수 있었다.

배에는 승객들이 가득했다. 영국인과 미국인이 많았고,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수많은 쿨리들과 세계 일주를 하며 휴가를 보내는 인도 출신 장교들도 여럿 타고 있었다. 항해 중에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대한 외륜의 힘으로 나아가는 증기선은 흔들림이 거의 없었으며, '퍼시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평온했다. 포그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과묵했다. 그의 젊은 동행인은 포그에게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감정을 느끼며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포그의 말 없는 관대함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

을 지켜주는 이 남자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밀려드는 감정에 몸을 맡겼다. 아우다는 포그의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의 여정을 늦출 것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안절부절못하며 초조해했다.

아우다는 파스파르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파스파르투는 여인의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렸다. 그는 더없이 충직한 하인이었기에, 필리어스 포그의 정직함과 관대함, 그리고 헌신에 대해 끊임없이 찬사를 늘어놓았다. 또한 그는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아우다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파스파르투는 이제 가장 어려운 구간은 다 지나갔다고 그녀를 달랬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기이한 나라들을 지나, 이제 다시 문명 세계로 향하는 길 위에 들어섰다는 말로 말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다시 뉴욕에서 리버풀로 향하는 대서양 횡단 증기선을 탄다면, 약속된 기간 안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 일주를 반드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요코하마를 떠난 지 아홉째 되는 날, 필리어스 포그는 지구의 정확히 절반을 가로질렀다. 11월 23일, '제너럴 그랜트'호는 동경 180도 경선을 통과하며 런던의 정반대 지점에 도달했다. 물론 포그 씨는 세계 일주를 마치는 데 주어진 80일 중 52일을 이미 소진했고, 남은 날은 28일뿐이었다. 하지만 경도 차이로만 따지면 이제 겨우 절반을 온 셈이었지만, 실제 이동 거리는 전체 여정의 3분의 2를 넘어서 있었다. 런던에서 아덴까지, 아덴에서 봄베이까지, 캘커타에서 싱가포르까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요코하마까지 오느라 긴 우회로를 거쳐야 했기 때

문이다. 만약 런던이 위치한 북위 50도 선을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동했다면 총거리는 약 12,000마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규칙한 이동 수단들 때문에 그는 26,000마일을 가로질러야만 했고, 11월 23일 기준으로 그는 이미 17,500마일을 주파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경로는 직선 구간이었으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픽스 형사도 더는 곁에 없었다!

또한 11월 23일, 파스파르투에게는 기쁜 발견이 하나 있었다. 그 고집스러운 사내가 자신의 유명한 회중시계만큼은 반드시 런던 시간으로 맞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쳐 온 나라들의 시간은 완전히 틀렸으며 믿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바로 이날, 시계 바늘을 바꾸지는 않았음에도 그의 시계가 배의 정밀한 크로노미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파스파르투는 환희에 차서 기뻐했다. 만약 픽스 형사가 배에 타고 있었다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지, 그는 정말 궁금할 지경이었다.

"그 악당이 내게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지." 파스파르투가 되풀이했다. "경도니, 태양이니, 달이니 하는 것들 말이야! 달이라니, 참나! 달은 무슨, 헛소리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시간 관리를 엉망으로 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태양도 내 시계에 맞춰 제 스스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지!"

파스파르투는 정작 자신이 왜 기뻐할 이유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만약 그의 회중시계가 이탈리아식 시계처럼 24시간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다면, 그는 결코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계 바늘이 지금

처럼 오전 9시를 가리키는 대신 저녁 9시를 가리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정으로부터 정확히 21시간이 지난 시각을 나타냈을 것이며, 이는 런던 시간과 180도 경선의 시간 차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설령 픽스 형사가 이 순수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파스파르투는 그 내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 그 순간 형사가 배에 타고 있었다면, 파스파르투는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아주 다른 방식으로 그와 맞붙었을 것이다.

그 순간 픽스 형사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실제로 '제너럴 그랜트'호에 타고 있었다.

요코하마에 도착한 픽스 형사는, 그날 중으로 다시 만나리라 예상하고 포그와 헤어진 뒤 곧장 영국 영사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체포 영장을 손에 넣었다. 영장은 봄베이에서부터 그를 따라왔는데, 다름 아닌 픽스 형사 자신이 타고 있어야 했던 증기선 '카나틱'호를 통해 도착해 있었다. 영장이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픽스 형사가 느꼈을 실망감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포그가 이미 영국 영토를 벗어났으니, 이제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새로 밟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좋아." 잠시 분노를 가라앉힌 픽스 형사가 생각했다. "여기서는 체포 영장이 소용없지만, 영국에 가면 쓸모가 있을 거야. 저 악당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고 믿고 제 나라로 돌아갈 속셈이 분명해. 좋아! 대서양을 건너는 그를 끝까지 뒤쫓아주지. 돈 문제는 하늘에 맡기자. 제발 남은 돈이 좀 있어야 할 텐데! 하지만 저 자는 이미 여행 경비와 현

상금, 재판비, 보석금, 코끼리 값 등 온갖 비용으로 5,000파운드 넘게 써버렸어. 그래도 뭐, 은행은 아주 부유하니까!"

행선지를 정한 픽스 형사는 '제너럴 그랜트'호에 올라탔다. 그는 포그와 아우다가 도착했을 때 배 안에 있었다.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가 연극용 분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자 재빨리 자신의 객실로 몸을 숨겼다. 그러고는 승객이 워낙 많으니 포그의 하인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는 선수 갑판에서 파스파르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파스파르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를 지켜보던 미국인 무리는 즉시 파스파르투에게 돈을 걸며 내기를 시작했고, 파스파르투는 그들을 한껏 즐겁게 하면서 픽스 형사에게 완벽한 연타를 퍼부었다. 이는 프랑스인의 권투 실력이 영국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파스파르투가 주먹질을 마친 뒤, 그는 비로소 마음이 후련하고 위안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픽스 형사는 옷매무새가 다 흐트러진 채 몸을 일으켰다. 그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나?"

"이번만큼은, 그렇다네."

"그렇다면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하지."

"하지만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말일세."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의 냉정함에 기가 눌린 듯했다. 그는 말없이 형사를 따라갔고, 두 사람은 다른 승객들과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를 아주 두들겨 팼군." 픽스 형사가 말했다. "좋아,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내 말을 잘 듣게. 지금까지 나는 포그 씨의 적이었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게임에 합류할 생각이야."

"아하!"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 픽스 형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악당이라고 생각하네. 쉿!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포그 씨가 영국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체포 영장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내 이익이었네. 그래서 그를 늦추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 봄베이의 신부들을 보내 그를 뒤쫓게 했고, 홍콩에서는 자네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그와 떨어뜨려 놓았으며, 요코하마에서 증기선을 놓치게까지 만들었네."

파스파르투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자," 픽스 형사가 말을 이었다. "포그 씨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모양이군. 좋아, 나도 그를 따라 영국까지 가겠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를 방해하기 위해 했던 짓만큼이나, 그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생각이라네. 알겠나? 내 계획을 바꾼 것이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자네의 이익도 나와 같네. 자네가 모시는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니면 정직한 사람인지는 오직 영국에 도착해야만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이제 친구인가?" 픽스 형사가 물었다.

"친구라고요? 아니요." 파스파르투가 대답했다. "어쩌면 동맹 관계라고 할 수는 있겠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배신할 기미가 보이면, 그땐 당신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픽스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열하루 뒤인 12월 3일, '제너럴 그랜트'호는 금문(Golden Gate) 만으로 들어서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포그 씨는 단 하루도 늦거나 앞당기지 않았다.

제XXV장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살짝 엿보다

필리어스 포그와 아우다, 그리고 파스파르투가 미국 대륙에 발을 내디딘 것은 오전 7시였다. 물론 그들이 내린 곳이 부두의 부유식 선착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곳을 대륙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 선착장 덕분에 배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착장 옆으로는 크고 작은 범선들과 여러 나라의 증기선들이 늘어서 있었고, 새크라멘토강과 그 지류를 오가는 여러 층의 갑판을 갖춘 증기선들도 보였다. 그곳에는 멕시코와 칠레, 페루, 브라질,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모든 섬까지 뻗어 있는 무역의 결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마침내 미국 대륙에 도착했다는 기쁨에 휩싸인 파스파르투는, 멋진 몸짓으로 위험천만한 도약을 선보이며 그 기분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벌레 먹은 나무판자 위로 굴러떨어졌고, 결국 그 판자들을 뚫고 밑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토록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신세

계에 '발을 내디디게' 된 처지에 당황한 파스파르투가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부유식 선착장에 늘 앉아 있던 수많은 가마우지와 펠리컨이 깜짝 놀라 소란스럽게 날아올랐다.

육지에 도착한 포그 씨는 뉴욕행 첫 열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 열차는 오후 6시에 출발했다. 덕분에 그는 캘리포니아의 주도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포그 씨는 3달러를 내고 마차를 빌려 아우다와 함께 올라탔다. 파스파르투는 마부 옆 마차 좌석에 올라앉았고, 일행은 인터내셔널 호텔을 향해 출발했다.

마차 좌석에 높이 올라앉은 파스파르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넓은 거리와 낮고 가지런히 늘어선 집들, 앵글로색슨 양식의 고딕풍 교회, 거대한 부두와 웅장한 목조 및 벽돌 창고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마차와 옴니버스, 마차 전차가 오갔고, 인도에는 미국인과 유럽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인도인들도 가득했다. 파스파르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샌프란시스코는 더 이상 약탈을 좇아 몰려들었던 도적과 암살자, 방화범들의 도시로 알려진 1849년의 전설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한 손에는 권총을, 다른 한 손에는 보위 나이프를 든 채 금가루를 걸고 도박을 벌이던 무법자들의 낙원도 아니었다. 이제 이곳은 거대한 상업 중심지로 변모해 있었다.

시청의 높은 탑에서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리와 대로가 만들어내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길 사이사이에는 푸르고 싱그러운 광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마치 중국에서 장난감 상자에 담아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차이나타운이 보였다. 솜브레로 모

자나 붉은 셔츠, 깃털 장식을 한 인디언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초조한 듯 분주히 움직이는 신사 차림의 남성들이 실크 햇과 검은 코트를 입고 도처에 가득했다. 어떤 거리들, 특히 몽고메리 거리는 런던의 리전트 스트리트, 파리의 이탈리앵 대로,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각자의 도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대로 지닌 곳이었다. 화려하고 널찍한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진열창에는 전 세계에서 건너온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파스파르투가 인터내셔널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영국을 떠난 적이 없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호텔 1층에는 커다란 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일종의 식당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말린 소고기와 굴 스프, 비스킷, 치즈를 맛볼 수 있었다. 오직 마신 에일이나 포터, 혹은 셰리주에 대해서만 값을 치르면 되었다. 파스파르투가 보기에 이런 방식은 "매우 미국적"이었다. 호텔의 식당은 안락했다. 포그와 아우다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아주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이 작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 정성껏 대접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포그는 아우다와 함께 여권에 사증을 받기 위해 영국 영사관으로 향했다. 영사관으로 출발하려던 길에 그는 파스파르투를 만났다. 파스파르투는 기차를 타기 전에 엔필드 소총과 콜트 리볼버를 수십 자루쯤 미리 사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수(Sioux)족과 파우니(Pawnee)족이 기차를 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이었다. 포그는 그런 대비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파스파르투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한 뒤, 영사관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채 이백 걸음도 채 옮기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기막힌 우연"으로 픽스 형사와 마주쳤다. 픽스 형사는 무척이나 놀란 기색이었다. 아니, 포그와 자신이 태평양을 함께 건너왔으면서 정작 증기선 안에서는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적어도 픽스 형사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이 신사를 다시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게다가 업무 때문에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토록 즐거운 일행과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았다.

포그는 오히려 자신이 영광이라며 답했다. 그러자 포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픽스 형사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함께 걷게 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포그는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했다.

그들은 곧 거대한 인파가 모여 있는 몽고메리 거리에 다다랐다. 보도와 도로, 전차 선로와 상점 문, 집들의 창문은 물론 지붕 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남자들은 커다란 포스터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깃발과 장식용 띠가 바람에 휘날렸다. 사방에서는 여기저기서 떠들썩한 외침이 들려왔다.

“카머필드를 위하여, 만세!”

“맨디보이를 위하여, 만세!”

그것은 정치 집회였다. 적어도 픽스 형사의 추측은 그러했다. 그는 포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중 속에 섞이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포그 씨가 대답했다. "주먹질이란 정치적인 것이라 해도 결국 주먹질이니까요."

픽스 형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일행은 사람들에게 떠밀리지 않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 몽고메리 거리 끝자락에 있는 계단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거리 건너편, 석탄 부두와 석유 창고 사이에는 커다란 야외 무대가 세워져 있었고, 군중의 물결은 모두 그 무대를 향해 흘러가는 듯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모인 것일까? 이토록 흥분한 군중이 모여든 이유는 무엇일까? 필리어스 포그로서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주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관직자를 지명하려는 자리였을까? 눈앞의 군중이 워낙 격앙되어 있었기에,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인파 속에서 이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공중으로 치켜들었다. 어떤 이들은 주먹을 꽉 쥐기도 했는데, 함성 속에서 그 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듯 보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투표를 하는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군중은 뒤로 출렁였고, 현수막과 깃발들은 흔들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너덜너덜해진 채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물결이 계단까지 밀려들었고, 돌풍을 만난 바다처럼 수많은 머리가 수면 위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검은 모자들이 여럿 사라졌고, 군중의 키도 대체로 낮아진 듯 보였다.

"분명히 어떤 집회군요." 픽스 형사가 말했다. "목적도 아주 흥미진진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앨라배마호'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어요. 비록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포그 씨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적어도 지금 저기 두 명의 대표가 마주 서 있군요. 카머필드 의원과 맨디보이 의원 말입니다."

아우다는 포그 씨의 팔에 몸을 기댄 채 놀란 눈으로 소란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사이 픽스 형사는 근처에 있던 사람에게 이 소동이 왜 일어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새로운 소란이 일었다. 환호성과 흥분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고, 깃발의 장대들이 공격 무기로 휘둘러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주먹다짐이 오갔다. 인파에 가로막힌 마차와 옴니버스 위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구두와 신발이 공중을 휘저으며 날아다녔고, 포그 씨는 소음 사이로 권총이 발사되는 파열음까지 들은 것 같았다. 몰려든 인파는 계단 쪽으로 몰려들더니 아래쪽 계단까지 쏟아져 내려왔다. 어느 한쪽이 패퇴한 것이 분명해 보였으나, 구경꾼들로서는 맨디보이 의원과 카머필드 의원 중 누가 승기를 잡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만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픽스 형사가 말했다. 그는 포그 씨가 적어도 런던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어떤 부상도 입지 않기를 바랐다. "만약 이 소동 중에 영국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정체가 탄로 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봐 걱정되는군요."

"영국 국민이라니요—" 포그 씨가 말을 시작했다.

포그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들이 서 있는 계단 뒤편 테라스에서 갑자기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맨디보이를 위하여! 히프, 히프, 만세!"라는 광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맹군을 구하러 온 유권자 무리였으며, 카머필드 측의 측면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포그 씨와 아우다, 그리고 픽스 형사는 양측의 공격이 교차하는 지점에 끼어버렸고, 이미 피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장대와 지팡이를 무기 삼아 든 사람들의 물결은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필리어스 포그와 픽스 형사는 아름다운 동행인을 보호하려 애쓰는 와중에 거칠게 떠밀렸다. 포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팔 끝에 타고나는 무기, 곧 주먹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붉은 수염에 상기된 얼굴, 넓은 어깨를 가진 건장한 사내 하나가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다. 그 사내가 포그 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던 찰나, 픽스 형사가 급히 뛰어들어 대신 맞았다. 픽스 형사의 실크 모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고, 그 아래에는 곧바로 거대한 멍이 올라왔다.

"양키!" 포그 씨가 그 무뢰한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외쳤다.

"영국놈!" 상대방이 맞받아쳤다. "다음에 다시 보자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이름이 뭐냐?"

"필리어스 포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탬프 프록터 대령이다."

인파의 물결이 픽스 형사를 휩쓸고 지나갔다. 픽스 형사는 옷이 여기저기 찢어졌지만, 재빨리 다시 일어섰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다만 그가 입은 여행용 오버코트는 양쪽 길이가 맞지 않게 찢어졌고, 바지는 입기는 편해도 몸에 딱 맞지는 않는 인도인들의 옷처럼 변해 있었다. 아우다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픽스 형사만이 검푸른 멍이 든 채 싸움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고맙소." 인파에서 벗어나자마자 포그 씨가 픽스 형사에게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그보다 어서 갑시다."

"어디로 말입니까?"

"양복점으로 갑시다."

그 방문은 참으로 적절했다. 포그와 픽스 형사의 옷차림은 마치 두 사람이 카머필드와 맨디보이 사이의 싸움에 직접 뛰어든 것처럼 누더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간 뒤, 두 사람은 다시 말끔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아우다와 함께 인터내셔널 호텔로 돌아갔다.

파스파르투는 여섯 발들이 리볼버 여섯 자루를 무기로 챙겨 든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픽스 형사를 발견하자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아우다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짧게 설명해주자, 파스파르투의 얼굴은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픽스 형사는 분명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아군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승객들과 짐을 역까지 실어 나를 마차가 호텔 문 앞에 멈춰 섰다. 마차에 올라타던 포그는 픽스 형사에게 물었다. "그 프로크터 대령을 다시 만난 적은 없소?"

"없었소."

"그를 찾으러 다시 미국에 오겠소." 필리어스 포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영국인이 보복조차 하지 않고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픽스 형사는 미소를 지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포그 씨는 명백히 그런 부류의 영국인이었다. 본국에서는 결투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해외에서 명예가 공격받으면 기꺼이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5시 45분, 여행객들은 역에 도착했고 열차가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했다. 포그 씨가 열차에 올라타려던 찰나, 그는 역무원을 불러 물었다. "여보게,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소동이 있지 않았나?"

"정치 집회였습니다, 손님." 역무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거리 곳곳이 아주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선거를 위해 모인 집회였을 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총사령관을 선출하는 선거였겠지요?" 포그 씨가 물었다.

"아닙니다. 치안 판사를 뽑는 선거였습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기차에 올라탔고, 기차는 곧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제XXVI장

필리어스 포그와 일행, 태평양 철도를 타고 여행하다

"대양에서 대양까지."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마디는 미국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간선 철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태평양 철도는 실제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노선으로 나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그던 사이를 잇는 센트럴 퍼시픽 노선, 그리고 오그던과 오마하 사이를 잇는 유니언 퍼시픽 노선이 그것입니다. 오마하와 뉴욕 사이에는 다섯 개의 주요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3,786마일에 달하는 끊이지 않는 철길로 하나로 이어집니다. 오마하와 태평양 사이에서 철도는 여전히 인디언과 야생 동물들이 들끓는 영토를 가로지릅니다. 또한 이곳은 1845년 일리노이에서 쫓겨난 모르몬교도들이 개척하기 시작한 광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데 적어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더 남쪽 노선을 원했던 남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위 41도와 42도 사이를 지나는 철길을 놓기로 결정한 것은 1862년의 일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를 노선의 종착점으로 직접 정했습니다. 공사는 즉시 시작되었고, 진정한 미국식 에너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공사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길을 놓는 작업은 결코 부실하지 않고 견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초원 지대에서 철길은 하루에 1.5마일씩 늘어났습니다. 전날 저녁에 깔아둔 선로 위를 기관차가 달려오면, 다음 날 깔아야 할 선로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선로가 제자리에 놓이는 즉시 기관차는 그 뒤를 바짝 뒤쫓아 나아갔습니다.

태평양 철도는 아이오와, 캔자스, 콜로라도, 그리고 오리건에서 여러 지선과 연결됩니다. 이 노선은 오마하를 떠나 플랫강의 왼쪽 강둑을 따라 북쪽 지선이 만나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서부터는 남쪽 지선을 따라가며, 라라미 영토와 와사치 산맥을 가로지릅니다. 이어 그레이트솔트호의 가장자리를 돌아 모르몬교의 수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 도달합니다. 그 후 튈라 계곡으로 급강하하여 아메리카 사막과 시더 산맥, 험블트 산맥, 그리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가로지릅니다. 마침내 새크라멘토를 거쳐 태평양 연안으로 내려가는데, 로키산맥 구간에서조차 경사도는 1마일당 112피트를 넘지 않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길을 단 7일 만에 주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필리어스 포그가—적어도 그는 그렇게 희망했습니다—11일에 뉴욕에서 대서양 횡단 증기선을 타고 리버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객차는 여덟 개의 바퀴를 갖춘 일종의 긴 옴니버스 형태였으며, 내부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두 줄씩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좌석들은 열차 진행 방향과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통로는 열차의 앞뒤에 있는 플랫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열차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은 열차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객차에는 살롱 칸, 발코니 칸, 식당 칸, 그리고 흡연 칸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극장 칸만 없을 뿐이었는데, 언젠가는 극장 칸도 생겨날 것입니다.

서적과 신문을 파는 상인, 그리고 음식과 음료, 시가 등을 파는 상인들이 통로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아주 많은 듯 보였습니다.

열차는 6시에 오클랜드 역을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눈이라도 쏟아질 듯 구름이 잔뜩 뒤덮여 있었고, 밤은 이미 찾아와 차갑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열차는 빠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춰 선 시간까지 계산하면 시속 20마일을 넘지 못하는 속도였으나, 정해진 시간 안에 오마하에 도착하기에는 충분한 속도였습니다.

객차 안은 대화가 거의 없었고, 곧 많은 승객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픽스 형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

다. 하지만 그는 형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겪은 일들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냉랭해졌으며, 더 이상 서로 공감하거나 친밀하게 지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픽스 형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나, 파스파르투는 매우 말을 아끼며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예전의 친구였던 그를 목 졸라 죽일 기세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한 시간 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 고운 눈이었기에 열차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하얀 배경 위로 기관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회색빛으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8시가 되자 승무원이 객차로 들어와 취침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분 만에 객차는 거대한 침실로 변했습니다. 좌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졌고, 정교한 장치를 통해 꼼꼼하게 포장된 침대 틀이 굴러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침상들이 마련되었으며, 여행객들은 곧 두꺼운 커튼으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안락한 침대를 각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는 깨끗했고 베개는 폭신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할 일만 남았고, 열차는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질러 속력을 내며 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사이의 지형은 그리 험하지 않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철도는 새크라멘토를 기점으로 삼아, 오마하에서 오는 철로와 만날 때까지 동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새크라멘토로 이어지는 노선은 산 파블로만으로 흘러드는 아메리칸 강을

따라 북동쪽 방향으로 달립니다. 두 도시 사이의 120마일 구간은 6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여행객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자정 무렵, 열차는 새크라멘토를 통과했습니다. 덕분에 여행객들은 주 정부가 위치한 그 중요한 도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멋진 부두와 넓은 거리, 웅장한 호텔과 광장, 그리고 교회들이 즐비한 그 도시의 풍경을 말입니다.

열차는 새크라멘토를 떠나 로클린, 오번, 콜팩스 교차점을 지나 시에라 네바다 산맥 지대에 들어섰습니다. 오전 7시에 시스코에 도착했고, 한 시간 뒤에는 침실이었던 객차가 다시 일반 객차로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여행객들은 열차가 질주하며 지나가는 산악 지대의 그림 같은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철로는 고갯길 사이를 구불구불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산비탈에 바짝 붙어 달렸고,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매달리듯 지나갔습니다. 급격한 경사를 피하려 대담한 곡선을 그리기도 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좁은 협곡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굴뚝에서 기묘한 빛을 내뿜는 기관차는 날카로운 종소리를 울리고, 박차처럼 튀어나온 배장기를 앞세운 채 달렸습니다. 기관차의 비명 같은 경적과 포효는 세차게 쏟아지는 급류와 폭포 소리에 뒤섞였고, 뿜어져 나온 연기는 거대한 소나무 가지들 사이로 엉겨 붙었습니다.

경로상에 교량이나 터널은 거의 없었습니다. 철로는 산의 비탈을 따라 굽이쳐 돌았을 뿐, 지점과 지점 사이를 최단 거리로 가로지르며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오전 9시경 카슨 밸리를 지나 네바다주로 들어섰으며, 줄곧 북동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리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느라 20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철로는 험블트 강을 따라 흐르며, 강둑을 끼고 북쪽으로 몇 마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네바다주의 거의 동쪽 끝 경계에 맞닿은 험블트 산맥에 다다를 때까지 줄곧 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포그 씨와 일행은 다시 객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열차가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자 창밖으로는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을 따라 늘어선 산맥과 거품을 일으키며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거대한 버팔로 떼가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며 몰려다니는 수많은 짐승은 종종 열차의 통행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수천 마리의 버팔로가 빽빽한 대열을 이루며 몇 시간 동안이나 선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기관차는 선로가 다시 비워질 때까지 멈춰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그 씨가 타고 있던 열차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 무렵, 만 마리에서 만 이천 마리에 달하는 버팔로 떼가 선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기관차는 속도를 줄이며 앞부분에 달린 배장기(cow-catcher)로 길을 터보려 애썼지만, 짐승들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버팔로들은 이따금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평온한

걸음걸이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특정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그 행로를 늦추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어떤 댐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살아있는 육체의 급류와도 같았습니다.

여행객들은 객차의 승강대에 서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서둘러야 했던 필리어스 포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버팔로들이 제 발로 길을 비켜줄 때까지 철학적인 태도로 느긋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버팔로들 때문에 여정이 지체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리볼버들을 꺼내어 그 짐승들에게 한바탕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나라로군!" 그가 외쳤습니다. "짐승 떼가 기차를 가로막고는, 마치 여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듯이 줄지어 지나가다니! 세상에나! 포그 씨가 세운 계획에 _이런_ 돌발 상황까지 들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할 지경이야! 게다가 저 기관사는 이 짐승 떼를 향해 기관차를 밀어붙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잖아!"

기관사는 장애물을 돌파하려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앞부분의 소뿔로 버팔로들을 들이받아 뭉개버릴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리 강력한 기관차라 해도 곧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열차는 필연적으로 선로를 이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인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장애물이 사라지면 더 빠른 속도로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팔로 떼가 줄지어 지나가는 상황은 무려 세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선로가 비워졌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뒤였습니다. 버팔로 무리의 맨 뒷줄이 이제 막 선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맨 앞줄은 이미 남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열차가 훔볼트 산맥의 험준한 협곡을 통과했을 때는 8시였고, 모르몬교도들의 기이한 집단 거주지인 그레이트솔트호 지역, 즉 유타주에 들어섰을 때는 9시 반이었습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VII장

파스파르투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몰아치는 모르몬교 역사 수업을 듣다

12월 5일 밤, 열차는 남동쪽으로 약 50마일을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북동쪽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올라가 거대한 소금 호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9시쯤 되자 파스파르투는 바람을 좀 쐬려고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눈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안개 때문에 부풀어 오른 태양의 형체는 마치 거대한 황금 고리처럼 보였습니다. 파스파르투가 그 고리의 가치를 파운드화로 환산하며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을 때, 플랫폼에 기이한 차림새의 인물이 나타나 그의 흥미로운 계산을 방해했습니다.

엘코에서 열차에 올라탄 이 인물은 키가 크고 피부가 검었으며, 검은 콧수염에 검은 스타킹, 검은 실크 모자, 검은 조끼, 검은 바지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흰색 크라바트와 개가죽 장갑까지 갖추고 있어, 언뜻 보면 성직자로 착각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열차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칸마다 있는 문에 손글씨로 쓴 공고문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파스파르투는 다가가 공고문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모르몬교 선교사인 윌리엄 히치 장로가 48번 열차에 탑승한 기회를 빌려, 11시부터 12시까지 117번 칸에서 모르몬교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후기 성도' 교단의 신비로운 교리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든 참석해 달라고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봐야겠어." 파스파르투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모르몬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 관습 외에는 그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은 약 100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열차 안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공고문에 이끌린 승객 중 많아야 서른 명 정도가 117번 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파스파르투도 앞쪽 좌석 중 하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그 씨와 픽스 형사는 강연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윌리엄 히치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누군가에게 반박이라도 당한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조셉 스미스는 순교자입니다. 그

의 형제 히람 역시 순교자이지요. 또한 미국 정부가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행위는 결국 브리검 영 또한 순교자로 만들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말에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교사의 격앙된 어조는 본래 차분한 그의 얼굴 표정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었기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마도 모르몬교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독립적인 광신도들을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겨우 성공한 참이었습니다. 정부는 브리검 영을 반역과 일부다처죄 혐의로 투옥한 뒤, 유타를 장악하여 그 영토를 연방의 법률 아래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언자의 제자들은 더욱 힘을 쏟으며, 적어도 말로만이라도 의회의 권위에 저항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히치 장로는 바로 이 열차 안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큰 목소리로 강조하며 빈번하게 손짓을 섞어, 성서 시대부터 시작되는 모르몬교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셉 지파의 한 모르몬 예언자가 새로운 종교의 연대기를 기록하여 그의 아들 모르몬에게 물려주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 세기가 지난 후, 이집트어로 쓰인 이 귀중한 책을 번역한 이가 바로 버몬트의 농부였던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는 1825년에 신비로운 예언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요컨대, 빛나는 숲속에서 천상의 전령이 그에게 나타나 주님의 연대기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선교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객차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히치 장로는 강연을 계속하며, 조셉 스미스 주니어가 그의 아버지와 두 형제, 그리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후기 성도 교회'를 세웠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인도 교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오하이오에 식민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 20만 달러를 들여 성전을 건립했으며, 커클랜드에 마을을 건설한 과정도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스미스가 어떻게 진취적인 은행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평범한 미라 구경거리 상인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유명한 이집트인들이 기록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장로의 이야기는 다소 지루해졌고, 청중도 점차 줄어들어 결국 스무 명의 승객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37년 조셉 스미스가 파산했던 사건과, 그에게 원한을 품은 채권자들이 그에게 타르와 깃털을 뒤집어씌우며 모욕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몇 년 후, 스미스가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명예롭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과정도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은 3,000명의 제자가 모여 사는 번창한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어 그는 분노한 이방인들의 추격을 피해 스미스가 서부 먼 곳으로 은둔해야 했던 사연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청중은 단 열 명뿐이었고, 그중에는 온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고 있는 정직한 파스파르투도 있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랜 박해를 겪은 뒤 스미스가 일리노이주에 다시 나타났으며, 1839년 미시시피강 유역의 나부에서 2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공동체를 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미스는 그곳에서 시장과 수석 판사, 그리고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는 1843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결국 카르타고에서 매복 공격을 받아 투옥되었고 가면을 쓴 무리에게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객차에는 파스파르투만이 유일한 청중으로 남았습니다. 장로는 파스파르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영감을 받은 예언자 조셉 스미스가 암살당하고 2년 뒤, 그의 후계자인 브리검 영이 나부를 떠나 그레이트솔트호 기슭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비옥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경로와 바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는 모르몬교도들이 행하는 일부다처제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윌리엄 히치 장로가 덧붙였습니다. "의회가 우리를 질투하며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방의 군대들이 왜 유타의 땅을 침범했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인 브리검 영이 왜 모든 정의를 무시한 채 투옥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무력에 굴복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버몬트에서 쫓겨나고,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미주리, 그리고 유타에서까지 쫓겨났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천막을 칠 수 있는 독립된 영토를 찾아낼 것입니다." 장로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유일한 청중인 파스파르투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

니다. “형제여, 당신 또한 우리 깃발의 그늘 아래 그곳에 당신의 천막을 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파스파르투가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객차를 빠져나왔고, 장로는 텅 빈 객차를 향해 홀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열차는 순조롭게 나아갔고, 12시 반 무렵에는 그레이트솔트레이크의 북서쪽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승객들은 이곳에서 사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내해의 광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의 요르단강이라 불리는 강물이 흘러듭니다. 거대한 층을 이룬 높은 암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하얀 소금이 겉면에 내려앉은 이 호수는 참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한때 이 물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해안선이 밀려 들어온 탓에 폭은 좁아지고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길이가 70마일, 너비가 35마일에 달하는 솔트레이크는 해수면보다 3마일 800피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1,200피트 낮은 곳에 자리 잡은 애스팔타이트 호수와는 판이한 모습입니다. 이 호수에는 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어, 물 무게의 4분의 1이 고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중은 1,170이며, 증류한 후에는 1,000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물고기는 이 호수에서 살 수 없으며, 요르단강이나 웨버강 등 다른 하천을 타고 흘러 들어온 물고기들도 곧 죽고 맙니다.

호수 주변의 땅은 경작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몬교도 대부분이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6개월만 더 지났더라면 가축을 기르는 목

장과 우리, 밀과 옥수수 및 기타 곡식이 자라는 들판, 무성한 초원, 들장미 울타리, 그리고 아카시아와 밀크워트 군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면이 얇게 내려앉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열차는 2시에 오그던에 도착하여 6시간 동안 정차했습니다. 덕분에 포그와 일행은 지선 도로로 연결된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색적인 미국식 도시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도시는 연방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체스판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표현했듯, "직각이 만들어내는 어둑한 슬픔"이 깃든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도시를 세운 설립자 역시 앵글로색슨족 특유의 대칭을 선호하는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도만큼은 훌륭하지만 사람들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낯선 나라에서는 도시와 집, 심지어 어리석은 행동조차도 모두 "반듯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은 3시가 되자 요르단 강변과 와사치 산맥의 줄기 사이에 세워진 이 도시의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교회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예 없었지만, 예언자의 저택과 법원, 그리고 병기창만큼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베란다와 현관이 딸린 푸른 벽돌집이었으며, 아카시아와 종려나무, 로커스트나무로 가장자리를 두른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853년에 쌓은 진흙과 자갈 담장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고, 중심가에는 시장과 정자로 장식된 여러 호텔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는데, 울타리로 둘러싸인 여러 구역을 지나 성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많이 보였는데, 이는 모르몬교의 '특이한 제도' 때문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모르몬교도가 일부다처제를 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유타주의 여성 시민들이 유독 결혼에 열성적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모르몬교 교리에 따르면, 미혼 여성은 종교가 선사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들은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의심할 여지 없이 좀 더 부유한 이들이겠지요—후드나 수수한 숄을 쓰고 짧고 트인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인디언 방식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한 명의 모르몬교도에게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 무리지어 몰려드는 저 여인들을 보며 내심 겁이 났습니다. 상식적인 그로서는 무엇보다 남편이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 속에서 저토록 많은 아내를 한꺼번에 이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마치 한 무리의 여인을 이끌고 모르몬의 낙원으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가면 영광스러운 스미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스미스는 그 즐거운 낙원을 장식하는 가장 빛나는 존재일 것이고, 여인들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게 될 터였습니다. 파스파르투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라면 질색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어쩌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솔트

레이크시티의 미인들이 자신을 꽤나 경계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머무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4시가 되자 일행은 다시 역에 도착해 열차에 올라탔고,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관차의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멈춰! 멈춰!"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열차는 시간과 조수처럼 그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고 흘러갑니다. 외침을 내뱉은 신사는 분명 열차를 놓칠 뻔한 모르몬교도였습니다. 그는 달려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역에는 문이나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로를 따라 달려가 열차 뒷부분의 플랫폼으로 뛰어올랐고, 기진맥진한 채 좌석 중 하나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아마추어 체조 선수의 움직임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파스파르투는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집안에서 벌어진 불쾌한 소동을 피해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몬교도가 숨을 고르자, 파스파르투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는지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빠져나온 기색을 보니, 적어도 스무 명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뿐입니다, 선생님.” 모르몬교도가 두 팔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명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VIII장

파스파르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장

열차는 오그던에서 그레이트솔트호(Great Salt Lake)를 떠나 북쪽으로 한 시간 동안 달려 웨버강에 이르렀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지 거의 900마일을 주파했다. 이후 열차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험준한 와사치산맥을 향해 나아갔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철도를 놓으며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던 구간이 바로 이 산맥과 로키산맥 사이였다. 그래서 정부는 평원 지대 공사에 지급하던 마일당 1만 6천 달러 대신, 이 구간에는 마일당 4만 8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대신,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대신 길을 구불구불하게 내어 그 험난함을 피해 갔다. 거대한 분지에 도달하기 위해 뚫은 터널은 길이가 1만 4천 피트에 달하는 것이 단 하나뿐이었다.

지금까지의 철로 중 가장 높은 고도는 그레이트솔트호 지점이었다. 여기서부터 철로는 길게 곡선을 그리며 비터크리크 계곡을 향해 내려갔다. 그러고는 다시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분수령인 능선 위로 올라갔다. 이 산악 지대에는 수많은 개울이 있었기에, 철로는 암거를 통해 머디크리크와 그린크리크 등 여러 개울을 건너야 했다.

파스파르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초조해졌다. 반면 픽스 형사는 이 험난한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는 필리어스 포그 본인보다도 더 간절하게, 지연이나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국 땅을 밟기를 갈망했다.

밤 10시에 열차는 포트 브릿저 역에 멈춰 섰고, 20분 뒤에는 비터크리크 계곡을 따라 와이오밍 영토로 진입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열차는 그린리버 역에서 15분 동안 정차했다. 밤사이 눈이 듬뿍 내렸으나 비와 섞여 반쯤 녹은 덕분에 여정에 차질은 없었다. 하지만 악천후는 파스파르투를 짜증 나게 했다. 눈이 쌓여 객차 바퀴를 막아버리기라도 한다면, 포그 씨의 여행은 분명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주인님은 왜 하필 겨울에 이 여행을 떠나신 걸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날씨가 좋은 계절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착한 프랑스인이 하늘의 상태와 기온이 떨어지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아우다는 전혀 다른 이유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린리버에서 몇몇 승객이 내려 승강장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아우다는 그들 사이에서 스탬프 프로크터 대령을 발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모임에서 필리어스 포그를 그토록 무례하게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젊은 여인은 자신이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발견의 충격에 놀라며 창가에서 몸을 뒤로 뺐다. 그녀는 포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비록 그가 차갑게 대할지언정, 포그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마도 보호자인 포그가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감정을 그저 감사함이라 불렀지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뿐 그것은 사실 감사 그 이상이었다. 포그가 조만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 남자를 알아차리자, 아우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프로크터 대령이 이 열차에 탄 것은 분명 순전히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필리어스 포그가 그의 적수를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만 했다.

아우다는 포그 씨가 잠든 틈을 타 픽스 형사와 파스파르투에게 자신이 누구를 보았는지 말하였다.

"프로크터 대령이 이 열차에 있다니요!" 픽스 형사가 외쳤다. "자,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자가 포그 씨와 결판을 내기 전에, 먼저 저를 상대해야 할 테니까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 중 더 모욕을 당한 쪽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스파르투가 덧붙였다. "그가 대령이라 해도,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픽스 형사님," 아우다가 말을 이었다. "포그 씨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대신해 복수하게 두지 않을 분이에요. 포그 씨는 그 남자를 찾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걸요. 만약 포그 씨가 프로크터 대령을 알아본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충돌을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포그 씨가 그를 절대 마주치게 해서는 안 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부인."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그 씨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결국 일정에 차질이 생길 테니까요. 그러면—"

"게다가," 파스파르투가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리폼 클럽 신사들의 내기가 무색해지고 말 겁니다. 나흘 뒤면 우리는 뉴욕에 도착합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그 나흘 동안 이 객차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운명의 장난으로 그 망할 미국인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주인님께서 객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대화는 끊겼다. 필리어스 포그는 막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파스파르투는 주인님이나 아우다에게 들리지 않도록 픽스 형사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정말로 그분을 위해 싸워주실 겁니까?"

"그를 무사히 유럽으로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픽스 형사가 단호한 의지가 담긴 어조로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파스파르투는 몸에 전율이 일듯한 것을 느꼈으나, 주인에 대한 신뢰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포그 씨와 대령이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를 열차 칸 안에 붙들어 둘 방법은 없을까? 그 신사가 워낙 정적인 성격인 데다 호기심도 별로 없으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터였다. 픽스 형사는 일단 방법을 찾아낸 듯 보였다. 잠시 후, 그는 포그 씨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철도를 타고 가는 이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지루하군요."

"그렇습니다." 포그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지요."

"증기선을 타고 가실 때도 휘스트 게임을 즐기곤 하셨지요?" 픽스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임을 하기는 쉽지 않겠군요. 카드도 없고 함께할 상대도 없으니까요."

"오, 하지만 카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열차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부인께서 함께해주신다면—"

"물론입니다, 선생님." 아우다가 재빨리 대답했다. "휘스트 게임은 할 줄 압니다. 영국식 교육의 일환이니까요."

"저 역시 제법 실력이 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 세 명이 모였으니, 나머지 한 명은 더미로 두고—"

"좋을 대로 하시지요."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그는 기차 안에서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뻤다.

파스파르투는 승무원을 찾아 나섰고, 곧 카드 두 덱과 핀 몇 개, 카운터, 그리고 천을 덮은 선반을 가지고 돌아왔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아우다는 휘스트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포그 씨로부터 실력이 좋다는 칭찬까지 받았다. 한편 픽스 형사는 그야말로 달인이었기에, 지금 맞붙은 상대와 대등하게 겨룰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제 됐다." 파스파르투는 생각했다. "드디어 그를 붙잡았어. 이제 그는 꿈쩍도 하지 못할 거야."

오전 11시, 열차는 해수면으로부터 7,524피트 높이에 위치한 브릿저 고개를 넘어 분수령에 도달했다. 이곳은 로키산맥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도달하는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였다. 약 200마일을 더 나아간 끝에, 여행객들은 마침내 대서양까지 펼쳐진 광활한 평원에 들어섰다. 자연이 철도를 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땅이었다.

대서양 분지의 경사면을 따라 노스 플랫 강 지류인 첫 물줄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쪽과 동쪽의 지평선 전체는 로키산맥의 남쪽 부분이 형성한 거대한 반원형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중 가장 높은 곳은 라라미 봉우리였다. 이 산맥과 철로 사이에는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미주리 강의 거대한 지

류 중 하나인 아칸소 강의 발원지까지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낮은 줄기들이 솟아 있었다.

12시 30분, 여행객들은 그 지역을 내려다보는 할렉 요새를 잠시 목격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로키산맥을 통과했다. 험난한 지형을 지나는 여정에 아무런 사고도 없기를 바랄 만한 상황이었다. 눈은 그쳤고, 공기는 차갑고 상쾌해졌다. 기관차가 내는 소리에 놀란 커다란 새들이 멀리 날아올랐다. 평원 위로 야생 동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광활하고 황량한 사막과도 같았다.

객차 안에서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필리어스 포그와 일행은 막 휘스트 게임을 다시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열차가 멈춰 섰다. 파스파르투가 문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살펴보았지만, 열차가 멈출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 역도 보이지 않았다.

아우다와 픽스 형사는 포그가 갑자기 열차 밖으로 나가려 할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포그는 그저 하인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게"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만두었다.

파스파르투가 객차 밖으로 급히 달려 나갔다. 이미 서른 명에서 마흔 명 정도의 승객이 열차에서 내린 상태였는데, 그중에는 스탬프 프로크터 대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열차는 길을 가로막은 붉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다. 기관사와 차장은 신호수와 흥분한 기색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신호수는 다음

정차역인 메디신 보의 역장이 미리 보내온 사람이었다. 승객들은 그 주위로 모여들어 논의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도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프로크터 대령이 단연 눈에 띄었다.

파스파르투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무리에 합류했다. 그는 신호수가 하는 말을 들었다. "안 됩니다! 통과할 수 없어요. 메디신 보에 있는 다리가 흔들거려서 열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 다리는 현재 위치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 급류 위로 길게 뻗은 현수교였다. 신호수의 말에 따르면, 철제 와이어 몇 개가 끊어져 다리가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호수가 다리의 상태를 과장해서 말한 것도 아니었다. 평소 무모하기로 유명한 미국인들이 이토록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파스파르투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주인에게 감히 알리지 못한 채,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이를 악물고 귀를 기울였다.

"흥!" 프로크터 대령이 외쳤다. "설마 여기서 눈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 작정은 아니겠지?"

"대령님," 차장이 대답했다. "오마하에 전보를 보내 열차를 요청해 두었습니다만, 여섯 시간 안에는 메디신 보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섯 시간이라니요!"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그렇습니다." 차장이 대답했다. "게다가 걸어서 메디신 보까지 가려고 해도 그만큼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작 1마일밖에 안 되는데요." 승객 중 한 명이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갈 수는 없는 겁니까?" 대령이 물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가 내려서 개울물이 불어났거든요. 물살이 워낙 거세서, 여울을 찾으려면 북쪽으로 10마일을 돌아가야 합니다."

대령은 철도 회사와 차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 광경을 본 파스파르투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대령의 분노에 기꺼이 동조했다. 주인인 포그가 가진 그 어떤 지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난 셈이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실망감이 감돌았다. 지연된 시간을 계산해 볼 겨를도 없이, 눈 덮인 평원을 따라 15마일을 헉헉거리며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투덜대며 항의를 쏟아냈다. 만약 필리어스 포그가 카드 게임에 완전히 몰두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소란은 분명 그의 주의를 끌었을 것이다.

파스파르투는 주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객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

때, 포스터라는 이름의 전형적인 미국인 기관사가 외쳤다. "신사 여러분, 어쩌면 결국 넘어갈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건너는 방법 말입니까?" 한 승객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 열차가 다리를 건너는 것 말입니까?"

"우리 열차로 말입니다."

파스파르투는 걸음을 멈추고 기관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다리가 위험합니다." 차장이 간곡히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포스터가 대답했다. "최고 속도로 달린다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맙소사!" 파스파르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많은 승객이 기관사의 제안에 즉시 관심을 보였다. 프로크터 대령 역시 그 계획이 매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뻐했다. 그는 기관사들이 증기압을 최대로 높여 다리도 없는 강을 기차로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도 기관사의 생각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성공할 확률이 절반은 되겠군." 누군가 말했다.

"80! 90!"

파스파르투는 깜짝 놀랐다. 메디신 크리크를 건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방금 제안된 방법은 지나치게 미국식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생각했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 하고 있잖아!' 파스파르투는 승객 중 한 명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손님, 기관사의 계획은 제게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만, ——"

"성공할 확률이 80은 되오!" 승객은 그에게 등을 돌리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파스파르투는 다른 승객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아무 소용 없소." 미국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기관사가 분명히 통과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니까 말이오."

"분명 통과할 수 있겠지요." 파스파르투가 재촉하듯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편이——"

"뭐라고! 신중하게!" 프로크터 대령이 외쳤다. 이 단어는 그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모양이었다. "전속력으로 가야 한단 말이오, 안 보이나? 전속력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파스파르투가 되풀이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대령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신중하다는 말 대신 적어도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행동하는 편이——"

"누구야! 뭐야! 저 친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몇몇 사람이 외쳤다.

불쌍한 그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겁이라도 나는 건가?" 프로크터 대령이 물었다.

"겁이라도 나냐고? 좋다,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프랑스인도 저들만큼이나 미국인답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모두 탑승하십시오!" 차장이 외쳤다.

"네, 모두 탑승하십시오!" 파스파르투가 즉시 말을 따라 했다. "하지만 기차를 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걸어서 다리를 건너고, 기차가 그 뒤를 따라오게 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현명한 고찰을 듣지 못했고, 설령 들었더라도 옳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승객들은 각자 객차의 제자리로 돌아갔다. 파스파르투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휘스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게임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기관차가 힘차게 경적을 울렸다. 기관사는 증기압을 역전시켜 기차를 거의 1마일가량 후진시켰다. 마치 더 멀리 뛰어오르기 위해 몸을 뒤로 젖히는 도약 선수처럼 말이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리며 기차를 앞으로 전진시켰다. 기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더니 곧 무서울 정도로 치달았다. 기관차에서는 길게 이어지는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고, 피스톤은 초당 스무 번씩 위아래로 움직였다. 승객들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는 기차가 선로를 거의 누르지 못한 채 떠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기차는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마치 번쩍이는 섬광 같았다. 그 누구도 다리를 보지 못했다. 기차는 말하자면 한쪽 강둑에서 다른 쪽 강둑으로 훌쩍 뛰어넘은 셈이었다. 기관사는 역을 지나 5마일을 더 달리고 나서야 겨우 기차를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기차가 강을 건너자마자, 완전히 파손된 다리는 굉음을 내며 메디신보의 급류 속으로 추락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IX장

미국 철도에서나 일어날 법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하여

그날 저녁, 열차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달렸다. 포트 손더스를 지나 체인 패스를 건너 에반스 패스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번 여정 중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해수면으로부터 8,092피트 높이에 달했다. 이제 여행객들은 자연이 평탄하게 깎아 놓은 끝없는 평원을 지나 대서양을 향해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랜드 트렁크' 노선의 지선 하나가 콜로라도의 주도인 덴버를 향해 남쪽으로 뻗어 있었다. 이 주변 지역은 금과 은이 풍부하며, 이미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사흘 밤낮 동안 1,382마일을 달려왔다. 아마도 나흘 밤낮을 더 가야 뉴욕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어스 포그는 아직 일정에 뒤처지지 않았다.

밤사이 열차는 왼편으로 캠프 월바크를 지나쳤다. 로지 폴 크리크가 철로와 나란히 흘렀는데, 이곳은 와이오밍 영토와 콜로라도 영토를 나누는 경계였다. 열차는 11시에 네브래스카에 진입하여 세지윅 근처를 지나 플랫강 남쪽 지류에 있는 줄스버그에 닿았다.

이곳은 1867년 10월 23일, 수석 엔지니어인 도지 장군에 의해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개통된 장소였다. 철도 부사장인 토머스 C. 듀런트를 비롯한 귀빈들을 태운 객차 아홉 칸을 두 대의 강력한 기관차가 끌고 와 이곳에 멈춰 섰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수족과 포니족은 인디언 전투를 흉내 내는 공연을 펼쳤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가운데, 열차에 실려 온 인쇄기로는 《레일웨이 파이오니어》 창간호가 찍혀 나왔다. 이처럼 거대한 철도는 진보와 문명을 실현할 강력한 도구로서 사막을 가로질러 놓였으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도시와 마을들을 하나로 연결할 운명을 타고났다. 이제 암피온의 리라보다 더 힘찬 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머지않아 그 도시와 마을들을 미국 땅에서 솟아오르게 할 참이었다.

오전 8시에 포트 맥퍼슨을 뒤로하고 떠난 열차는 오마하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357마일을 더 달려야 했다. 철로는 플랫강 남쪽 지류의 변덕스럽게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강 왼편 기슭을 달렸다. 9시가 되자 열차는 주요 거점 도시인 노스 플랫에 멈춰 섰다. 이 도시는 강의 두 갈래 물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두 줄기는 도시 주변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져 커다란 지류를 이루었고, 그 물은 오마하 조금 상류에서 미주리강으로 흘러든다.

동경 101도 경선을 통과했다.

포그 씨와 일행은 다시 카드 게임을 시작했다. 여행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더미조차도 말이다. 픽스 형사는 처음에 몇 기니를 따기 시작했으나, 곧 그 돈을 다 잃을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 역시 포그 씨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휘스트 게임에 임했다. 오전 내내 운은 분명히 포그 씨의 편이었다. 그가 쥔 패에는 으뜸패와 높은 끗수의 오너 카드가 쏟아지듯 들어왔다.

한번은 그가 과감한 수를 두기로 마음먹고 스페이드를 내놓으려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다이아몬드를 내는 게 좋겠소."

포그 씨와 아우다, 그리고 픽스 형사가 고개를 들자 프로크터 대령이 보였다.

스탬프 프로크터와 필리어스 포그는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었군, 영국인!" 대령이 외쳤다. "스페이드 카드를 내놓을 놈이 바로 당신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누가 그 카드를 내는지 볼까요." 필리어스 포그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스페이드 10을 내려놓았다.

"뭐, 난 다이아몬드 카드가 나와서 아주 즐겁군." 프로크터 대령이 무례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는 방금 내려놓은 카드를 낚아챌 듯이 움직이며 덧붙였다. “당신은 휘스트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럴지도 모르죠. 다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한번 시험해 보시든가, 존 불의 아들이여.” 대령이 대답했다.

아우다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포그 씨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그를 뒤로 끌어당겼다. 파스파르투는 상대를 오만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그 미국인을 당장이라도 덮칠 기세였다. 그때 픽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프로크터 대령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령님, 상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당신이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손찌검까지 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픽스 형사님,” 포그 씨가 말했다. “실례지만 이 일은 저만의 문제입니다. 오직 저만의 일이지요. 대령이 제가 스페이드 카드를 내지 못하도록 강요하며 다시 한번 저를 모욕했으니,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든 좋습니다.” 미국인이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무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우다는 필리어스 포그 씨를 만류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픽스 형사 역시 이 싸움에 끼어들려 노력했으나 역시 헛수고였다. 파스파르투는 대령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주인의 눈짓에 그만두어

야 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객차를 나갔고, 미국인도 그를 따라 플랫폼으로 나갔다. "선생," 포그 씨가 상대방에게 말했다. "나는 유럽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우 서두르는 중입니다. 어떤 지체라도 생기면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글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프로크터 대령이 대답했다.

"선생," 포그 씨가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만난 이후, 나는 영국에 온 용무를 마치는 대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당신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섯 달 뒤로 약속을 잡으시겠습니까?"

"그럼 10년 뒤로 잡는 건 어떻습니까?"

"여섯 달 뒤로 하죠."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약속 장소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시간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전부 핑계일 뿐입니다!" 스탬프 프로크터가 외쳤다.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뉴욕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시카고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오마하로 가십니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플럼 크릭을 아시긴 합니까?"

"아니요." 포그 씨가 대답했다.

"다음 역입니다. 열차는 한 시간 뒤에 그곳에 도착할 것이고, 10분 동안 머물 겁니다. 그 10분이면 권총을 여러 차례 주고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지요."

"좋습니다." 포그 씨가 말했다. "플럼 크릭에서 멈추도록 하죠."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영영 떠나지 못하게 될 거요." 미국인이 무례하게 덧붙였다.

"누가 알겠습니까?" 포그 씨가 대답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한 태도로 객차로 돌아갔다. 그는 아우다를 안심시키며 허풍쟁이들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곧 치러질 결투에서 픽스 형사에게 결투 조수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픽스 형사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포그 씨는 중단되었던 게임을 완벽하게 평온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했다.

열한 시가 되자 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플럼 크릭 역에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포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픽스 형사가 그 뒤를 따르며 승

강장으로 나갔다. 파스파르투는 권총 한 쌍을 들고 그와 동행했다. 아우다는 죽은 듯이 창백한 얼굴로 객차에 남아 있었다.

다음 객차의 문이 열리더니 프로크터 대령이 승강장에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그와 똑같은 부류의 미국인 한 명이 결투 조수가 되어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두 결투자가 막 열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차장이 급히 달려와 외쳤다. "신사 여러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는 거요?" 대령이 물었다.

"우리는 이미 20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사와 결투를 벌일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장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벨이 울리고 있군요."

열차가 출발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사 여러분." 차장이 말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기꺼이 도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싸우실 시간은 없었으니, 열차가 달리는 동안 싸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신사분께는 그 제안이 불편할지도 모르겠군요." 대령이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더없이 편할 겁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정말로 미국에 와 있구나." 파스파르투는 생각했다. "게다가 열차 차장은 정말이지 일류 신사로군!"

그는 투덜거리며 주인을 따라갔다.

두 결투자와 그들의 보조자, 그리고 차장은 객차를 지나 열차의 맨 뒤 칸으로 향했다. 맨 마지막 칸에는 승객 열두 명 정도만이 타고 있었다. 차장은 이들에게 두 신사가 명예를 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잠시만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었다. 승객들은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고는 즉시 승강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길이가 약 50피트에 달하는 그 객차는 결투를 치르기에 매우 적합했다. 대결 상대들은 통로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서며 마음껏 총을 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수월하게 결투를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그 씨와 프로크터 대령은 각각 여섯 발들이 리볼버 두 정씩을 챙겨 객차로 들어갔다. 밖에서 대기하던 입회인들이 문을 닫아 두 사람을 안에 가두었다. 두 사람은 기관차가 처음으로 경적을 울리는 순간 사격을 시작하기로 했다. 2분이 지난 뒤, 두 신사에게서 남은 것을 객차 밖으로 끌어내기로 했다.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한 절차였다. 사실 모든 과정이 너무나 단순했기에, 픽스 형사와 파스파르투는 심장이 터져 나갈 듯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약속된 경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거친 비명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고, 결투 중인 두 사람이 있는 객차와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총성은 열차

앞쪽부터 맨 뒤까지 길게 이어졌다. 객차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리볼버를 손에 든 프로크터 대령과 포그 씨는 서둘러 객차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소란이 가장 심한 곳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열차가 수족(Sioux) 무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대담한 인디언들의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길목에서 열차를 습격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습성대로, 열차가 멈추기도 전에 백여 명이나 되는 인원이 단숨에 계단 위로 뛰어올랐다. 마치 전력 질주하는 말에 올라타는 광대처럼 아주 능숙하고 가뿐한 움직임이었다.

수족은 총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총성들이 연달아 울려 퍼졌고, 거의 모두가 무기를 지니고 있던 승객들도 이에 맞서 리볼버를 쏘며 응사했다.

인디언들은 먼저 기관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머스킷 총으로 기관사와 화부에게 휘둘러, 두 사람을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려눕혔다. 수족의 추장 중 한 명은 열차를 멈추고 싶어 했으나 조절기 작동법을 몰랐다. 그는 증기 밸브를 잠그는 대신 오히려 활짝 열어버렸고, 그 바람에 기관차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수족이 객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분노한 원숭이처럼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승객들과 육탄전

을 벌였다. 수족은 수하물 칸까지 침입하여 그곳을 약탈하며 트렁크들을 열차 밖으로 내던졌다. 비명과 총성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여행객들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몇몇 객차는 바리케이드를 쳐서 방어했는데, 마치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달리는 움직이는 요새처럼 포위 공격을 견뎌냈다.

아우다는 처음부터 용감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진정한 여걸처럼 리볼버를 들고 자신을 방어했다. 야만인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녀는 깨진 창문 너머로 총을 쏘아 맞혔다. 수족 스무 명이 치명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고, 선로 위로 떨어진 자들은 마치 벌레처럼 열차 바퀴에 깔려 짓뭉개졌다. 총에 맞거나 정신을 잃은 승객 몇몇이 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10분 동안 이어진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열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수족이 승리하고 말 상황이었다. 주둔군이 있는 포트 키어니 역까지는 불과 2마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그 역을 지나치고 나면, 포트 키어니와 그 너머의 역 사이 구간에서는 수족이 열차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었다.

차장은 포그 씨의 곁에서 함께 싸우다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그는 소리쳤다. "5분 안에 열차를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끝장입니다!"

“열차를 멈추게 하겠소.” 필리어스 포그가 객차에서 뛰어 나가며 말했다.

"가지 마십시오, 주인님!"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제가 가겠습니다."

포그는 용감한 그 사내를 붙잡을 겨를이 없었다. 사내는 인디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문을 열더니, 열차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총알들이 사내의 머리 위로 서로를 가로지르며 빗발치는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과거 곡예사 시절의 경험을 살렸다. 사내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열차 밑을 헤쳐 나갔다. 쇠사슬을 붙잡고 제동 장치와 창틀 가장자리에 몸을 의지하며, 그는 경이로운 기술로 객차와 객차 사이를 기어갔다. 그렇게 그는 열차의 앞쪽 끝까지 도달했다.

그곳에서 사내는 한 손으로는 화물차와 탄수차 사이를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안전 쇠사슬을 풀었다. 하지만 열차가 끌려가는 힘 때문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연결봉이 튕겨 나가지 않았다면 사내는 결코 연결봉을 풀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관차로부터 분리된 열차는 뒤처져 머물렀고, 기관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달려 나갔다.

이미 붙은 속도 덕분에 열차는 몇 분 동안 더 나아갔다. 하지만 제동 장치를 작동하자 열차는 마침내 멈춰 섰다. 키어니 역에서 채 100피트도 되지 않는 거리였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요새의 병사들이 서둘러 다가왔다. 수족(Sioux)은 병사들이 나타날 줄 예상하지 못했기에,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무리를 지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승객들이 역 승강장에서 서로의 인원을 확인했을 때, 몇 명이 보이지 않았다. 그중에는 방금 전 일행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용감한 프랑스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장

필리어스 포그가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장

파스파르투를 포함한 승객 세 명이 사라졌다. 그들은 격투 중에 목숨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수족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것일까?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부상자는 많았으나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프로크터 대령도 가장 심하게 다친 이들 중 하나였다. 그는 용감하게 싸우다 사타구니에 총탄을 맞았다. 대령은 가능한 한 필요한 조치를 받기 위해 다른 부상 승객들과 함께 역 안으로 옮겨졌다.

아우다는 무사했다. 격전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필리어스 포그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픽스 형사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

었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아우다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승객들은 모두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 바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바퀴 테와 바퀴살에는 너덜너덜한 살점이 매달려 있었다. 뒤편의 하얀 평원 너머로 눈이 닿는 곳마다 붉은 흔적이 보였다. 마지막 수족 무리는 리퍼블릭강 기슭을 따라 남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포그 씨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아우다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포그는 그녀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만약 자신의 하인이 인디언들에게 붙잡힌 것이라면,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살아 있든 죽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소."

포그가 아우다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아, 포그 씨! 포그 씨!"

아우다가 그의 두 손을 움켜쥐며 울먹였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는다면, 살아 있는 모습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요."

포그 씨가 덧붙였다.

이러한 결단을 내린 필리어스 포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킨 셈이었다. 그는 스스로 파멸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단 하루만 지체해도 뉴욕에서 증기선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기에서 반드시 패하고 말 터였다. 하지만 포그는 "이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며 망설이지 않았다.

키어니 요새의 지휘관이 그곳에 있었다. 그의 부하 병사 백 명은 수족이 요새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대위님," 포그 씨가 대위에게 말했다. "승객 세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죽었단 말입니까?" 대위가 물었다.

"죽었는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불확실한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수족을 추격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선생님." 대위가 대답했다. "인디언들이 아칸소강 너머로 퇴각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요새를 무방비 상태로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선생님."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 세 사람을 구하자고 쉰 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상대방이 대꾸했다. "나에게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칠 권리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포그 씨가 냉담하게 말했다. "혼자 가겠습니다."

"당신 말입니다!" 픽스 형사가 다가오며 외쳤다. "당신 혼자 인디언들을 뒤쫓겠다는 겁니까?"

"이 불쌍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목숨에 빚을 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혼자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대위가 자신도 모르게 감동한 듯 외쳤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원병 서른 명!" 대위는 군인들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부대 전체가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대위는 그중에서 병사들을 고르기만 하면 되었다. 서른 명이 뽑혔고, 노련한 하사가 그들의 선두에 배치되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포그 씨가 말했다.

"저도 함께 가게 해주겠습니까?" 픽스 형사가 물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하지만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아우다 곁에 남아 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픽스 형사의 얼굴에 갑자기 창백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토록 끈질기게 한 걸음 한 걸음 뒤쫓던 남자를 자신과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 황무지에 그를 홀로 남겨두란 말인가! 픽스 형사는 포그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의구심이 들고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휘몰아쳤지만, 포그의 차분하고 솔직한 눈빛 앞에서 그는 결국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남아 있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잠시 후, 포그 씨는 젊은 여성의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카펫 가방을 그녀에게 맡긴 뒤, 하사와 소규모 부대를 따라 길을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그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포로들을 구출해낸다면, 여러분에게 5,000달러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때는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아우다는 대기실로 물러나 그곳에서 홀로 기다렸다. 그녀는 필리어스 포그의 소박하면서도 고결한 관대함과 평온한 용기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의무감 하나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침묵 속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있었다.

픽스 형사는 그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으며, 요동치는 마음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승강장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곧 겉으로

는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포그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에! 방금 전까지 전 세계를 따라다니며 뒤쫓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과 떨어져 홀로 가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다니!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경찰청장이라도 된 양, 자신의 미숙함을 꾸짖으며 스스로에게 호된 훈계까지 늘어놓았다.

"나는 바보였다!" 그는 생각했다. "그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대체 왜, 체포 영장까지 주머니에 넣고 있는 나 픽스가 그에게 이토록 매료되었단 말인가? 틀림없이 나는 멍청이일 뿐이다!"

픽스 형사는 그렇게 자책하며 시간을 보냈으나,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흘러갔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때때로 아우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불 보듯 뻔했다. 이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그는 광활하고 하얀 평원을 가로질러 포그를 뒤쫓는 방안을 떠올렸다. 포그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다. 눈 위에는 발자국이 쉽게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새로운 눈이 덮이면, 그 어떤 흔적도 모두 지워지고 말 것이다.

픽스 형사는 낙담했다. 그는 아예 이 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갈망마저 느꼈다. 지금 당장 키니 요새 역을 떠나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오후 2시 무렵, 눈이 거세게 쏟아지는 가운데 동쪽에서 길게 울리는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요동치는 불빛을 앞세우며 천천히 다가왔다. 안개 때문에 그 모습은 더욱 거대해 보였고, 기괴한 형상마저 띠고 있었다. 동쪽에서 오는 열차는 예정에 없었으며, 전보로 요청한 구조대가 도착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오마하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열차는 다음 날에야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수수께끼는 곧 풀렸다.

귀를 찢는 듯한 기적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오는 기관차는, 원래 열차에서 분리된 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던 바로 그 기관차였다. 당시 기관사와 화부들은 정신을 잃은 채 그대로 실려 가고 있었다. 기관차는 몇 마일을 달렸으나, 연료가 떨어지면서 불길이 약해졌고 증기압도 줄어들었다. 결국 기관차는 키니 요새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 시간 뒤에야 멈춰 섰다. 기관사와 화부 모두 죽지는 않았으며, 한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그제야 열차도 멈춘 것이다. 황량한 벌판에 홀로 남겨진 데다 기관차에 객차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관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다. 기관차와 열차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뒤처진 열차가 분명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의심치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았다. 인디언들이 여전히 열차를 약탈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원래의 열차로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오마하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로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증기압이 다시 차오르자, 기관차

는 키니 요새를 향해 후진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기적을 울리며 다가오던 것은 바로 이 기관차였다.

여행객들은 기관차가 다시 열차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제야 그들은 처참하게 중단되었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우다는 기관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역 밖으로 급히 달려 나갔다. 그러고는 차장에게 물었다. "곧 출발하나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부인."

"하지만 죄수들은요? 우리와 함께 여행하던 불운한 동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장이 대답했다. "이미 예정보다 세 시간이나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곳으로 오는 다음 기차는 언제쯤 지나갑니까?"

"내일 저녁입니다, 부인."

"내일 저녁이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차장이 대답했다. "정 가시겠다면 어서 타십시오."

"가지 않겠어요." 아우다가 말했다.

픽스 형사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정을 계속할 가망이 보이지 않자 그는 키니 요새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기차가 출발 준비를 마친 채 눈앞에 나타나자, 그저 객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역 승강장이 발바닥을 태우는 듯하여 그는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음속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분노와 좌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끝까지 버텨보고 싶었다.

그사이 승객들과 부상자 일부가 기차에 올라탔다. 부상이 심각한 프록터 대령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과열된 보일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밸브 사이로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기관사가 경적을 울리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는 곧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고, 기차가 내뿜는 하얀 연기는 맹렬히 쏟아지는 눈발과 뒤섞여 흩어졌다.

형사는 뒤에 남겨졌다.

몇 시간이 흘렀다. 날씨는 음산했고 기온은 매우 낮았다. 픽스 형사는 역 대합실 벤치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아우다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대합실 밖으로 계속 나왔다. 그녀는 승강장 끝까지 걸어가 눈보라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시야를 가로막아 지평선을 좁히는 안개를 뚫고, 혹시라도 반가운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을까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몸이 얼어붙을 듯 추워지

면 대합실로 돌아갔고, 잠시 후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그 모든 노력은 늘 허사였다.

저녁이 찾아왔지만, 소규모 구조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디언들을 찾아내어 교전 중인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요새 사령관은 불안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밤이 가까워지자 눈발은 잦아들었으나 기온은 더욱 급격히 떨어졌다. 평원에는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새 떼의 날갯짓 소리도,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도 이 완벽한 고요를 깨뜨리지 못했다.

밤새도록 아우다는 슬픈 예감에 휩싸여, 가슴을 죄어오는 고통 속에서 평원 가장자리를 배회했다. 상상력은 그녀를 먼 곳까지 데려가 수많은 위험을 보여주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픽스 형사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형사는 그저 고개를 저어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새벽이 되자 안개 낀 지평선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태양의 원반이 떠올랐다. 이제는 2마일 밖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필리어스 포그와 구조대는 남쪽으로 떠났으나, 남쪽은 여전히 텅 빈 상태였다. 그때 시각은 7시였다.

정말로 불안에 휩싸인 대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첫 번째 구조대를 구하러 또 다른 부대를 보내야 할까? 이미 희생된 이들을 구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더 많은 병사를 사지로 몰아넣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대위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위가 부관 중 한 명을 불러 정찰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총성이 들려왔다. 신호탄이었을까? 군인들이 요새 밖으로 달려 나갔고,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질서 정연하게 돌아오고 있는 작은 무리를 발견했다.

포그 씨가 그들의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었고, 바로 그 뒤를 수족에게서 구조된 파스파르투와 다른 두 명의 여행객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키니 요새에서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인디언들을 만나 맞서 싸웠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 파스파르투와 일행은 자신들을 붙잡은 자들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인 파스파르투는 주먹으로 세 명의 인디언을 쓰러뜨렸고, 바로 그때 그의 주인과 군인들이 달려와 그들을 구해주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반겼다. 필리어스 포그는 군인들에게 약속했던 보상금을 나누어 주었다. 그동안 파스파르투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주인님께 정말 큰 비용을 치르게 했구나!”

픽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포그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헤아리기는 매우 어려

운 일이었다. 아우다는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을 구해준 보호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으로 꼭 쥐었다.

한편, 파스파르투는 기차를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오마하로 떠날 준비를 마친 기차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기차다! 기차야!" 그가 외쳤다.

"떠났습니다."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그럼 다음 기차는 언제 이곳을 지나갑니까?" 필리어스 포그가 물었다.

"오늘 저녁이 되어야 지나갑니다."

"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신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I장

픽스 형사가 필리어스 포그의 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장

필리어스 포그는 예정보다 20시간이나 뒤처져 있었다. 본의 아니게 이 지연을 초래한 파스파르투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주인을 파멸시키고 만 것이다!

그때 픽스 형사가 포그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포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다.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급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픽스 형사가 말을 이었다. "반드시 11일 저녁 9시 전에는 뉴욕에 도착해야만 합니까? 그 시간이면 리버풀로 향하는 증기선이 출발하니까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 인디언들 때문에 여정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11일 아침에는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증기선이 출발하기 전까지 11시간의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정보다 20시간이 뒤처진 셈이군요. 20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 8시간이 남습니다. 반드시 8시간을 만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도보로 말입니까?" 포그 씨가 물었다.

"아닙니다. 썰매를 탈 겁니다." 픽스 형사가 대답했다. "돛을 단 썰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런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그 남자는 밤사이에 픽스 형사에게 말을 걸어왔으나, 형사가 제안을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픽스 형사가 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걷고 있는 그 남자를 가리키자, 포그는 그에게 다

가갔다. 잠시 후, 포그와 머지라는 이름의 미국인은 요새 바로 아래에 지어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포그는 기이하게 생긴 탈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두 개의 긴 들보로 된 일종의 틀이었는데, 앞부분은 썰매 날처럼 약간 높게 솟아 있었고 대여섯 명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틀 위에는 높은 돛대가 금속 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돛대에는 커다란 브리간틴 돛이 달려 있었다. 또한 돛대에는 지브 돛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뒤쪽에는 일종의 키가 달려 있어 탈것의 방향을 조절했다. 한마디로 슬루프선처럼 장비를 갖춘 썰매였다. 겨울철에 눈 때문에 기차가 운행하지 못할 때면, 이 썰매들은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질러 역과 역 사이를 매우 빠르게 이동한다. 커터선보다 더 많은 돛을 갖춘 데다 뒤에서 바람까지 받쳐주니, 이 썰매들은 급행열차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평원의 표면을 미끄러지듯 달려 나간다.

포그는 이 육상 탈것의 주인과 흔쾌히 계약을 맺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었고, 조건도 아주 좋았다. 눈도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기에, 머지는 몇 시간 안에 포그를 오마하까지 데려다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오마하에서는 동쪽으로 향하는 열차가 시카고와 뉴욕까지 빈번하게 운행된다.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포그는 이런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다.

포그는 아우다가 야외에서 여행하며 겪을 불편함을 우려하여, 그녀를 포트 커니에 남겨두고 파스파르투와 함께 보내기로 제안했다. 하인

인 파스파르투가 더 나은 경로와 안락한 환경을 통해 그녀를 유럽까지 호위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하지만 아우다는 포그와 떨어지기를 거부했다. 파스파르투는 그녀의 결정에 매우 기뻐했다. 픽스 형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주인 곁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픽스 형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필리어스 포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의 확신이 흔들린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포그를 아주 영악한 악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세계 일주를 마치고 영국에 도착하면 자신은 아주 안전할 것이라 믿는 그런 악당 말이다. 어쩌면 픽스가 필리어스 포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했다. 일행 모두의 영국 귀환을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는 결심 말이다.

8시 정각, 썰매가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승객들은 썰매에 올라타 여행용 망토를 몸에 단단히 여몄다. 커다란 돛 두 개가 높이 올라갔고, 썰매는 바람의 압력을 받아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 위를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미끄러져 나갔다.

포트 커니와 오마하 사이의 거리는 새가 날아가는 직선거리로 따져도 기껏해야 200마일이었다.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5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였다. 아무런 사고만 없다면, 썰매는 오후 1시까지 오마하에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참으로 엄청난 여정이었다! 승객들은 서로 몸을 바짝 밀착시킨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나, 질주하는 속도 때문에 더욱 거세진 추위 탓에 입조차 뗄 수 없었다. 썰매는 마치 파도 위를 달리는 배처럼 가볍게 나아갔다. 지면을 스치듯 바람이 불어올 때면, 돛에 힘이 실린 썰매가 마치 땅에서 떠오르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키를 잡은 머지는 썰매가 직선으로 나아가도록 유지했으며, 손을 까닥여 썰매가 흔들리는 것을 적절히 제어했다. 모든 돛이 높이 올라가 있었고, 지브(jib) 돛은 브리간틴(brigantine) 돛을 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돛대 하나가 더 세워졌고, 바람을 향해 펼쳐진 또 다른 지브 돛이 다른 돛들에 힘을 보탰다. 정확한 속도를 가늠할 수는 없었으나, 썰매는 적어도 시속 40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아무런 고장만 없다면," 머지가 말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포그는 머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제안함으로써, 약속된 시간 안에 오마하에 도착하는 것이 머지에게도 이득이 되도록 만들었다.

썰매가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대평원은 바다처럼 평평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얼음 호수 같았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는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데, 그 경로는 그레이트 아일랜드를 거쳐 네브래스카의 요충지인 콜럼버스, 스카일러, 프리몬트를 지나 오마하에 이른다. 철도는 내내 플래트강의 우안을 따라 놓여 있었다. 썰매는 이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 철도가 그리는 곡선의 현을 가로질러 달렸다. 머지는 플래트강이 얼어붙어 있었기에 강 때문에 길이 막힐 것을 걱정하

지 않았다. 이제 길 위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필리어스 포그에게 남은 걱정거리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다. 썰매가 고장 나는 것, 그리고 바람이 바뀌거나 잦아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람은 세력이 약해지기는커녕, 돛대를 휘게 만들 기세로 몰아쳤다. 다행히 금속 결속 장치가 돛대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이 결속 장치들은 마치 현악기의 줄처럼, 바이올린 활로 켜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썰매는 애처로우면서도 강렬한 선율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 음들은 완전 5도와 옥타브를 이루는군요." 포그 씨가 말했다.

여정 내내 그가 내뱉은 말은 이것뿐이었다. 아우다는 모피와 망토로 포근하게 감싸여, 몰아치는 추위로부터 최대한 몸을 보호하고 있었다. 파스파르투의 얼굴은 안개 속에 지는 태양의 형상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살을 에듯 차가운 공기를 힘들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그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11일 아침은 아닐지라도 저녁쯤에는 뉴욕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리버풀로 향하는 증기선이 출항하기 전까지 도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동료인 픽스 형사의 손이라도 꽉 잡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제시간에 오마하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썰매를 구해온 이가 바로 픽스 형사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기에, 그는 평소처럼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파스파르투가 결코 잊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포그 씨가 수족(Sioux)으로부터 자신을 구

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치른 희생이었다. 포그 씨는 자신의 재산과 목숨까지 걸었다. 아니다, 그의 하인인 파스파르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일행이 저마다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썰매는 광활하게 펼쳐진 눈의 카펫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썰매가 지나치는 개울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들판과 시냇물은 온통 균일한 백색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다. 평원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와 커니를 세인트조셉과 잇는 지선 사이의 이 지역은 마치 거대한 무인도와 같았다. 마을도, 역도, 요새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때때로 썰매는 유령처럼 기괴한 나무 곁을 빠르게 지나쳤는데, 그 나무의 하얀 뼈대 같은 가지들은 바람에 뒤틀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때로는 야생 조류 떼가 날아오르기도 했고, 굶주려 수척하고 사나워진 프레리늑대 무리가 울부짖으며 썰매를 뒤쫓기도 했다. 파스파르투는 권총을 손에 쥔 채, 짐승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언제든 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만약 그때 썰매에 사고라도 생겨 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았다면 여행자들은 매우 끔찍한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썰매는 흔들림 없이 나아갔고, 곧 늑대들을 따돌리며 울부짖는 무리를 안전한 거리 뒤로 멀리 남겨두었다.

정오 무렵, 머지는 몇몇 지형지물을 보고 자신이 플랫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마하까지 20마일도 채 남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머지는 키를 놓고 돛을 접었다. 하지만 바람이 실어준 거대한 추진력 덕분에, 썰매는 돛을 펼치지 않은 상태로도 반 마일을 더 나아갔다.

썰매는 마침내 멈춰 섰다. 머지는 눈으로 하얗게 덮인 지붕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이다! 수많은 열차를 통해 대서양 연안과 매일같이 연결되는 바로 그 역에 도착한 것이다!

파스파르투와 픽스 형사는 썰매에서 뛰어내려 굳어버린 팔다리를 쭉 폈다. 그러고는 포그와 젊은 여인이 썰매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왔다. 필리어스 포그는 머지에게 후한 보상을 건넸다. 파스파르투는 머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일행은 곧장 오마하 기차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태평양 철도의 본선은 이 중요한 네브래스카 마을에서 종착한다. 오마하는 시카고와 록 아일랜드 철도로 시카고와 연결되어 있다. 이 철도는 정동쪽으로 곧게 뻗어 있으며, 쉰 개의 역을 거쳐 지나간다.

포그와 일행이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들은 겨우 객차에 올라탈 시간만을 가질 수 있었다. 오마하의 풍경을 구경할 겨를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속으로 이 상황이 전혀 아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여행 목적은 관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차는 카운슬 블러프스, 데모인, 아이오와 시티를 지나 아이오와주를 빠르게 가로질러 갔다. 밤사이 기차는 데이븐포트에서 미시시피강을 건넜고, 록 아일랜드를 거쳐 일리노이주로 들어섰다. 다음 날인 10

일 오후 4시, 기차는 시카고에 도착했다. 시카고는 이미 폐허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아름다운 미시간 호숫가에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시카고에서 뉴욕까지는 구백 마일이 떨어져 있었으나, 시카고에는 기차가 끊이지 않았다. 포그는 곧바로 기차를 갈아탔다. 피츠버그, 포트 웨인, 시카고 철도의 기관차는 마치 이 신사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라도 한 듯 전속력으로 출발했다. 기차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를 번개처럼 가로질렀다. 기차는 고풍스러운 이름을 가진 마을들을 쏜살같이 지나쳤는데, 어떤 마을은 거리와 선로까지 갖추고 있었으나 아직 집은 들어서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내 허드슨강이 시야에 들어왔다. 11일 밤 11시 15분, 기차는 강 우안에 있는 역, 그것도 정확히 커나드 선사의 부두 앞에 멈춰 섰다.

리버풀로 향하는 '차이나호'는 이미 45분 전에 출발해 버린 상태였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II장

필리어스 포그가 불운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

'차이나호'가 떠나버리자, 필리어스 포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함께 사라진 듯했다. 다른 증기선 중에는 그의 계획을 도와줄 만한 배가 단 한 척도 없었다. 프랑스 대서양 횡단 회사의 '페레르호'는 속도와 안락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증기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4일이 되어서야 출발할 예정이었다. 함부르크행 배들은 리버풀이나 런던으로 직행하지 않고 하브르로 향했다. 하브르에서 사우샘프턴까지 가는 여정을 추가한다면, 필리어스 포그가 기울이는 마지막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다. 인먼사의 증기선은 다음 날에야 출발했으므로, 내기에서 이길 만큼 충분히 빠르게 대서양을 횡단할 수도 없었다.

포그는 대서양 횡단 증기선들의 일일 운항 일정이 적힌 '브래드쇼'를 확인하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스파르투는 망연자실했다. 배를 단 45분 차이로 놓쳤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주인을 도와야 할 마땅한 도리도 못 한 채, 오히려 앞길에 장애물만 놓아온 자신의 잘못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겪은 온갖 사건들을 떠올리며, 순전한 손실로 날려버린 비용과 자신의 실수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 눈앞이 아득했다. 막대한 내기 금액에 이 무익한 여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필리어스 포그 씨가 완전히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쓰라린 자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포그 씨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커나드 부두를 떠나며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내일 무엇이 최선일지 다시 논의하도록 하세. 가세.”

일행은 저지시티행 페리를 타고 허드슨강을 건넌 뒤, 마차를 타고 브로드웨이에 있는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 둔 객실에 들어갔다. 필리어스 포그에게는 짧게 지나간 밤이었으나, 아우다와 다른 일행에게는 매우 긴 밤이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은 12월 12일이었다. 12일 오전 7시부터 21일 오후 8시 45분까지의 시간은 총 9일 13시간 45분이었다. 만약 필리어스 포그가 대서양에서 가장 빠른 증기선 중 하나인 ‘차이나호’를 타고 떠났더라면, 그는 약속된 기간 내에 리버풀을 거쳐 런던에 도착했을 것이다.

포그는 파스파르투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우다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즉시 알리라고 지시한 뒤 홀로 호텔을 나섰다. 그는 허드슨강 기슭으로 가서 강에 정박해 있거나 닻을 내린 배들 사이를 살피며, 곧 출발할 배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몇몇 배는 출발 신호를 보내며 아침 조수에 맞춰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 훌륭한 항구에서는 백 일 중 단 하루도 배들이 세계 각지로 떠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배들은 대부분 범선이었고, 필리어스 포그가 이용할 수 있는 배는 당연히 없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던 찰나, 그는 배터리 부근에, 멀어야 한 케이블 거리쯤 떨어진 곳에 정박한 상선 한 척을 발견했다. 스크루로 움직이는 그 배는 선형이 잘 빠져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곧 출항할 채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보트를 불러 타고 곧 선체가 철제로 되어 있고 상부는 나무로 지어진 '헨리에타호'에 올라탔다. 그는 갑판으로 올라가 선장을 찾았고, 선장은 즉시 모습을 드러냈다. 선장은 쉰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전형적인 바다사나이였다. 그는 커다란 눈에 산화된 구리색 피부를 가졌으며, 붉은 머리카락과 두꺼운 목,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선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그가 물었다.

“내가 선장이오.”

“런던에서 온 필리어스 포그라고 합니다.”

"나는 카디프에서 온 앤드류 스피디요."

"지금 바로 출항할 예정입니까?"

"한 시간 뒤에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보르도입니다."

"화물은 무엇입니까?"

"화물은 없습니다. 평형수만 싣고 가는 중입니다."

"승객은 있습니까?"

"승객은 없습니다. 승객을 태운 적도 없고요. 거치적거리기만 하니까요."

"배가 빠른 편입니까?"

"11노트에서 12노트 사이입니다. '헨리에타호'는 아주 잘 알려진 배지요."

"저와 다른 세 사람을 리버풀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리버풀이라고요? 차라리 중국까지 가는 건 어떻습니까?"

"리버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나는 보르도로 떠날 것이고, 반드시 보르도로 갈 겁니다."

"돈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선장은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헨리에타호'의 선주들이—" 필리어스 포그가 말을 이었다.

"선주가 바로 나요." 선장이 대답했다. "이 배는 내 소유니까."

"내가 화물 운송 비용을 지불하겠소."

"안 됩니다."

"배를 통째로 사겠소."

"안 됩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조금도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뉴욕은 홍콩과 같지 않았고, '헨리에타호'의 선장은 '탱카데레호'의 선장과 같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돈만 있으면 모든 장

애물을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갈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열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모험이었고, 무엇보다 실행에 옮길 수도 없는 방법이었다. 그때 필리어스 포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했다. 그는 선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좋습니다, 그럼 저를 보르도까지 데려다주시겠습니까?"

"아니오, 200달러를 주신다 해도 안 됩니다."

"2,000달러를 제안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말입니까?"

"한 사람당 말입니다."

"그럼, 일행이 네 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명입니다."

스피디 선장은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했다. 항로를 바꾸지 않고도 8,000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승객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선장이었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 거부감을 누를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게다가 2,000달러를 지불하는 승객은 더 이상 승객이 아니라 귀중한 화물이나 다름없었다.

“아홉 시에 출발합니다.” 스피디 선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 일행은 준비됐습니까?”

“아홉 시 정각에 승선하겠습니다.” 포그 씨도 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다.

8시 30분이었다. '헨리에타호'에서 내려 마차를 잡아타고, 서둘러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로 간 뒤, 아우다와 파스파르투,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픽까지 데리고 돌아오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포그 씨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이 모든 일을 완수했다. '헨리에타호'가 닻을 올릴 채비를 마쳤을 때, 일행은 이미 배에 올라타 있었다.

이번 항해에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알게 된 파스파르투는, 목소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음역대를 훑으며 길게 "오!"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픽 형사는 이번 사건으로 영란은행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설령 포그 씨가 바다에 지폐 몇 뭉치를 던져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7,000파운드 넘는 돈이 쓰였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III장

필리어스 포그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

한 시간 뒤, 헨리에타호는 허드슨강 입구를 알리는 등대를 지나 샌디 훅 끝자락을 돌아 먼바다로 나아갔다. 낮 동안 배는 롱아일랜드를 따라 해안선을 돌았고, 파이어아일랜드를 지나 동쪽을 향해 빠르게 항로를 잡았다.

다음 날 정오, 한 남자가 배의 위치를 확인하려 선교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가 스피디 선장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남자는 바로 필리어스 포그 씨였다. 스피디 선장은 자물쇠로 굳게 잠긴 선실 안에 갇힌 채, 용서할 만하면서도 지나치게 격앙된 분노를 담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아주 단순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리버풀로 가고 싶었으나, 선장이 그를 데려다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필리어스 포그는 보르도로 향하는 승선권을 샀다. 그리고 배에 탄 30시간 동안 그는 지폐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다. 덕분에 평소 선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원들과 화부들은 모두 포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스피디 선장 대신 필리어스 포그가 지휘권을 잡은 이유였고, 선장이 선실에 갇힌 죄수가 된 이유였으며, 요컨대 헨리에타호가 리버풀을 향해 항로를 잡고 있는 이유였다. 포그가 배를 다루는 솜씨를 보니, 그가 과거에 선원이었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해 보였다.

이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우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 초조해했다. 파스파르투는 포그 씨의 책략이 그저 경이롭다고 생각했다. 선장이 "11노트에서 12노트 사이"라고 말했는데, 헨리에타호가 그 예측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만약'이라는 변수들이 남아 있었다. 바다가 너무 거칠어지지 않아야 했고,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어서도 안 되었으며, 배나 기관에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헨리에타호는 12월 12일에서 21일 사이의 9일 동안 뉴욕에서 리버풀까지의 3,000마일을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단 도착하고 나면, 영란은행에서 벌어진 사건에 헨리에타호 내부에서 일어난 소동까지 더해져, 포그 씨가 상상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항해 초기 며칠 동안은 꽤 순조롭게 흘러갔다. 바다의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바람은 북동쪽에서 일정하게 불어주는 듯했다. 돛을 높이 올린 헨리에타호는 마치 진짜 대서양 횡단 증기선처럼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파스파르투는 매우 즐거웠다. 주인 포그가 저지른 마지막 소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저 그 모습에 매료되었을 뿐이다. 선원들은 이토록 유쾌하고 능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파스파르투는 선원들과 두터운 우정을 쌓았고, 곡예 같은 묘기를 선보이며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선원들이 신사처럼 배를 조종하고 있으며, 화부들은 영웅처럼 불을 지핀다고 생각했다. 파스파르투 특유의 수다스럽고 쾌활한 성격은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그는 과거의 괴로움과 지체되었던 일들을 모두 잊었다. 오직 곧 다가올 결말만을 생각했다. 때로는 헨리에타호의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라도 받은 듯, 조바심에 몸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또한 이 선량한 사내는 픽스 형사의 주위를 맴돌며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살피곤 했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예전 같은 친밀함은 이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픽스 형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헨리에타호를 장악하고 선원들을 매수한 점, 그리고 포그가 숙련된 선원처럼 배를 몰아가는 모습은 그를 경악하게 했고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처음에는 5만 5천 파운드를 훔치기 시작한 자가 나중에는 배 한 척까지 통째로 훔칠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픽스 형사는 포

그의 지휘를 받는 헨리에타호가 리버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에서 해적으로 변한 그가 몸을 숨기기 좋은 세계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추측은 적어도 그럴듯한 구석이 있었기에, 형사는 이 사건에 발을 들인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스피디 선장은 선실 안에서 계속해서 울부짖고 으르렁거렸다. 식사를 가져다주는 임무를 맡은 파스파르투는 용감한 성격이었지만, 그를 대할 때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포그 씨는 배에 선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보였다.

13일, 배는 위험한 해역인 뉴펀들랜드 뱅크스의 가장자리를 지나갔다. 이곳은 특히 겨울철에 안개가 자주 끼고 거센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다. 기압계가 갑자기 떨어지며 기상 변화를 예고한 전날 저녁부터 상황은 심상치 않았다. 밤사이 기온은 요동쳤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으며, 바람의 방향은 남동쪽으로 바뀌었다.

불행한 일이었다. 포그 씨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돛을 내리고 증기 기관의 출력을 높였다. 하지만 선미로 몰아치는 긴 파도 때문에 배의 속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헨리에타호는 격렬하게 요동쳤고, 이 때문에 전진 속도가 더뎌졌다. 미풍은 점차 거센 폭풍으로 변해갔다. 헨리에타호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파스파르투의 얼굴도 하늘빛처럼 어둡게 가라앉았다. 불쌍한 그는 이틀 동안 끊임없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필리어스 포그는 대담

한 항해사였다. 그는 거친 바다를 뚫고 나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포그는 증기 기관의 출력을 줄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항로를 유지했다. 헨리에타호는 파도를 타고 넘지 못할 때면 파도를 그대로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갑판 위로 바닷물이 들이닥치기도 했지만, 배는 무사히 통과했다. 때로는 거대한 파도가 선미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프로펠러가 물 밖으로 솟구쳐 올라 그 끝부분이 거칠게 부딪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배는 언제나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바람이 우려했던 만큼 거세지지는 않았다. 시속 90마일의 속도로 몰아치며 돌변하는 그런 폭풍은 아니었다.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었으나, 불행히도 남동풍이 끈질기게 유지되었다. 이 때문에 돛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12월 16일은 필리어스 포그가 런던을 떠난 지 75일째 되는 날이었으나, 헨리에타호는 아직 심각한 지연을 겪지 않았다. 항해의 절반은 거의 끝났고, 가장 험난한 구간도 지나온 상태였다. 여름이었다면 성공이 거의 확실했겠지만, 겨울인 지금은 악천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파스파르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설령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아직 증기 기관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날 기관사가 갑판으로 올라와 포그 씨에게 다가가더니,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파스파르투는 이유도 모른 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막연히 불안해졌다. 그는 기관사가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귀를 바짝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몇 마디를 겨우 알아들

었는데, 주인이 "자네가 하는 말이 확실한가?"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확신했다.

"확실합니다, 선생님." 기관사가 대답했다. "우리가 출항한 이후로 모든 화로에 불을 뜨겁게 지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보르도까지는 증기를 약하게 써서 갈 만큼의 석탄은 있었지만, 뉴욕에서 리버풀까지 전속력으로 증기를 내뿜으며 가기에는 석탄이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겠네." 포그 씨가 대답했다.

파스파르투는 그 상황을 전부 이해했고,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석탄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아, 주인님께서 저 문제만 해결하신다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유명 인사가 되실 텐데!" 그는 자신이 엿들은 내용을 픽스 형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리버풀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멍청한 놈!" 픽스 형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니, 몸을 돌려 가버렸다.

파스파르투는 도대체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당장이라도 거세게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불운한 픽스 형사가 엉뚱한 단서를 쫓아 세계를 헤매다 허탈하게 물러난 탓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몹시 낙담한 상태일 것이라 생각하며 화를 참았다.

이제 필리어스 포그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다. 그날 저녁, 그는 기관사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석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화로에 불을 계속 지피게 하시오.”

잠시 후, 헨리에타호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배는 증기를 최대한 내뿜으며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18일이 되자, 기관사는 예상했던 대로 그날 중으로 석탄이 바닥날 것이라고 알렸다.

“불길이 약해지게 두지 마시오.” 포그가 대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화력을 유지하시오. 밸브에 증기가 가득 차게 하시오.”

정오 무렵, 현재 위치를 확인한 필리어스 포그는 파스파르투를 불러 스피디 선장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마치 정직한 파스파르투에게 호랑이의 사슬을 풀라고 명령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주인님은 분명 미친 사람처럼 굴 거야!"라고 속으로 되뇌며 선미 데크로 향했다.

잠시 후, 고함과 욕설을 내지르며 선미 데크에 폭탄 하나가 나타났다. 그 폭탄의 정체는 바로 스피디 선장이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갈 듯한 기세였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건가?” 분노에 휩싸인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만약 이 불쌍한 사람이 뇌졸중 환자였다면, 방금 겪은 격렬한 분노의 발작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 채 다시 한번 되물었다.

"리버풀에서 707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포그 씨가 흔들림 없는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해적이다!" 스피디 선장이 외쳤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선장——"

"이 해적 놈!"

"——선장," 포그 씨가 말을 이었다. "이 배를 내게 팔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요."

"안 됩니다! 빌어먹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배를 팔지 않겠다면, 태워버릴 수밖에 없네."

"'헨리에타호'를 태워버려!"

"그래요. 적어도 배의 윗부분만큼은 말이죠. 석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 배를 태우라고!" 스피디 선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할 정도였다. "무려 5만 달러나 하는 배란 말이오!"

"여기 6만 달러가 있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선장에게 지폐 뭉치를 건네며 대답했다. 이 제안은 앤드루 스피디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미국인이라면 6만 달러라는 거금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장은 순식간에 분노와 감금된 처지, 그리고 승객에게 품었던 모든 원망을 잊어버렸다. 헨리에타호는 20년 된 배였으니, 이는 아주 파격적인 거래였다. 결국 폭탄은 터지지 않을 모양이었다. 포그 씨가 성냥을 빼앗아 버린 셈이었다.

"게다가 내게는 이 철제 선체도 남는 것 아니오." 선장이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로 말했다.

"철제 선체와 엔진까지 말입니까. 그럼 계약 성립된 걸로 알겠습니다."

"계약 성립입니다."

앤드루 스피디는 지폐를 낚아채듯 받아 들더니, 그 액수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파스파르투는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픽스 형사는 금방이라도 뇌졸중으로 쓰러질 듯한 기색이었다. 거의 2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금이 이미 쓰였는데, 포그는 선체와 엔진을 선장에게 맡겨버렸으니, 사실상 배 전체의 가치에 맞먹는 금액을 내던진 셈이었다! 하지만 은행에서 5만 5천 파운드를 도둑맞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앤드루 스피디가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자, 포그 씨가 그에게 말했다. "이 일로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가 12월 21일 저녁 9시 15분 전까지 런던에 도착하지 못하면 2만 파운드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을 테니 말이오. 나는 뉴욕에서 증기선을 놓쳤고, 당신이 나를 리버풀까지 데려다주기를 거절했으니—"

"그럼, 잘한 일이지!" 앤드루 스피디가 외쳤다. "덕분에 적어도 4만 달러는 벌었으니까!" 그는 이어서 조금 더 차분한 어조로 덧붙였다. "선장, 한 가지만 묻겠소—"

"포그."

"포그 선장님, 당신에게선 미국인 특유의 기질이 느껴지는군요."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극찬이라 여길 만한 말을 승객에게 건넨 뒤 자리를 뜨려 했다. 그때 포그 씨가 물었다.

"이제 이 배는 제 소유입니까?"

"물론입니다. 배 밑바닥부터 돛대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배를 구성하는 모든 나무 부분은 전부 당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선실 안의 좌석과 침대, 그리고 선체 골조까지 전부 뜯어내서 태워 버리십시오."

증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마른 나무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날은 선미루와 선실, 침대, 그리고 여분의 갑판까지 모두 희생되었

다. 다음 날인 12월 19일에는 돛대와 뗏목, 그리고 돛대용 가로대까지 태워 버렸다. 선원들은 불길을 유지하기 위해 활기차게 움직였다. 파스파르투 역시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찍고, 자르고, 톱질했다. 배를 해체하려는 열기가 그야말로 뜨겁게 타올랐다.

20일에는 난간과 부속품, 갑판의 대부분, 그리고 선체 상부까지 사라졌고, 이제 '헨리에타호'는 평평한 잔해만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들은 아일랜드 해안과 패스트넷 등대를 발견했다. 밤 10시가 되자 배는 퀸스타운을 지나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에게는 런던에 도착하기까지 이제 겨우 24시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증기압을 최대한 높여 리버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증기가 이제 완전히 바닥나려 하고 있었다!

"선장님," 이제는 포그 씨의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된 스피디 선장이 말했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우리는 이제 겨우 퀸스타운 맞은편에 와 있을 뿐입니다."

"아," 포그 씨가 말했다. "저 불빛이 보이는 곳이 퀸스타운입니까?"

"그렇습니다."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 시간은 걸릴 겁니다. 만조 때나 가능하겠지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포그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듯, 불운에 다시 한번 맞서 싸우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퀸스타운은 대서양 횡단 증기선들이 우편물을 내리기 위해 들르는 아일랜드의 항구이다. 이 우편물들은 출발 준비를 마친 채 대기 중인 급행열차에 실려 더블린으로 운송된다. 더블린에서 리버풀까지는 가장 빠른 배를 이용해 보내는데, 이 방식을 통해 대서양 증기선보다 12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필리어스 포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12시간을 단축할 계획이었다. '헨리에타호'를 타고 다음 날 저녁에 리버풀에 도착하는 대신, 정오쯤이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저녁 8시 45분까지는 런던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다.

'헨리에타호'는 만조 시각인 새벽 1시에 퀸스타운 항구로 들어섰다. 스피디 선장은 필리어스 포그와 힘차게 악수를 나누었다. 포그는 선장을 배의 평평한 선체 위에 남겨둔 채 떠났다. 선장이 배를 판 가격의 절반은 여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배였다.

일행은 즉시 상륙했다. 픽스 형사는 그 자리에서 곧장 포그 씨를 체포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왜였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이 쫓던 범인에 대해 생각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까? 하지만 그는 포그 씨를 놓아주지는 않았다. 일행은 모두 1시 30분에 막 출발하려던 기차에 올라탔다. 새벽

녘이 되자 그들은 더블린에 도착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증기선에 몸을 실었다. 그 배는 파도 위로 솟구치는 대신, 거친 물결을 거침없이 가르며 나아갔다.

필리어스 포그는 12월 21일 11시 40분이 되어서야 마침내 리버풀 부두에 상륙했다. 런던까지는 이제 겨우 6시간 거리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픽스 형사가 다가왔다. 그는 포그 씨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체포 영장을 내보이며 물었다. "당신이 정말 필리어스 포그 씨입니까?"

"그렇소."

"여왕 폐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겠소!"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IV장

필리어스 포그가 마침내 런던에 도착하기까지

필리어스 포그는 감옥에 갇혔다. 그는 세관에 구금된 상태였으며, 다음 날 런던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주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자, 경찰 몇 명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당장이라도 픽스 형사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아우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지자 망연자실했다. 파스파르투는 정직하고 용감한 포그가 어째서 강도로 체포되었는지 그녀에게 설명했다. 이토록 파렴치한 혐의를 받다니, 젊은 여인의 마음은 분노로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보호자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픽스 형사의 경우, 포그가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그를 체포한 것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었다.

그때 파스파르투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새로운 불행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픽스 형사의 속셈을 주인에게 숨기지만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픽스 형사가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드러냈을 때, 왜 포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단 말인가? 만약 포그가 미리 경고를 받았더라면, 그는 분명 픽스 형사에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여 형사의 오해를 풀어주었을 것이다. 적어도 픽스 형사가 주인의 뒤를 쫓으며 비용까지 써가며 여정을 이어가다가, 포그가 영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파스파르투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차라리 머리를 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우다와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관 건물의 주랑 아래에 머물렀다. 두 사람 모두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필리어스 포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신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 정말이지 파멸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체포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12월 21일 12시 20분 전에 리버풀에 도착했으므로, 그날 저녁 8시 45분까지는 리폼 클럽에 도착해야 했다. 즉, 아홉 시간 하고도 15분의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리버풀에서 런던까지 가는 데는 여섯 시간이 걸린다.

만약 누군가 이 순간 세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나무 벤치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필리어스 포그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겉으로 화

를 내는 기색도 없이 아주 차분해 보였다. 물론 체념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닥친 결정적인 타격조차 그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지는 못했다. 혹시 그는 억눌러 두었기에 더욱 무시무시한, 마지막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터져 나오고야 말 그런 은밀한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를 침착한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 감옥의 문이 닫혀버린 지금도, 그는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일까?

사정이 어떠했든, 포그는 시계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으나, 그의 눈빛은 유독 단호하고 엄숙했다. 어찌 되었든 상황은 참혹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필리어스 포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파멸한 것이고, 만약 그가 악당이라면 붙잡힌 것이었다.

탈출할 생각이라도 한 것일까? 그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았을까? 아니면 정말로 도망칠 궁리를 한 것일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걸어 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굵은 철창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그는 "12월 21일 토요일, 리버풀"이라고 적힌 줄 아래에 "80일째, 오전 11시 40분"이라고 덧붙인 뒤, 기다림을 시작했다.

세관 시계가 한 시를 알렸다. 포그는 자신의 시계가 실제 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앞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시간이라니! 만약 지금 당장 급행열차를 탄다고 가정하면, 오후 8시 45분까지는 런던에 도착해 리폼 클럽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의 이마에 옅은 주름이 잡혔다.

2시 33분,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급히 열렸다. 파스파르투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픽스 형사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필리어스 포그의 눈이 찰나의 순간 반짝였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파스파르투와 아우다, 그리고 픽스 형사가 그를 향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픽스 형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 그가 말을 더듬었다. "선생님—용서하십시오—정말—운 나쁘게도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사흘 전에 강도를 체포했는데—이제 자유입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픽스 형사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앞으로도 결코 보여준 적 없을 만큼 유례없이 빠른 동작으로 팔을 휘둘렀다. 포그는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정확하고도 매섭게 픽스 형사를 쓰러뜨렸다.

"잘 하셨어요!"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세상에나! 그야말로 영국식 주먹의 진수를 보여주셨군요!"

바닥에 나동그라진 픽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렀을 뿐이었다. 포그 씨와 아우다, 그리고

파스파르투는 지체 없이 세관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곧장 마차에 올라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역에 도착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으로 떠나는 급행열차가 곧 있는지 물었다. 시각은 2시 40분이었다. 급행열차는 이미 35분 전에 떠난 뒤였다. 그러자 필리어스 포그는 특별 열차를 대절했다.

사용 가능한 고속 기관차는 여러 대 있었다. 하지만 철도 운영 규정상 특별 열차는 3시가 되어야 출발할 수 있었다.

그 시각, 필리어스 포그는 기관사에게 후한 보상을 약속하며 그를 독려했다. 마침내 그는 아우다, 그리고 충직한 하인과 함께 런던을 향해 출발했다.

여정은 다섯 시간 반 만에 마쳐야 했다. 가는 길 내내 막힘이 없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했다. 결국 포그 씨가 종착역에서 열차에서 내렸을 때, 런던의 모든 시계는 9시가 되기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계 일주를 마쳤으나, 그는 예정보다 5분 늦고 말았다. 내기에서 진 것이다!

[1] 런던의 시계들이 보여준 다소 놀라운 기행이라 할 수 있겠군요! — 역자 주.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V장

필리어스 포그가 파스파르투에게 명령을 두 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없는 장

다음 날, 필리어스 포그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새빌로의 주민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의 집 문과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을 떠난 후, 포그 씨는 파스파르투에게 식료품을 좀 사 오라고 지시하고는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함으로 불행을 견뎌냈다. 파멸이라니! 그것도 픽스 형사의 실수 때문에 말이다! 그 긴 여정을 쉼 없이 달려오고, 수백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며, 수많은 위험에 맞서 싸우고, 그 와중에

선행을 베풀 시간까지 냈건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지니고 있던 거금 중에는 아직 몇 파운드가 남아 있었다. 그의 재산 중 남은 것이라곤 베어링스 은행에 예치해 둔 2만 파운드뿐이었는데, 이마저도 리폼 클럽 친구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 이번 여행에 들어간 비용이 워낙 막대했기에, 설령 내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에게 큰 부를 가져다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 내기에 임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애초에 재산을 불리려는 목적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내기는 그를 완전히 파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포그 씨의 행보는 이미 완전히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사빌 로에 있는 저택의 방 하나가 아우다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보호자가 겪은 불행에 슬픔을 금치 못했다. 포그 씨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들을 통해, 그녀는 그가 어떤 중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힌 영국인들이 때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파스파르투는 주인을 세심하게 살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감시를 이어갔다.

우선, 그 충직한 하인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80일 동안이나 켜져 있던 가스등을 껐다. 그는 우편함에서 가스 회사가 보낸 청구서를 발견했

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던 이 지출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밤이 지나갔다. 필리어스 포그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과연 잠을 이루었을까? 아우다는 단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파스파르투는 충직한 개처럼 밤새도록 주인의 방문 앞을 지켰다.

아침이 되자 포그는 파스파르투를 불렀다. 그는 아우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은 차 한 잔과 찹 스테이크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또한 아우다에게 아침과 저녁 식사를 사양해도 좋다고 전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써야 할 것 같다는 이유였다. 대신 저녁 무렵에 젊은 숙녀와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명령을 받은 파스파르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그 곁을 떠나기가 어려웠다. 마음은 무거웠고 양심은 죄책감으로 괴로웠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자책이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프게 밀려왔다. 그렇다! 만약 자신이 포그에게 미리 경고하고 픽스 형사의 계략을 폭로했더라면, 주인은 분명 그 형사를 리버풀행 배에 태워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파스파르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인님! 포그 씨!" 그가 외쳤다. "어째서 저를 저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도 탓하지 않네." 필리어스 포그가 완벽하게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가보게!"

파스파르투는 방을 나와 아우다를 찾아갔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전해달라는 말을 그녀에게 전달했다.

"부인," 그가 덧붙였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주인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이라면, 어쩌면—"

"제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우다가 대답했다. "포그 씨는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께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신 적이 있나요? 제 마음을 읽어보신 적은요? 친구여, 그분을 단 한 순간도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실 거라니, 정말인가요?"

"네, 부인. 아마도 부인께서 영국에 머무시는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려는 것일 겁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요." 아우다가 대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되었다.

일요일인 이날 하루 동안, 새빌 로에 있는 포그의 저택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고요했다. 웨스트민스터 시계가 11시 30분을 알렸을 때, 필리어스 포그는 그 집에 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리폼 클럽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가 왜 리폼 클럽에 나타나야 하겠는가? 이제 친구들은 그가 그곳에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필리어스 포그가 전날 저녁(12월 21일 토요일, 8시 45분)에 클럽 휴게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내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2만 파운드를 찾으러 은행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 그를 가로막은 자들이 이미 그의 수표를 손에 쥐고 있었으므로, 그저 수표에 금액을 적어 베어링스 은행으로 보내기만 하면 그 돈은 곧바로 그들의 계좌로 이체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포그 씨는 외출할 이유가 없었고, 그대로 집에 머물렀다.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밀린 업무를 정리하는 데 몰두했다. 파스파르투는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렸다. 그에게 시간은 너무나도 느리게 흘렀다. 그는 마치 그럴 권리가 충분하다는 듯, 또 언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듯, 주인의 방문에 귀를 기울이고 열쇠구멍으로 안을 살폈다. 때때로 그는 픽스 형사를 떠올렸으나, 이제 더는 분노하지 않았다. 픽스 형사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러하듯 필리어스 포그를 오해했을 뿐이며, 그를 추적하고 체포하려 한 것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었다. 반면 자신, 파스파르투는……. 이 생각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의 비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 된 파스파르투는 아우다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슬픈 눈으로 젊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아우다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일곱 시 반쯤, 포그 씨는 아우다가 자신을 맞아줄 수 있는지 사람을 보내 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그녀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의자를 가져와 아우다의 맞은편, 벽난로 근처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돌아온 포그는 떠나기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에게는 여전히 변함없는 침착함과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아우다를 지긋이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부인, 당신을 영국까지 데려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포그 씨, 제가 어찌 그런 말씀을요!" 아우다가 대답했다. 그녀는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했다.

"말을 끝까지 듣게 해주십시오." 포그 씨가 대답했다. "당신에게 너무나 위험했던 그 나라에서 당신을 멀리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부유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당신을 위해 쓸 생각도 했었지요. 그랬다면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그 씨." 아우다가 대답했다. "그러니 저도 묻고 싶군요. 당신을 따라나선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당신의 여정을 늦추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당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부인, 당신은 인도에 머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박해자들이 당신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포그 씨," 아우다가 말을 이었다. "저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낯선 타국에서도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인. 하지만 상황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군요. 그럼에도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이나마 부인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포그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부인," 신사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 앞에 놓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아우다가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에게 궁핍함이 닥쳐서는 안 돼요. 선생님의 친구분들이라면—"

"제게 친구란 없습니다, 부인."

"친척분들이라도—"

"이제 제게 친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그 씨, 당신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슬픔을 털어놓을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고독은 참으로 슬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불행이라도 마음이 통하는 두 영혼이 함께 나누면,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부인."

"포그 씨," 아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 당장 혈육이자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포그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빛이 감돌았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우다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을 구원해 준 이에게 모든 것을 바칠 용기를 가진 고귀한 여인이 보내는 그 부드러운 눈길에는 진실함과 올곧음, 확고함과 다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 눈길은 처음에는 포그를 놀라게 했으나, 이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담백하게 말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스러운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의 사람입니다!"

"아!" 아우다가 그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갖다 대며 외쳤다.

파스파르투가 호출을 받고 즉시 나타났다. 포그 씨는 여전히 아우다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맞잡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상황을 알아차렸고, 그의 크고 둥근 얼굴은 정점에 다다른 열대 지방의 태양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포그 씨는 그에게 물었다. 메릴본 교구의 사무엘 윌슨 목사에게 그날 저녁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을지 말이다.

파스파르투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8시 5분이 지나 있었다.

"내일, 월요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일, 월요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그 씨가 아우다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 내일 월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파스파르투는 다리가 부서져라 서둘러 달려갔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VI장

필리어스 포그의 이름이 거래소에서 다시금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다

12월 17일, 에든버러에서 제임스 스트랜드라는 인물이 진짜 은행 강도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 여론은 급격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이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필리어스 포그는 경찰의 끈질긴 추격을 받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학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일정에 따라 기이한 세계 일주를 이어가는 명예로운 신사가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다시 내기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포그의 승리나 패배에 돈을 걸었던 모든 이들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다시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필리어스 포그 채권'은 다시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새로운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필리어스 포그의 이름은 다시금 환전소에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폼 클럽의 다섯 친구는 지난 사흘 동안 열병에 걸린 듯한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잊은 듯했던 필리어스 포그가 다시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제임스 스트랜드가 체포된 12월 17일은 필리어스 포그가 출발한 지 76일째 되는 날이었지만, 그에 관한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을까? 도전을 포기했을까, 아니면 약속된 경로를 따라 여정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과연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리폼 클럽 살롱의 문턱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지난 사흘 동안 런던 사교계가 겪은 불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필리어스 포그의 소식을 듣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로 전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새빌 로에 있는 그의 저택에는 아침저녁으로 전령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단서를 쫓느라 불운한 처지에 놓였던 픽스 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경찰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기의 횟수와 액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마치 경주마처럼 마지막 승부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더 이상 액면가보다 100파운드 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20파운드, 10파운드, 심지어 5파운드 차이로 거래되었습니다. 마비 증세가 있는 노령의 알버마를 경은 포그의 승리에 돈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팰 몰과 인근 거리에는 거대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리폼 클럽 주변에 상주하는 수많은 중개인이 모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방해받았고, 곳곳에서는 논쟁과 토론, 그리고 금전 거래가 한창이었습니다. 경찰은 인파를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필리어스 포그와 내기를 했던 다섯 명의 상대는 클럽의 커다란 연회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은행가인 존 설리번과 사무엘 팔렌틴, 엔지니어 앤드루 스튜어트, 영란은행 이사인 고티에 랄프, 그리고 양조업자 토머스 플래너건까지, 이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8시 20분을 가리키자, 앤드루 스튜어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20분 뒤면 포그 씨와 우리 사이에 약속한 시간이 끝납니다."

"리버풀에서 오는 마지막 열차는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토머스 플래너건이 물었습니다.

"7시 23분에 도착했습니다." 고티에 랄프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열차는 12시 10분이 되어야 도착합니다."

"자, 신사 여러분." 앤드루 스튜어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필리어스 포그가 7시 23분 열차를 타고 왔다면 지금쯤 여기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기는 끝난 것으로 봐도 되겠군요."

"잠시만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사무엘 팔렌틴이 대답했습니다. "포그 씨가 매우 별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시간을 엄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결코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늦게 오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 그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앤드루 스튜어트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인지 믿기지 않을 것 같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토머스 플래너건이 말을 이었습니다. "포그 씨의 계획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시간을 엄수한다 한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연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작 이틀이나 사흘만 늦어져도 그의 세계 일주는 실패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것도 보십시오." 존 설리번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여정 경로를 따라 전신선이 깔려 있는데도, 그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패배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앤드루 스튜어트가 말했습니다. "백 번을 졌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가 제시간에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뉴욕에서 탈 수 있었던 유일한 증기선인 '차이나호'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제가 승객 명단을 확인해 보았지만, 필리어스 포그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설령 운이 그를 도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미국에 도착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제 생각에

그는 적어도 이십 일은 늦을 것이고, 알버마를 경은 족히 오천 파운드는 잃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티에 랄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베어링스 은행에 가서 포그 씨의 수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클럽 시계의 바늘이 9시 20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앤드루 스튜어트가 말했습니다.

다섯 신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었지만, 그들은 그 기색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렌틴 씨가 제안한 휘스트 한 판(러버)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몫인 4,000파운드짜리 내기는, 3,999파운드를 준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소." 앤드루 스튜어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계는 8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사들은 카드를 집어 들었지만, 시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들에게 흐르는 시간은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8시 43분이군." 랄프가 건네준 카드를 떼며 토머스 플래너건이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은 완벽한 고요에 잠겼으나, 밖에서는 군중의 웅성거림과 간간이 들려오는 날카로운 외침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계추는 초를 새기며 움직였고, 신사들은 수학적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매 순간을 간절하게 헤아렸습니다.

"8시 44분이군!" 존 설리번이 감정을 숨기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1분만 더 있으면 내기의 승패가 갈릴 상황이었습니다. 앤드루 스튜어트와 그의 동료들은 하던 게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카드도 내버려 둔 채, 흐르는 초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40초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50초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55초가 지났을 때, 거리에서 커다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박수 소리와 환호성, 그리고 거친 야유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신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7초가 지났을 때,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시계추가 60초를 채치기도 전에 필리어스 포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럽 문을 밀치고 들어온 흥분한 군중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포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Book and news dealers, sellers of edibles, drinkables, and cigars, who · 제XXXVII장

필리어스 포그가 세계 일주를 통해 얻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

그렇다. 필리어스 포그가 직접 나선 것이다.

독자는 다음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여행자들이 런던에 도착하고 약 25시간이 지난 저녁 8시 5분경, 파스파르투는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다음 날 거행될 어느 결혼식의 집례를 맡아줄 새뮤얼 윌슨 목사를 섭외하라는 명령이었다.

파스파르투는 넋이 나간 듯 황홀한 기분으로 심부름을 이어갔다. 그는 곧 목사의 집에 도착했으나, 목사는 집에 없었다. 파스파르투는 꼬박 20분 동안 기다렸고, 목사의 집을 나섰을 때는 이미 8시 35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

졌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그는 그 누구도 본 적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거리를 질주했다. 마치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듯 보도를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밀치고 달렸다.

3분 만에 새빌 로에 도착한 그는 비틀거리며 포그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입을 뗄 수조차 없었다.

"무슨 일인가?" 포그 씨가 물었다.

"주인님!" 파스파르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결혼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

"불가능합니다…… 내일은 안 됩니다."

"어째서죠?"

"그건 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포그 씨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하루를 착각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정보다 24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뿐이라고요!"

파스파르투는 주인의 덜미를 움켜쥐고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끌고 갔다.

그렇게 납치되다시피 한 필리어스 포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을 나섰다. 그는 마차에 올라타며 마부에게 100파운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개 두 마리를 치고 마차 다섯 대를 뒤엎으면서까지 달려가 마침내 리폼 클럽에 도착했다.

그가 거대한 연회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시계는 9시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가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완수했다!

필리어스 포그가 2만 파운드 내기에서 승리했다!

그토록 정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루라는 오차를 범할 수 있었단 말인가? 출발한 지 겨우 79일째 되는 날인 실제 날짜는 12월 20일 금요일이었는데, 어째서 그는 자신이 12월 21일 토요일에 런던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 오차가 생긴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정 중에 하루를 벌게 되었다. 이는 그가 줄곧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여행했더라면, 그는 오히려 하루를 잃었을 것이다.

동쪽으로 여행하며 그는 태양을 향해 나아갔다. 그 덕분에 동쪽 방향으로 경도를 이동할 때마다 하루의 길이는 4분씩 줄어들었다. 지구의 둘레는 360도이다. 이 360도에 4분을 곱하면 정확히 24시간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도 모르게 벌게 된 하루의 정체다. 다시 말해, 동쪽으로 이동한 필리어스 포그는 태양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것을 80번 보았지만, 런던에 있는 친구들은 태양이 자오선을 통과하는 것을 79번밖에 보지 못했다. 포그 씨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사람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 리폼 클럽에서 그를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파스파르투의 유명한 회중시계가 만약 시간과 분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표시할 수 있었다면, 언제나 런던 시간을 정확히 가리키던 그 시계가 바로 이 사실을 드러냈을 것이다!

결국 필리어스 포그는 2만 파운드를 따냈다. 하지만 여정 중에 거의 1만 9천 파운드를 써버린 탓에 금전적인 이득은 적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은 1천 파운드를 파스파르투와, 자신에게 아무런 원망도 품지 않은 불운한 픽스 형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만 포그는 규칙성을 중시하는 성격답게, 파스파르투의 몫에서 1,920시간 동안 그의 방을 밝힌 가스 비용을 공제했다.

그날 저녁, 포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아우다에게 물었다. "우리 결혼, 여전히 당신 마음에 드나요?"

"포그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 질문은 제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제 다시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용서하십시오, 부인. 제 재산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결혼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제 하인이 사무엘 윌슨 목사님 댁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 또한 제 실수를 알지 못했을 테니, 그리고 _"

"사랑하는 포그 씨!" 젊은 여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우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결혼식이 그로부터 48시간 뒤에 치러졌다는 것,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환하게 빛나는 파스파르투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가 그녀를 구해 내지 않았던가? 그러니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그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파스파르투는 주인님의 방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포그 씨가 문을 열며 물었다. "무슨 일인가, 파스파르투?"

"무슨 일입니까, 주인님? 그게, 방금 막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만 ____"

"무엇인가?"

"우리가 단 78일 만에 세계 일주를 마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지요." 포그 씨가 대답했다. "인도를 가로지르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를 가로지르지 않았더라면 아우다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는 제 아내가 되지 못했을 테니, 그리고—"

포그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내기에서 승리했고,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마쳤다. 이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 그는 증기선, 철도, 마차, 요트, 상선, 썰매,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이동 수단을 동원했다. 이 괴짜 신사는 여정 내내 냉정함과 정확함이라는 자신의 놀라운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이 모든 고생을 치르고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길고 지루한 여정 끝에 그가 가지고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는 매력적인 여인 한 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여인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진정으로 묻건대, 그보다 못한 대가를 위해서라면 당신은 세계 일주를 하겠는가?